건강한 소그룹, 건강한 교회

이 책의 목표는 건강한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다양한 욕구가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 교회는 결국 소그룹 사역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채이석 · 이상화 지음

소그룹하우스

채이석 목사

총신대학교 신학과(B.A.)와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미국 리폼드신학교(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Th. M.)와 웨스트민스터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Th.M. & D.Min과정)을 거쳐 시카고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에서 역사신학으로 박사(Ph.D.)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는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서 그리고 비전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건강한 소그룹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사역에 열정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상화 목사

총신대학교 신학과(B.A.)와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을 하고 총신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Th.M. Ph.D., 과정이수) 조직신학을 전공으로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학위(Ph.D.)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캐나다토론토대학교(Univ of Toronto)에서 Visiting Scholar로 연구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교회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올바른 교회관의 정립을 위해 노력하면서 '사)교회갱신협의회'와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사무총장으로 20년을 넘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 대표로서 웨스트민스터신학원대학교 소그룹목회학과에서 긴 시간 가르쳤고, 이론을 목회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현재 서교동에 위치한 서현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 홈페이지 www.smallgroup.co.kr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지은이 | 채이석, 이상화
발행일 | 초　판 1쇄 2005년　3월　1일
　　　　개정판 2쇄 2020년 11월 26일
등록 | 2001.05.02.(제 4-423)
등록된 곳 |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7길 31 교육관 503호
발행처 | 소그룹하우스
발행인 | 이상화
편　집 | 김태연
영업부 | 070-7578-2957
디자인 | 디자인집(02-521-1474)
총　판 | 국제제자훈련원(02-3489-4300)
값 : 11,000원

ISBN 978-89-91586-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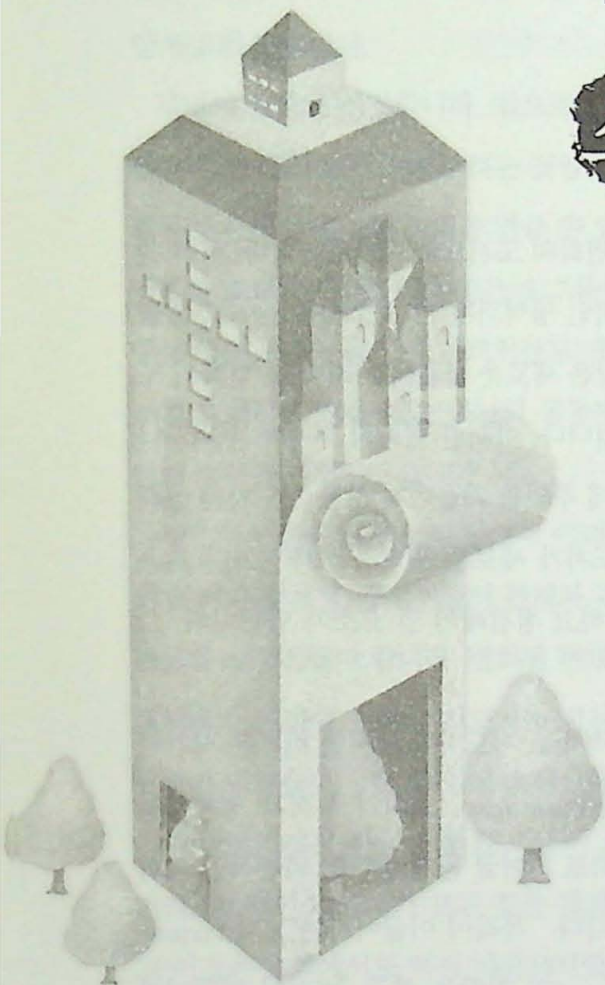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 (홈페이지 : www.smallgroup.co.kr)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은 한국 교회가 건강한 소그룹을 통하여 건강하고 균형잡힌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소그룹 사역 전문기관입니다.

소그룹하우스
소그룹하우스는 건강한 소그룹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모든 교회들이 필요로하는 소그룹 소프트웨어와 자료들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건강한

어떻게 할 것인가?

소그룹하우스

머리말

새로운 천년의 시작은 근본적인 변화의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에 대한 요구는 영적인 영역까지 그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 조직의 지도자라면 이와 같은 새로운 물결이 가져다 줄 변화와 도전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복합성을 깨닫지 못하거나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지도자는 실패하거나 단명하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가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거나 혹은 난제에 부딪칠 때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체의 목적과 정체성입니다.

빌 하이벨스(Bill Hybels) 목사의 지적대로 지도자가 제시한 비전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누수현상이 나타납니다(Vision leaks). 교회의 목적과 정체성을 겨우 교회 창립주일에나 한번씩 교회로 하여금 듣게 한다면 역동적인 교회의 모습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Purpose-Driven Church)"라는 릭 워렌(Rick Warren)의 철학은 결국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Vision-Driven Church)"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선명한 비전에서 교회의 목적과 정체성도 우러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세워야 할 조직은 영적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다른 기구나 조직들이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동안, 교회는 어떻게 이 많은 변화들을 극복할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조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해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 자신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의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성장합니다. 앞으로 교회 사역 방향은 성장 위주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목표는 건강한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본래적인 원형은 소그룹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명의 제자들을 모아 가르치셨고,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도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지도자는 그 조직의 목적과 정체성, 구성원들의 관계와 과정, 프로그램과 우선 순위 등의 요소들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변화된 현대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회의 지도자는 비전을 세우고, 체계와 구조를 만들고, 변화의 방향을 지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사실 이제까지 한국 사회를 이끌어 온 리더십은 절대적인 비중을 가진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고 이것은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 주는 대표적인 현상이 대형 대중집회와 설교 위주의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양적 성장에 있어서 이와 같은 형태의 추진력이 기여

한 바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상황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다양한 가치들이 존중되고, 정보 매체들을 통하여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되고, 개개인의 개성과 인격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양적 성장보다는 삶의 질이 중요시되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도 개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인격적인 리더십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그룹 중심 양육체계의 개발을 통하여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소그룹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모으시고, 가르치시고, 임무를 맡기신 초대교회의 모델이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 모델입니다. 건강하고 창의적인 소그룹은 일정한 시간에 한 자리에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찾고 성숙하기 위해서 3~12명 정도의 크리스천들이 상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얼굴을 마주 대하는 나눔의 모임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의 능력을 발견한 사람들이 서로 돌아보고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었던 코이노니아가 바로 바람직한 소그룹의 전형인 것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소그룹의 원리는 지난 40여 년의 연구와 실험을 통하여 이제까지 실시된 제자 훈련 프로그램들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메시지와 교육학적인 방법론에 조화를 시도한 전문자료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그룹을 함께 모이게 하고, 변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것이며 소그룹 목회가 충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책으로 엮게 되었습

니다.

건강한 소그룹 목회는 1세기의 복음을 21세기의 현대인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는 미래 교회 사역의 대안입니다. 바람직한 소그룹의 3가지 기본요소라 할 수 있는 성경 본문에 충실한 내용, 공동체를 견고히 세워주는 보살핌, 지속적이고 건전한 확장과 이웃을 향한 섬김 사역이 균형잡혀 있는 소그룹 목회 프로그램들이 한국 교회의 양육체계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 올려 줄 것을 확신합니다.

이 한 권의 책을 통하여 소그룹 목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적인 성경 연구, 인격적인 교제와 보살핌, 지속적인 전도와 성장이 균형 있게 열매 맺는 건강한 소그룹 목회의 방향과 대안이 제시되어 한 차원 높은 21세기 목회의 도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은 그동안 기독신문사출판부에서 출판되어 독자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역기관인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이 계속 사역을 하는 동안 개정 증보할 필요가 생겼고, 동시에 기존 출판사와 계약만료가 되어 본 연구원 산하 출판사인 소그룹하우스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의 사역은 올해로 10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본 기관의 웹사이트인 smallgroup.co.kr의 대표칼럼을 비롯하여 여러 매체들로부터 원고 청탁을 받아 건강한 소그룹 사역에 대한 글들을 발표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증보판은 그동안 발표한 글들을 다시 분석하고 정리하여 초판의 책을 보완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

건강한

머리말

어떻게 할 것인가?

HEALTHY SMALL GROUP MINISTRY

1장 | 소그룹이란 무엇인가?

변화하는 21세기의 현실과 소그룹의 필요성

변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세기가 이미 시작되었다. 산업 사회의 틀 속에서 이미 정보 사회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변화의 현실 속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에 대한 요구는 영적인 영역에까지 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변화는 기본적이고 불가피한 것이다. 변화는 언제나 있어 왔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변화가 이제까지 있었던 변화들과 다른 점은 그것이 보다 더 빠르게 복합적인 형태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사회 구조와 그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재

평가되고, 재정의되고, 새롭게 재구성되는 역사의 한 시점에 살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의 수많은 단체와 조직들이 이 거대한 재편성의 물결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경제, 과학, 교육, 비즈니스, 정치, 군사, 가정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뚜렷이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가족 제도의 변화다. 불과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대다수의 가정은 대가족 중심이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1.5~3인 이내의 핵가족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 전통 사회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각 지역에 멀리 떨어져 살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는 가까운 친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생활을 나누는 가족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곤 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친족들이 가까이 모여서 살고 있지 않으며, 핵가족으로 살고 있고, 통상적인 가족 수는 4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웃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과거 우리의 자랑이었던 이웃 간의 상호 교제는 지금 거의 단절되었다. 전통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지역에서 이웃을 이루며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웃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서로 가족처럼 돌보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보통 3년마다 이사를 하기 때문에 이웃을 거의 모르고 지낸다. 아파트 단지와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리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농촌 지역의 사람들보다 더 상호 교제가 없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직장에 대한 의식도 엄청난 변화를 초래했다. 평생직장 개념이 붕괴된 것이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곳, 한 직장에서 25년 정도는 근무를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평균 매 5년마다 직장을 옮기든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근무를 하며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직장 근무 기간을 말할 때 과거는 아날로그 시계와 같고 현재는 디지털 시계와 같

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일반 직업에 대한 변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가지 전문적인 하이테크 분야의 발전 속도에 따라 여기에 뒤쳐지는 사람들은 실직하게 되거나 피해를 입기 쉽다.

더욱이 교회 생활까지도 변화의 몸살을 겪게 되었다. 불과 한 세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는 기독인들의 모든 생활(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중심이었다. 교회의 여러 활동 프로그램들과 주일학교, 문화행사 등이 자연스럽게 사회적, 오락적, 영적 후원체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수준도 일반 사회의 프로그램들을 능가했다. 과거에는 교회가 예배 기능 외에도 교제, 놀이, 교양,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오늘날 상당수의 교인들은 교회를 주일날 오전 예배에만 참가하는 기능을 가진 곳으로 생각하는 '선데이 크리스천'이 되고 있다. 그들은 교회 밖에서 교제도 하고, 놀이도 하고, 모임도 갖고, 수많은 여가 활동을 즐기고 있다.

어떤 조직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와 같은 새로운 물결이 가져다 줄 변화와 도전을 민감하게 깨달아야만 한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복합성을 깨닫지 못하거나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지도자는 실패하거나 단명하게 될 것이다. 난제에 부딪칠 때 지도자는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요소들을 재점검해야 한다. 첫째는 단체의 목적과 정체성이고, 둘째는 단체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와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며, 셋째는 시행하는 프로그램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는 일이다.

지도자의 반응

이제 전혀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들의 장래

를 스스로 조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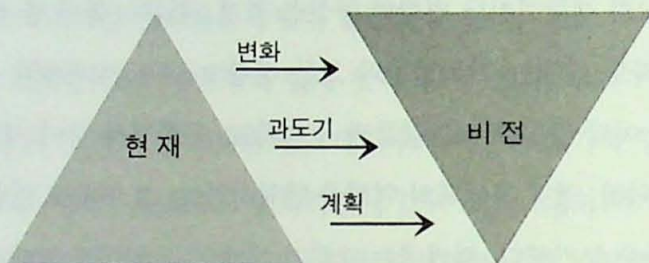



그림1 변화

위의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과거의 구도는 정삼각형과 같은 안정적인 구도였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미래 사회는 역삼각형과 같이 불안정한 구도를 보여준다. 21세기라는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모든 변화의 모습들은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들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세기의 시작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이러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도자는 반드시 자신의 사고와 행동의 우선순위를 재고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우선 순위를 바로 세우는 방법은 먼저 비전을 세우고, 거기에 적합한 구조를 만든 다음, 변화의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구성원 각자가 가진 개성의 가치를 고려하여 그들에게 인격적인 리더십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 교회가 미래를 향한 조직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일을 할 때 내면적인 정신의 재점검만으로는 완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 과정은 반드시 구체적인 변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선택과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21세기의 변화는 한 가지 요소의 변화로는 묘사될 수 없

으며, 실제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은 변화에 대처할 때 그때 그때 즉각적으로 대처하면서 일을 벌여 가는 방법과 근본적이고 체계적이며 진단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방법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한다. 만일 즉흥적으로 상황에 따라 대처하면서 일을 벌여 나가는 전략을 선택하면 우선은 바로 눈앞에 닥친 일을 다루면서 연쇄적인 대응방식으로 불가피한 변화에 따라가는 모습이 된다. 그러나 만일 근본적인 변화 전략을 선택한다면 조직의 연관 관계에 있어서 서로 맞물려 있는 각 부분들이 유기적이고 동시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의 변화 극복 방법

오늘날 위기 중의 위기는 척 콜슨이 말한 대로 "정체성의 위기(Identity Crisis)"인지도 모른다. 변화의 시대에는 조직이나 단체의 목적성을 분명히 하는 일이 중요하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모든 질서를 재측정해야 한다. 이러한 질서의 재측정은 모든 것을 철저하게 되돌아보는 것이다. 그런데 기구와 원리와 조직의 재점검은 강한 리더십을 요구한다.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명한 비전이 필요하다. 구조와 체계를 이끌어 가는 사람은 반드시 추구하는 목표에 대한 선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지도자와 조직이 처음에 가졌던 확신은 점차 희미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근본 정신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것이다. 빌 하이벨스(Bill Hybels) 목사는 "지도자가 제시한 비전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누수현상

이 나타난다(Vision leaks)"고 지적했다. 이 비전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진단의 기준이고, 변화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통적인 배경으로써 반드시 사용되며,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통합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릭 워렌(Rick Warren) 목사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Purpose-Driven Church)' 철학은 결국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Vision-Driven Church)'라고 할 수 있다. 지도자의 선명한 비전에서 교회의 목적과 정체성도 나온다.

리더십과 선명한 비전이 근본적인 변화의 전략을 위해 중요한 것처럼 내적인 교육과 외적인 교육이 동등하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므로 교육의 과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신중한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너무나 많은 지도자들이 표면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만으로 외적인 상황 변화에 대응해 왔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돌아보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그곳에 도달할 계획을 세우자. 역동적인 지도자들은 이러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정확한 진단이다. 이것은 상황적인 필요 혹은 요구에 대하여 파악하고 그에 대응할 조직의 능력까지 철저하게 파악하는 지금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다. 이 진단은 변화된 조직의 비전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이러한 비전은 외부로부터 현재 느껴지는 스트레스와 압력을 다소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성급한 행동으로 당장의 임시 처방을 제공하기보다는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의 문제로부터 수행 과제를 체계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안내자로서 사용될 것이다.

우리가 올바로 세워가야 할 조직은 바로 우리의 교회이다. 다른 기구나 조직들이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동안, 교회는 어떻게 이 많은 변화에

대처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기들을 극복할 것인가?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할 사역자라면 우리의 문화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진지하게 주목해야만 한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에게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조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해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 자신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양자(우리 자신과 교회)의 통합을 모색하여 그 방법을 발견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의 특징이 변화라고 한다면 분명 교회의 리더십 역시 새로운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변화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은 어떤 것인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리더십은 무엇인가?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이 소그룹 사역에 달려 있다고 믿고 있다. 칼 조지(Carl George)에 의하면, 미래형 교회인 '메타 교회(Meta-Church)'는 소그룹을 통한 교회 활동을 강조하고, 목회자는 평신도 훈련을 위한 사역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 교회는 분명히 변할 것이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다. 과거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새 시대 사역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1세기라는 '새 부대'는 소그룹이라는 '새 술'을 기다리고 있다. 잇사갈 지파 중에 그 시대를 제대로 읽었던 지도자는 200명이나 되었다(대상 12:32). 오늘 우리에게도 21세기를 읽을 줄 아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교회 성장'이라는 몸집 불리기에서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소그룹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 건강한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건강해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엄청난 일'들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의 감격

빌 도나휴는 〈윌로우크릭교회 소그룹이야기〉에서 소그룹의 가치를 열한 가지로 말한다.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다는 점, 그룹원들이 갖고 있는 자원들이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점,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점, 마음이 열려질 수 있다는 점,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 서로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다는 점, 어떤 대화나 나눔이든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 다른 그룹원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점,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소그룹 확장을 위해 빈자리를 채우는 전도가 용이하다는 점, 그룹배가에 대한 보람을 맛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유익들은 대형그룹에서는 얻을 수 없다. 전인적인 변화는 소그룹 안에서 일어난다. 대형그룹에서도 말씀에 도전 받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그러나 삶의 변화는 소그룹 안에 들어갈 때 일어난다. 초대교회가 역동성을 가졌던 이유는 그들이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가정 교회로 흩어져서 교제와 영적 돌봄과 새신자의 정착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소그룹의 가치를 경험하는 일은 신약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구약시대에서도 맛볼 수 있었던 일이다. 구약성경 에스라 8장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아 놓고 율법을 낭독했을 때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느 8:6). 이스라엘 백성들은 칠십여 년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더 큰 은혜를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다. 그런데 그것은 대그룹이 아닌 소그룹에서였다.

느헤미야 8장 7절에 보면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온다. 그들은 광장에 있는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고, 그 뜻을 해석해 줌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였다(느 8:8). 그 결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라고 했다(느 8:9). 에스라는 대중 앞에서 말씀을 낭독했고, 레위인들은 다니면서 말씀을 풀어서 잘 가르쳐준 것이다.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 레위인을 가리켜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레위인들이 소그룹으로 백성들을 가르쳐 주었다는 말이다.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해석해주고 깨닫게 한 것이다(느 8:8). 구약시대에서도 말씀의 감격을 체험한 현장은 역시 소그룹이었다. 기술 정보 사회라는 고도의 기술 사회(High Tech)에서 고도의 감격(High Touch)은 소그룹 안에서 가능하다. 성경은 구약시대에서도 어느 정도의 은혜는 대형그룹에서 은혜를 받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삶을 변혁시킬만한 말씀을 통한 큰 은혜를 체험하는 곳은 소그룹이라고 상기시켜 주고 있다.

소그룹이란 무엇인가?

소그룹의 정의

훌륭한 소그룹 인도자인 로베르타 헤스테네스(Roberta Hestenes)는 소그룹

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소그룹은 정해진 시간에 3명에서 12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위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한자리에 모인 모임이다." 이 정의는 일곱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 한 마디 한 마디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소그룹은 "의도적"인 모임이다. 우리가 말하는 소그룹은 강요된 모임이 아니다. 새로 시작되는 소그룹 모임을 소개받은 사람이 자의로 결정하여 소그룹에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둘째, 소그룹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모이는 모임이다. 의사소통에는 언어적인 것과 언어 외적인 것이 있다. 통계적으로 볼 때, 모든 의사소통의 90%는 언어 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때 그리고 한 자리에 모여 앉을 때 더욱 원만한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다.

셋째, 소그룹은 "3명에서 12명"이 모이는 모임을 가리킨다. 모임의 인원이 12명을 넘게 되면 언외적(言外的) 의사소통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생겨서 모임은 역동성을 잃게 된다. 가능하다면 소그룹 참가자가 7명이 넘을 경우 성경 공부를 진행할 때에는 네 사람씩의 소그룹으로 모임을 더 작은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제 시간 안에 모임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다.

넷째, 소그룹은 "정해진 시간"에 모이는 모임이다. 나중에 그룹이 견고하게 된 다음에는 융통성 있게 모일 수 있지만 모임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 몇 주 동안에는 반드시 매주 모임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 소그룹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이다. 정확하게 명시

된 목적이 없는 소그룹을 시작하게 되면 그 모임은 흔들리게 된다. 소그룹의 목적 설정을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을 확인해야 한다. 첫째, 우리는 왜 여기에 모였는가? 둘째, 우리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여섯째, 소그룹은 "발견"을 위한 모임이다. 소그룹에 참여하는 자들이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그 무엇인가를 얻도록 해야 한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구도자들이나 초신자들이 소그룹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어야 한다.

일곱째, 소그룹은 "성장"을 위한 모임이다. 소그룹 모임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자리이다.

위와 같이 학술적으로 정의한 소그룹의 개념은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실제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소그룹에 대한 정의가 있다. 소그룹이란 한 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아는 곳"이다. 즉, 나눔을 통해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소그룹을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쉽게 정의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아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말한다면 소그룹은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그 한 사람이 있는 곳"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소그룹은 루터의 말대로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소그룹 역시 "믿음의 공동체요, 소망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그룹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소그룹 운동의 모체가 되었던 세렌디피티 하우스(Serendipity House)의 설립자 겸 총재였던 라이먼 콜먼(Lyman Coleman) 박사가 한번은 달라스에 있는 한 교회 수양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다. 거기에서 콜만 박사가 리더들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다. 그것은 "만일 당신에게 개인적인 위기 상

황이 발생했을 때 달려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네 명의 친구가 필요하다면 당신은 지금 누구누구에게 연락하겠는가?" 라는 것이었다.

어떤 여자 성도는 대학시절 같이 활동했던 동아리 자매들에게 먼저 연락하겠다고 대답했다. 남자 성도 두 사람은 먼저 군대 친구들에게 연락하겠다고 대답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신학교 동기들에게 먼저 연락하겠다고 대답했다. 어떤 사람들은 연락할 곳이 없다는 대답을 하기도 했다.

두 시간여 동안 이것을 나누게 했고 마무리 시간에 콜만 박사는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전을 주었다. "여기 있는 이 그룹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는가?" 그 때 모든 사람이 다 유구무언으로 침묵만 지켰다고 한다.

건강한 소그룹은 사무적인 일을 실행하는 곳이 아니고, 교육적인 일만 수행하는 곳도 아니다. 한 영혼을 끝까지 돌봐주는 곳이다. 대형그룹 안에서는 그룹원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소형그룹 안에서는 그룹원들의 어려움을 쉽게 파악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줄 수가 있다. 소그룹은 작은 형태의 교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진정한 영혼 돌봄의 사역이 수행되어야 한다. 소그룹은 그곳에 속한 멤버들에게 언제나 마음이 가는 곳이어야 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래서 소그룹 멤버들로 하여금 소그룹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할 것이다. 꼭 물질적인 해결이 아닐지라도 소그룹에서 어려움을 겪는 멤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해주는 것만 해도 그에게 소그룹은 늘 고마운 곳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콜만 박사가 질문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위기 상황이 닥쳐왔을 때-그것이 영적인 위기이든 어떤 형태의 위기이든지-우리의 소그룹을 찾는 사

람들이 있는가? 우리의 소그룹은 단지 평화와 안정 시대에만 오픈하는 곳인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생각하고 찾는 곳인가?

소그룹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성경 공부만 하고 추상적인 교리이야기만 하는 모임이라고 할 때 그것은 유명무실한 모임이 될 수밖에 없다. 소그룹은 구원의 확신 문제가 되든지, 영적 평안을 구하는 문제이든지, 가정과 직장의 문제가 되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놓고 같이 고민하고 기도해줄 수 있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 나의 소그룹에 나를 도와줄 만한 한 사람이 없다면 그 소그룹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소그룹이 적어도 나를 도와줄 그 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식되어야 건강한 소그룹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소그룹은 교회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갖는가?

교회는 앞에서 정의된 개념을 가진 소그룹들이 건강하게 움직여야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소그룹들이 있어야 한다. 전도를 위한 소그룹, 새가족을 위한 소그룹, 성경 공부 소그룹, 봉사를 위한 소그룹, 지원을 위한 소그룹, 지역 사회 봉사를 위한 소그룹, 목회를 위한 소그룹 등 특성화된 소그룹을 교회 안에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윌로우크릭교회는 다섯 가지 범주의 소그룹 모임이 있다. 성경

공부 소그룹, 공동체 소그룹, 봉사 소그룹, 구도자 소그룹, 후원 및 지원을 위한 소그룹 등이 그것이다. 성경 공부 소그룹 안에는 다양한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이 있다. 기초 성경 공부 소그룹, 기초 기독교 교리 소그룹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성경 공부를 위한 다양한 소그룹 모임이 있다. 공동체 소그룹 안에도, 봉사 소그룹 안에도 다양한 소그룹 모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은 개인적인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원하는 적당한 소그룹을 선택하여 참여하도록 하였다.

교회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얼마든지 다양한 소그룹을 세울 수가 있다. 한국 교회 상황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부류의 소그룹을 교회에 둘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구역별 소그룹이다. 이것은 현행 구역 제도를 소그룹 체제로 전환하면 된다. 둘째는 사역별 소그룹(Volunteers Teams) 모임을 만들어줄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사 소그룹, 성가대 소그룹, 식당 봉사 소그룹, 교회 관리 소그룹, 차량 안내 소그룹, 병원 선교 소그룹, 의료 선교 소그룹, 외국인 선교 소그룹, 컴퓨터 선교 소그룹, 고넬료(군인) 선교 소그룹, 경찰 선교 소그룹, 놀이방 교사 소그룹, 장애인 선교 소그룹, 노인 선교 소그룹, 마태(재정부) 소그룹, 새가정 소그룹 등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는 초신자 소그룹(Seeker Small Groups)을 둘 수 있다. 여기에는 기초 기독교 교리 소그룹, 소그룹하우스 101 소그룹, 신구약 성경 연구반 등등이다. 넷째는 제자 훈련 소그룹(Bible Study Small Groups/ Disciple Making Groups), 각급 제자 훈련 그룹 등이다. 다섯째는 후원 및 지원(Support Groups) 소그룹이다. 교회의 각종 행사 지원 및 후원을 위해서 조직되는 소그룹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성경적인 소그룹이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기독교 신앙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적용을 개인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둘째는 서로 관심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해준다. 셋째는 상호 협력적인

분위기에서 서로 알고 지낼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준다. 넷째, 갈등이나 변화 그리고 결정사항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준다. 다섯째, 영적인 면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준다. 여섯째, 평신도 리더십을 개발해 주고, 영적 은사들을 발견하고 계발시켜 준다. 일곱째, 경배와 찬양의 자리를 마련해 준다.

소그룹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사도행전 2:42, 46-47)

생명이 있으면 성장한다. 앞으로 교회 사역의 방향은 성장 위주가 아닌 건강한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소그룹 사역의 목표는 건강한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미래 사회는 다양한 가치들이 존중되고, 정보 매체들을 통하여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되며 개개인의 개성과 인격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이다. 양적 성장보다는 삶의 질이 중요시되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도 개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인격적인 리더십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의 본래적인 원형을 소그룹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소그룹은 구약시대부터 찾아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열두 사람이라는 소그룹의 제자들을 모아 가르치셨고, 초대교회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소그룹 중심의 나눔 공동체였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켜 온 것이다.

구약: 소그룹 언약의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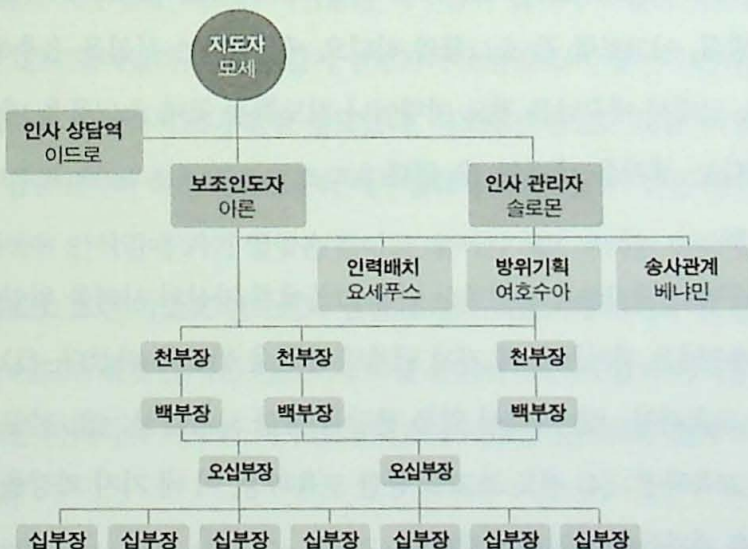
하나님께서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어 주시고 끊임없이 그 언약을 강조하시는 모습이 구약성경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개인 혹은 백성들 사이에 확실한 약속과 지위를 나타내 주었다. 이것은 소그룹 모임을 시작할 때 작성하는 언약서의 성경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우리는 모세의 리더십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소그룹 리더십 모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표 1과 2를 보라.

모세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인도하던 때는 형편없는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의 장인 이드로의 권유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 즉 천부장-백부장-오십부장-십부장과 같은 바람직한 리더십의 모델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소그룹 리더십의 구약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

모세의 리더십 변화

표1 모세의 모델: 빈곤한 지도력 / 높은 실패율

표2 이드로 모델: 강한 지도력 / 낮은 실패율

예수님과 열두 제자: 제자 훈련 모델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모으셨다. 마가복음 3:13~14을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라고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은 열두 명을 택하여 제자로 삼으셨다. 예수님은 열두 명의 제자를 더 작은 세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훈련하신 것으로 짐작된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열두 제자 명단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누가 기록했든지 항상 세 개의 작은 그룹을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첫 번째 소그룹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고, 두 번째 소그룹은 '빌립, 바돌로매, 도마, 마태' 이며, 세 번째 소그룹은 '야고보, 다대오, 시몬, 가룟 유다' 이다. 중간에 순서가 바뀔지라도 항상 세 소그룹의 머리는 변함없이 '베드로, 빌립, 야고보' 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열두 명의 제자도 네 명씩 세 개의 소그룹을 나누시고 베드로, 빌립, 야고보를 각 소그룹의 리더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 여행이나 기도하는 곳에 소그룹을 따로 대동하셨다는 생각을 배제할 수 없다(참고: 마 10:1~4; 막 3:16~18; 눅 6:12~14; 행 1:12~13).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하신 다음 그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임해 주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네 가지 단계의 훈련을 받도록 하셨다. (1) 실전을 통한 교육과정; (2) 리더십 업무 분담을 통한 교육과정; (3) 전도 파송을 통한 교육과정; (4) 전도 보고를 통한 교육과정. 이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모여진 사도들에게 임무를 맡기셨다. 마태복음

28:18~20에 보면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모인 사도들에게 전략을 주셨다. 사도행전 1:4, 8을 보면,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다.

다락방: 협력 소그룹 모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각기 제 길로 달아났다. 그들은 깊이 실망하여 도망갔으며, 심지어 전에 그분을 알았다는 사실까지도 부인할 정도였다. 사도행전 1:12~14을 보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및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1~4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

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 하니라"고 증거하고 있다. 그들은 다락방 체험을 통해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성령께서는 사도들이라고 하는 소그룹 구성원들을 치유하셨고 그들은 자기들이 고침받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했다. 사도들은 이제 서로 돕기 위해 하나의 그룹이 된 것이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치유를 경험한 그룹은 오늘날 협력과 회복을 위한 소그룹의 모델이 된다.

초대교회: 융화 그룹 모델

오순절에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자신이 회복된 이야기를 가지고 제자들은 다락방을 나섰다. 삼천 명의 사람들이 성전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 상처를 치유받은 제자들의 나눔에 반응하여 사람들이 제자들의 교제권으로 들어왔다. 사도행전 2:42~47을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집에서 모임을 시작했다. 사도행전 20:20은 초대교회가 이 모델을 표준적인 운영 모델로 발전시켰음을 보여준다. 성전 뜰과 각 가정을 연

결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 불신자들을 인도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성장을 원하는 이들을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에 참여하도록 하는 '메타교회(meta church)' 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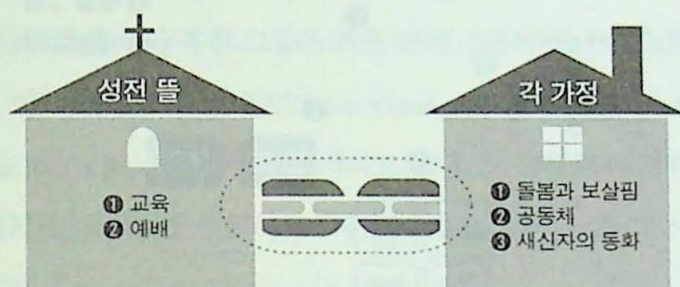



그림2 융화그룹의 모델인 초대교회

소그룹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소그룹의 다섯 가지 유형과 성경적 기초

교회 내의 소그룹에는 기초 언약 그룹, 협력과 회복 그룹, 셀 그룹, 통합 그룹, 세렌디피티 그룹이라는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 교회 사정에 따라서 다섯 가지의 모든 그룹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각 그룹의 유형과 특징을 이해하고 각자 어떤 그룹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비전과 소그룹 사역에 적합한지 생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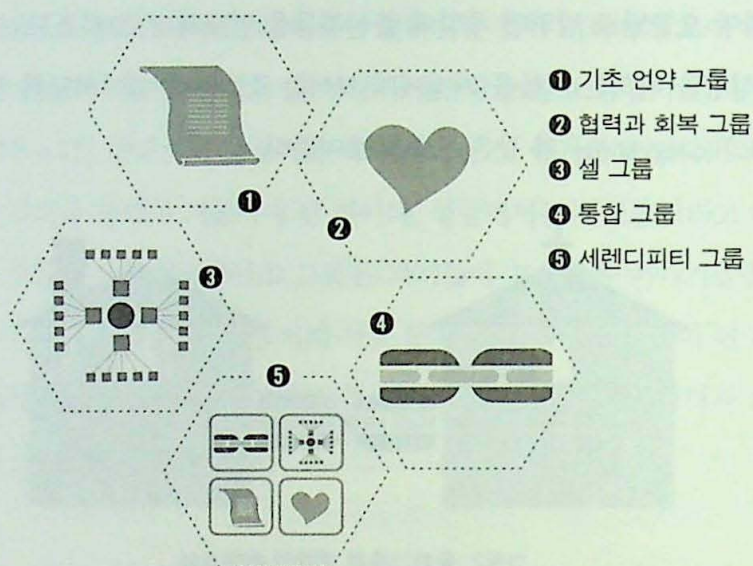



그림3 소그룹의 유형

기초 언약 그룹

현대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대가족과 안정된 평생직장, 믿을 만한 이웃을 잃어버림으로써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는 관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언약 그룹은 현대인들이 원하는 바로 그러한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부동산 임대계약서와 같이 소그룹을 시작할 때 미리 약속을 체결하고 그 언약에 근거하여 모임을 진행한다. 이 약속에서 그룹은 그들의 목적과 세부 목표, 몇 주 동안 만날 것인가, 언제 어디서 만날 것인가, 그리고 지켜야 할 규칙들에 대해서 자세히 결정하게 된다. 이 모델의 성경적인 기초는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서 발견된다(창 17:1~2, 7).

이 모델은 미국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있는 모델이다. 이 그

룹은 서로가 약속한 언약에 근거하여 모임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룹원들이 도중하차할 가능성이 적고, 자원하여 시작되는 모임이기 때문에 역동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제자 훈련 소그룹은 엄격하게 말하면 인도자 훈련을 위한 특별소그룹의 형태이다. 따라서 제자 훈련 그룹은 기초 언약 그룹의 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그룹은 로버트 콜먼(Robert Coleman)의 저서 「선교의 마스터플랜」(Master Plan of Evangelism)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 그룹의 성경적 기초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제 관계'와 '책임'으로 그 사역을 확

표3 언약의 내용들

1 **우리 모임의** 목적은 .... 입니다.

2 **우리의** 세부 목표는 .... 입니다.

3 **우리는** .... 주에 .... 번씩 만날 것이며,
그 후에는 지속하기 전에 우리의 모임을 평가할 것입니다.

4 **우리는** .... 시에 만나서 .... 시까지 모일 것이고,
정시에 시작해서 제 시간에 끝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5 **우리는** .... 에서 만날 것입니다.
또는 각 가정에서 돌아가며 만날 것입니다.

6 **우리는** 우리 모임을 위해 다음의 기본 규칙들에 동의할 것입니다.
- 우선 순위 : 우리가 모임을 계속하는 동안, 우리의 모임에 우선 순위를 둘 것입니다.
- 참여 : 모임을 위한 책임을 공유하겠습니다.
- 신뢰 : 모임에서 이야기된 비밀을 신실하게 지키겠습니다.
- 책임 : 우리는 어떠한 사랑의 방법으로든 서로에게 헌신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각 언약 그룹은 소그룹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 규칙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러한 규칙의 한 예이다.

장하신 모습이다. 선교에 대한 주님의 지상 명령이 이 모델의 성경적인 원리이다: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이 모델에서 지도자는 하나의 멘토로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곁으로 초대하여 그들이 또 다른 그룹을 재탄생시켜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나눔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델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훈련시켜서 그들이 제자 삼는 일을 하도록 파송하셨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권하기를,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2)"고 말했다. 제자 훈련 그룹은 헌신된 자들로 대부분 구성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없는 것이 단점이지만, 그리스도의 강한 제자를 만들어내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제자 훈련 그룹의 전형적인 모델은 서울 강남의 사랑의교회다. 사랑의교회는 1978년 창립한 이래 제자 훈련 사역을 통해서 크게 성장한 교회로서 현재 천 개 이상의 소그룹 모임을 매주 갖고 있다.

협력과 회복 그룹

다른 소그룹 모델들은 교회 내의 모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만들어졌다. 그러나 협력과 회복 그룹은 정반대의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 모델은 교

회 내의 소극적인 사람들과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뒤에 나오는 '언약 그룹'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주일 설교도 듣지 않았거나 대부분 듣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큐티 모임'에 참여해서 성경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아마 '구역 모임'에서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주는 짧은 기간 동안의 협력 그룹이나 회복 그룹이 있다면 이러한 모임에는 참여하려고 할 것이다.

협력과 회복 그룹의 성경적 기초는 주님의 사도들이 다락방에서 겪었던 사건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뿔뿔이 흩어졌었고, 주님을 거부하기도 했던 자들이다. 그러나 7주 동안 한 방에서 다시 모였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깨어진 삶을 치유받았다.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은 그들을 찾아 주셨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말씀을 주셨다(요 20:19~20).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제자 도마에게도 '평강'을 주셔서 병든 마음들을 치유해 주셨다(요 20:24~30). 그리고 오순절 날에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행 1:12~14).

이것은 협력과 회복 그룹의 모델이다. 예를 들면 알코올이나 도박 중독자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 회복을 위한 소그룹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또 이혼한 사람들이나 이혼 경력이 있는 자들을 위한 소그룹도 가능하다. 또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룹을 출발시킬 수 있다. 미국 교회는 이와 같은 협력과 회복 그룹들을 많이 세우고 있다. 한국 교회에도 중독자나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믿음 생활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위한 소그룹 모임을

많이 만들어가야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다. 협력과 회복 그룹은 단기간 안에 교회 밖에서 세상적인 것에 인 박힌 구도자들을 교회에 연결해줄 수 있고,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아웃사이더들을 교회의 제도권 안으로 인도해줄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이들을 인도할 사람은 전문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메타(셀) 그룹

이 그룹은 풀러신학교 선교연구소의 칼 조지(Carl George)에 의해서 개발된 메타 모델과 연관이 있다. 이것은 다음에 나올 통합 그룹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이 그룹에서는 목사님이 주일에 설교한 성경 본문을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다. 대신에 각 그룹에서 보조 리더를 훈련시켜 사역을 확장하기 위한 설립 체계로써 그 초점을 보살핌에 둔다. 이 모임에서는 '빈자리'를 위하여 기도를 요청하고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인다. 그룹이 10명 내지 12명으로 성장하면 보조 리더가 한두 사람을 데리고 새로운 셀을 구성한다. 주일 오전 예배에서도 셀들은 마치 한 가족처럼 한자리에 모여 앉는다.

이 모델의 성경적 기초는 모세와 이드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다 관리하기 쉬운 단위로 나누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받는 출애굽기 18장의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출 18:13~26). 이 모델은 교인 전체를 셀 단위로 임의 재편성하여 교인 전체를 보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강점이 있지만 따라주지 않을 때는 지도체제가 관료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셀 그룹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교회는 침례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교회는 로렌스 콩 목사가 담임하는 싱가폴의 훼이스침례교회(The

Faith Community Baptist Church)일 것이다. 미주 한인 교회 가운데 달라스의 서울침례교회(최영기 목사 담임)가 이 모델에 속한다. 달라스 서울침례교회는 구역 조직을 가정 교회 조직으로 재편하고 '목장' 마다 세워진 '목자' 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하여 건강한 '교회 안의 교회(Church in church)' 를 만들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통합 그룹

이 그룹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보여주는 방법과 유사하다. 유교문화권의 한국 생활에서 조용기 목사는 소그룹을 강단의 가르침과 직결시키기로 결심하였다. 따라서 이 그룹의 성격은 가르침의 방향을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게 된다. 통합 그룹이란 말은 곧 강단과 구역/가정이 통합되어 일원화된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 이 모델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그 주간에 각 구역에 가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포틀랜드에 있는 새소망교회(New Hope Community Church/ Dale Galloway 목사 담임)가 이 모델을 가지고 있다. 겔러웨이 목사는 일찍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하여 구역 조직에 대해서 연구하였고 이것을 자기 교회에 응용하여 도입하였다. 오늘날 새소망교회에는 600개 이상의 소그룹이 활발하게 모이고 있다.

이 그룹의 성경적인 기초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델이다(행2:42~47; 20:20). 초대교회는 두 가지 장소에서 모였다. 한 군데는 성전의 뜰이었고, 다른 곳은 가정이었다. 이 모델에서 교회는 성전의 뜰과 같아서, 목회자로부터 가르침이 주어진다. 이 가르침을 각 가정에 흩어져서 견고히 세우게

된다. 따라서 목회자나 지도자의 비전과 철학이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나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강한 고리일수록 더 쉽게 깨어질 수 있다는 말대로 그룹의 결속력이 대단한 만큼 거기에 부응하지 못할 때는 쉽게 그룹이 와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지도자의 리더십에 공백이 왔을 때는 모든 그룹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세렌디피티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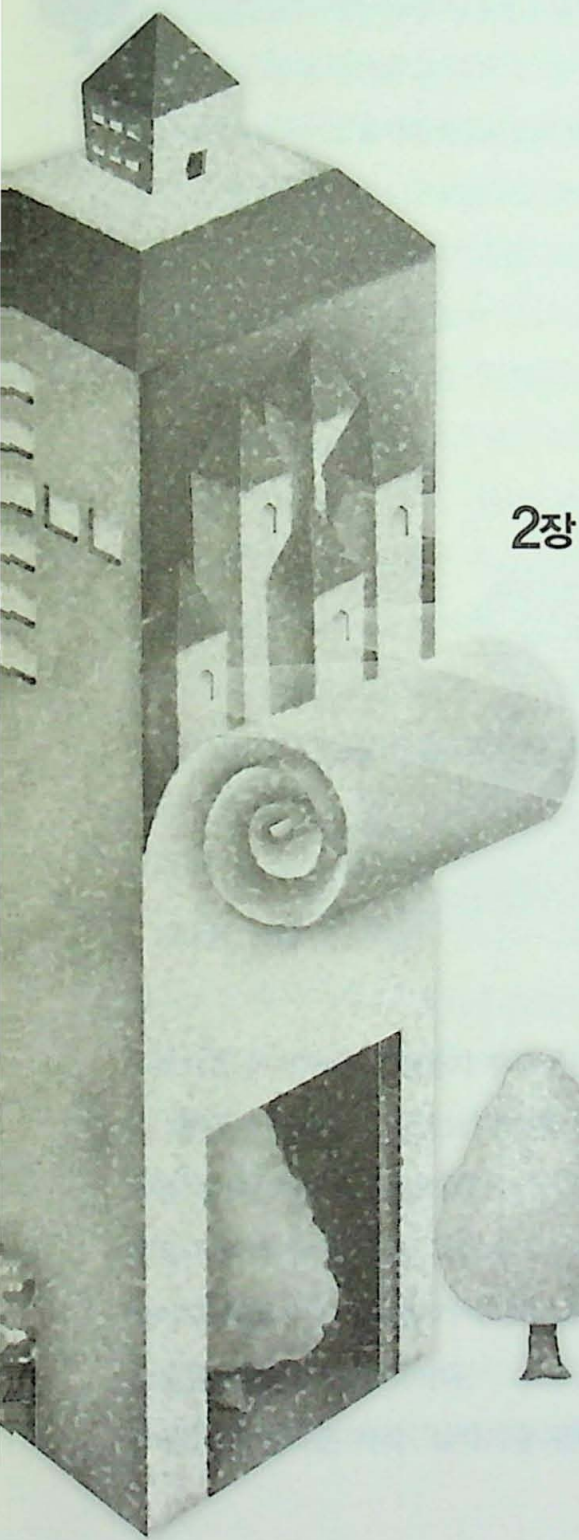
세렌디피티 그룹의 개념은 50년 동안 소그룹 리더십을 연구한 라이먼 콜먼의 작업에서 제시되었다. 세렌디피티 그룹은 기초 언약 그룹이나 통합 그룹과 같이 30%의 사람들에게 맞추어진다. 이 그룹은 또한 10%의 핵심적인 사람들의 제자 훈련에 대한 필요에도 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세렌티피티 그룹의 "중심"은 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처 입은 사람들에서부터 시작된다. 세렌디피티 그룹은 그들에게 삶의 여정 어느 곳에서든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탑승구를 마련하고 교회 안에서 깊이 있는 모임이나 훈련받을 수 있는 모임으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 개념을 제공한다.세렌디피티 소그룹은 기초 언약 그룹과 협력과 회복 그룹, 셀 그룹, 통합 그룹의 특징들을 모두 빌리고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의도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들어올 곳을 발견하고 변화될 수 있는 소그룹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다. 환승역 개념의 세렌디피티 그룹은 모든 사람들이 미래의 소그룹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차근히 돕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렌디피티 그룹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비그리스도인(구도자)과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리스도인(회심자), 교회에 나오는 비그리스도인(구경꾼)과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핵심 신자)으로 분류되는 네 종류의 모든 사람들을 접목시키고, 네 종류의 모든 그룹들을 하나의 상호 연결된 시스템으로 접목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까지 교회 내의 소그룹을 위한 '공식적인 프로그램'으로 그룹들의 다섯 가지 유형들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함으로써 도움을 얻었다.

한 가지를 선택한 다음에 중심 프로그램 외에 선택 사항으로써 나머지 네 가지 유형을 제공할 수 있다. 나머지 선택 사항들이 중심 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두 가지 모델(기초 언약 그룹, 협력과 회복 그룹)은 전교인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 특별한 대상에 초점을 두어 특수화된 모델이다.

표4 다섯 가지 그룹 모델 유형의 비교

유형	목표 대상	그룹의 목적	성경적 기초	강도
기초 언약 제자 훈련	헌신된 사람들	책임감과 지도자로서의 리더쉽	예수님과 열두 제자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신앙의 재생산 단계
협력과 회복	소극적인 교인들과 아웃사이더	사람들이 필요를 느끼는 부분에서 도움을 준다.	다락방의 상처받은 사람들	단기간의 모임을 통해 교회의 울타리 안으로 이끌어준다.
셀	전교인 대상	보살핌과 네트워킹을 통한 교회의 확장	모세와 이드로 출애굽기18장	모든 사람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의 책임을 나누어준다.
통합	출석교인	주일 강단과 가정 모임을 연결시킨다.	성전뜰과 가정 사도행전 2:42~47	성경을 적용하는 강력한 가르침
세렌디피티	모든 신자	오랫동안 지속되는 관계	구약의 언약들	소그룹 생명주기의 3단계를 따르려면 균형을 세워야 한다.

2장 | 건강한 소그룹, 이렇게 운영하라

소그룹 TALK 전략을 구사하라

TALK 전략

소그룹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의 전략이 있어야 한다. 많은 전략들을 고안하고 정리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가 되는 4가지 전략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아마도 교회 내에서 소그룹 관리자들은 목회자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는데, 소그룹 관리자들이 적어도 이 4가지 전략을 기억하며 소그룹을 운용해 나간다면 역동적인 소그룹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네 가지 전략은 각각 '삼각기둥 전략(Triangle), 빈자리 전략(Amplify), 생명

주기 전략(Life Cycle), 코이노니아 전략(Koinonia)'이며 영문 이니셜을 모아서 'TALK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네 가지 전략들은 긴밀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전략들을 보완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각 전략들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

T (Triangle)전략 : 삼각기둥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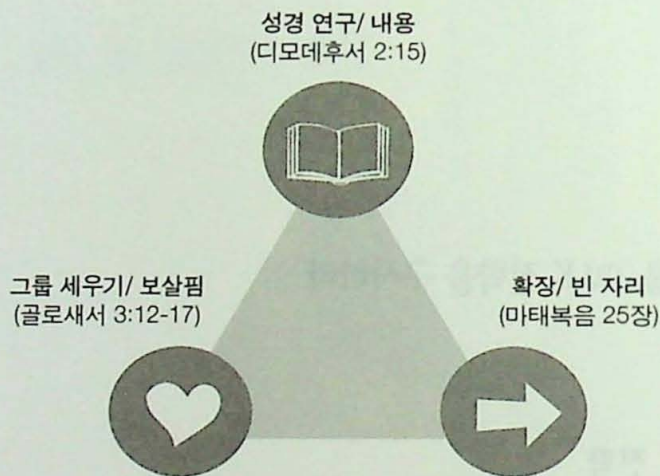



그림4 삼각기둥 전략

모든 전략의 기초가 되는 이 전략은 건강한 소그룹이 본질적으로 가져야 할 삼대 요소들을 강조하는 것이다. 건강한 소그룹은 성경 연구와 그룹 세우기, 그리고 모임의 확장을 통한 선교와 전도의 요소를 내부에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다.

'성경 연구'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는 건강한 소그룹의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것은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딤후 2:15)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그룹 세우기' 혹은 '보살핌, 교제' 라고 일컬어지는 두 번째 요소는 하나의 그룹을 이루어가는 결속 과정으로 시간과 노력과 헌신이 요구되는 요소다. 그리고 이 요소는 다음과 같은 말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뉘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골 3:12~17)

세 번째 요소인 '확장'의 요소는 일명 '빈자리' 요소라고 일컬을 수도 있는데 소그룹 내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섬김 가운데 항상 그 모임이 확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골 4:3)는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

소그룹 활동이 처음 소개될 때 사람들은 소그룹 모임은 오로지 성경 공부와 기도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은 소그룹 자체가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만 있는 상당히 지루한 모임이라는 인식을

하게끔 만들었다. 이에 더하여 서로를 돌아보거나 이 모임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향해서 섬겨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많이 상실하게 만들었다. 곧 소그룹 구성원들의 머리는 냉철하게 했고, 성경 지식은 풍성하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공동체성을 상실하게 만든 것이다.

또 교회 안에서 소그룹으로 모인다는 것은 바로 이웃들을 전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하기 위함이라는 의식이 팽배했던 시기가 있었다. 실례로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일'과 같은 전도 프로그램이 실시될 경우 소그룹으로 모이는 각 교구의 구역들은 전도의 전위부대화 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긴다. D-Day를 앞두고 교회 현관의 게시판에는 각 교구 산하 구역별로 전도한 분량대로 별 모양의 스티커가 차례대로 붙는 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매주일 의기양양한 구역(소그룹)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머쓱한 표정으로 예배드리러 나오는 구역 식구들도 다반사로 보게 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이 전도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모임의 확장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소그룹의 건강성을 해칠 경우도 사실상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외에도 일부 소그룹에서는 다른 요소들은 젖혀 두고 그룹 자체를 하나의 공동체로서 견고히 세워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구성원들 서로간의 협력과 교제에만 몰두하게 되는 경우도 생겨났다. 특별히 80년대와 90년대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이 활발했던 시절, 일명 '그룹 바이블 스터디'(GBS)라는 이름으로 청년 대학부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던 소그룹의 형태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청년부나 대학부 자체 집회 후 이루어지는 GBS 시간은 종종 그들만의 친목과 교제의 시간으로 전락하는 경우

가 많이 있었다. 특별히 리더 훈련 과정이 박약하고 리더로 세울만한 인력층이 엷은 교회의 청년 대학부일수록 이런 경향은 더 심하게 나타난 것이 사실이다. 모든 힘을 내부에 탕진해 버리는 경우 그 이후에 나타날 결과는 강 건너 불 보듯이 뻔한 상황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각 교회에서 행해지던 지금까지의 소그룹 운동들은 많은 경우 다른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들은 젖혀 두고 오로지 한 가지 요소에만 몰두해서 소그룹을 이끌어 가려고 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고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한 가지에만 열정을 소모했던 많은 교회들이 기진맥진하고 마침내 소그룹 사역을 포기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소그룹 사역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이러한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실제로 성경 연구는 건강한 소그룹의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성경 연구 한 가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것은 다른 두 가지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할 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그룹은 세 가지 요소들을 모두 활용할 때 가장 뛰어난 사역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룹 세우기와 보살핌 역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며 서로를 보살피고 돌보아 주는 과정으로써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다. 여기에는 시간과 노력과 헌신을 요구한다. 그러나 교제만을 강조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그 모임은 궁극적인 결속력을 가질 수 없다. 즉, 아무 것도 없이 '교제' 에만 몰두하면(사실 요즘의 많은 소그룹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소그룹은 사람들끼리만 서로 의존하게 되는 모임으로 빗나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의 친목단체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그룹이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내부 구성원들끼리의 상호 의존 모임으로 전락해버린 나머지

'변화산 신드롬'(*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에 사로잡힌 것을 막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열린 사역을 전개하는 '모임의 확장'이다. 이것은 건강한 소그룹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성경적인 소그룹은 모임 내에 속한 사람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소그룹을 오로지 확장 일변도로만 이끌어가는 것도 역시 매우 위험한 일이다. 엘리자베스 오코너(Elizabeth O'Connor)가 "내부로의 여행이 없는 외부로의 여행은 모든 것을 탕진해 버리는 지름길이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것을 지적한 것이다. 불행히도 오늘날 많은 '선교 모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그러므로 건강한 소그룹을 운용하기 위해서 소그룹의 필수적인 삼대 요소를 균형 있게 표현한 "삼각기둥의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네비게이토의 설립자인 도슨 트로트먼(Dawson Trotman)은 "어떤 쇠사슬이든지 가장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고리에 가장 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는데, 세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만을 강조할 때 그것을 통해 소그룹이 와해될 수 있음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 (Amplify) 전략: 빈자리 전략

건강한 소그룹을 운용하기 위한 두 번째 전략은 아주 간단한 준비를 통해서 실행될 수 있다. 모임 장소에 빈자리 하나를 놓아두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소그룹 구성원들에게 우리가 함께하는 모임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상징이다. 자신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사람, 상처를 받았거나 소속될 곳이 필요한 사람, 영적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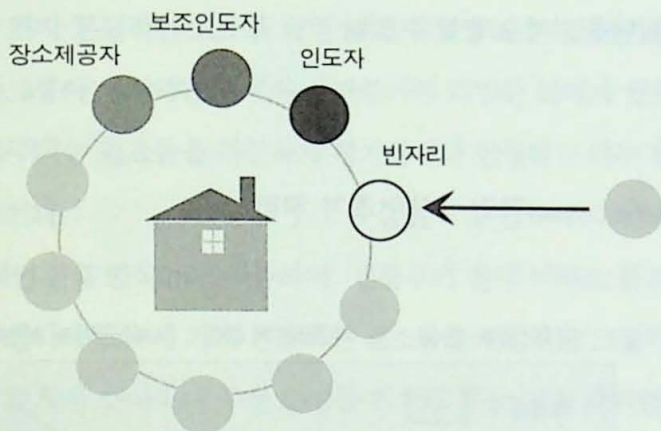
제에 갈급한 사람,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 등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모임이 열려 있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빈자리인 것이다.

"빈 자리는 선교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림5 빈자리 전략

따라서 빈자리는 소그룹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삼대 요소 가운데 확장(선교와 전도)의 요소를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대체로 견고하게 결속된 그룹일수록 타인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경직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 소그룹 사역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소그룹을 탄생시키기 위한 생명적 모판으로써 소그룹 사역을 진행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소그룹이 열린 소그룹이어야 함을 주지시키는 것이다. 또한 빈자리는 모든 소그룹 구성원들에게 그 자리에 와서 앉아야 할 사람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책임과 그 사람을 인도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실물 도구가 된다. 그러므로 열린 소그룹으로서 항상 빈자리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동기를 끊임없이 부여하는 것이 빈자리인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빈자리 전략은 소그룹이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비어 있는 섬김과 봉사의 빈자리가 어디인지를 소그룹 구성원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서 섬김과 봉사를 향한 결단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L (Life Cycle)전략 : 생명주기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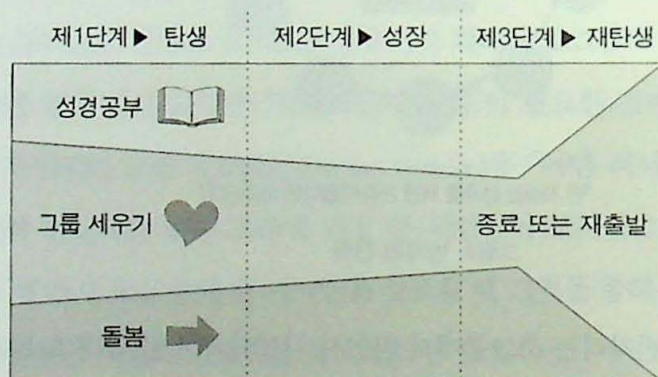



그림 6 생명주기 전략

삼각기둥의 전략에서 건강한 소그룹에는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세 번째 전략에서는 '최소의 연료를 가지고 최고의 연비를 낼 수 있도록' 어떻게 세 가지 요소들을 적절하게 안배할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다.

소그룹 인도자들은 지금까지 소그룹을 운용하면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중 한 가지의 방식을 선택하면서 소그룹을 운영해 왔을 것이다.

첫째는 정적인 운용 방식이다. 이것은 소그룹이 만약 90분 동안의 모임을

가진다면 30분 간은 성경 연구, 30분 간은 공동체 세우기와 교제, 30분 간은 모임의 확장을 위한 결단의 시간으로 가지는 것이다. 세 부분이 삼단 케이크처럼 똑같이 30분씩 삼등분 되도록 진행하는 것이 이 정적인 운용 방식의 특징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은 과거에 사용하던 구식 시스템이다. 소그룹의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를 균형 있게 유지할 수는 있지만 융통성이 없어서 소그룹이 성장하는 단계와 생명주기의 다양한 단계가 있으므로 그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들을 적절하게 평가하거나 반영하는 데는 실패하기 쉬운 방식이다.

둘째는 동적인 운용 방식이다. 이름하여 '생명주기 전략'이라고 불리는 동적인 활동은 삼각기둥의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들을 점검하고 그룹의 생명주기 전반에 걸쳐서 그때마다 우선 순위를 확인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한 그룹의 단기적인 활동 단계에 있어서 삼각기둥의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성경 연구, 그룹 세우기, 확장) 가운데 한 가지에 나머지 두 가지보다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다. 이러한 강조는 다른 측면들을 결코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소그룹이 가지는 생명주기의 특별한 단계에서 필요한 요소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것일 뿐이다. 예를 들어, 만일 하나의 소그룹이 일년 동안 모임을 갖는다면 여름방학 한 달(7월 혹은 8월)과 겨울방학 두 달(12월과 1월)을 제외하고 9개월을 각각 3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소그룹이 처음 출범한 탄생 시기에는 그룹 세우기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그것이 성경 연구와 확장의 요소보다 우선권을 갖는 것이다. 소그룹이 구성되고 구성원들이 처음으로 얼굴을 대하게 된 시기에는 사실상 성경 연구를 깊이 있게 하거나, 전도해야 할 필요성과 결단을 촉구하는 것은 상당히 실천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운 시기다. 이 때 필요한 것은 모든 참석자들이 그 모임 안에서 따뜻함과 평안함을 느끼고 계속해서 소그룹에 참석할

것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 우선인 것이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하나의 그룹으로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교제하는 것에 시간과 모든 활동을 집중하고 그 다음에 보다 깊이 있는 성경 연구와 모임의 확장을 꾀하도록 하는 것이다. 탄생의 시기가 지나가면 그룹 세우기를 위한 교제의 요소를 한 발짝 뒤로 돌리고 구성원들이 소그룹 안에서 보다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연구와 확장(선교와 전도)에 대한 깊이 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분위기와 시간으로 이끌면 된다. 소그룹의 생명주기에 맞추어 마지막 단계까지 소그룹이 가져야 할 삼대 요소를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시간을 배정하고 교과과정이나 교재 활용을 한다면 그 소그룹은 훨씬 역동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결국 정확히 이해하면 생명주기 전략은 '영적 성장을 위한 모임' 의 목적이 소그룹의 형태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세 가지 요소들의 우선 순위는 그 그룹이 어떤 라이프 사이클(생명주기)의 단계에 와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K (Koinonia) 전략 : 코이노니아 전략

첫 번째 전략(삼각기둥)에서 소그룹의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들을 설명했다. 세 번째 전략(생명주기)에서는 본질적인 요소들이 그룹의 발전 단계에 따라 우선 순위를 가질 수 있었다. 이제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져야 한다. "그룹 세우기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아무리 잘 짜여진 커리큘럼이 있고, 좋은 소그룹 환경과 훌륭한 리더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소그룹 구성원들의 결속이 약해서 소그룹이 지속적으로 모일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건강한 소그룹의 운용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소그룹이 처음 출발한 시기인 탄생 시기는 소그룹의 지속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구성원들의 견고한 결속에 실패한다면 소그룹의 생명은 끝나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전략인 코이노니아 전략의 목표는
사람들이 각 베이스를 돌아 홈 베이스에 도착하도록 돕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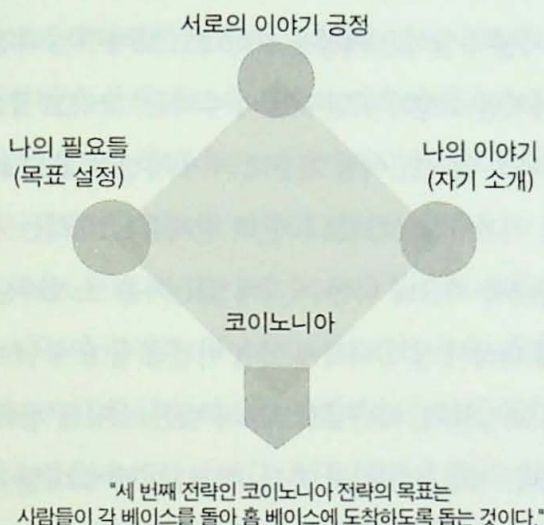



그림 7 야구장 다이아몬드

따라서 소그룹이 탄생 시기에 견고해지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을 잘 보여주는 구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야구장의 다이아몬드이다. 야구장 그림에 나타나는 각 베이스들은(1루, 2루, 3루, 홈 베이스) 소그룹의 구성원들이 결속되고 견고하게 완성되기 위해서 거쳐야 할 각 과정을 나타낸다. 이 아이디어는 모든 소그룹 구성원들이 홈 베이스(궁극적인 코이노니아)를 향하는 과정에 각 베이스에 머무르며 내야를 한 바퀴 도는 야구 선수처럼 각 과정을 돌아서 목표 지점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먼저 1루 베이스는 자기 소개의 과정이다. 소그룹에서 소그룹 자체를 건강하고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성원 각자가 다른 참가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선물로 내어놓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1루 베이스는 구성원 각자가 자신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과정으로써 '자기 소개' 라고 부를 수 있다. 즉 부담없이 '서로를 알기 위한' 시간인 것이다. 이 기회에 모든 구성원들은 거추장스러운 외투를 벗어 걸어 놓고, 무겁게 짊어지고 다니던 짐 보따리를 풀어 놓고, 자신이 살아온 여정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과정을 가지는 것이다. 자신의 과거인 고향과 어린 시절의 추억들,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여정 가운데 과거 자신의 삶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 그리고 자신의 현재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영적인 순례의 과정에서 지금의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장차 미래에 어떤 비전을 품고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에 대한 꿈과 소망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자연스러운 소개의 과정을 밟는 동안 모든 구성원들은 스스로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참고: 이미 출간된 「Ice Break 백과사전」이 이 자기 소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를 담고 있다).

2루 베이스는 긍정의 과정이다. 2루 베이스는 1루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소개하고 나눈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곳이다. 구성원들이 한 구성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긍정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할 때 그들 사이에는 '관계성'이 창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관계성은 단순한 '반응'이나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기술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이다. 즉 2루 베이스에서 모든 소그룹 구성원들은 한 사람의 자기 소개에 대해서 그의 삶의 이야기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과 전적인 긍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리의 문제와 관련이 없는 이상 전적인 수용과 긍정의 의사를 분명하게 보여줄 때 자기 소개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은 소그룹 내에 자신이 분명한 구

성원이고, 배려받는 느낌으로 안정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2루 베이스에서는 "당신의 이야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저에게 참으로 귀한 선물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모든 소그룹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반응하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소그룹 전체의 약속이 필요하다. 특별히 "성경이 진리와 위배되지 않는다면 무슨 이야기든지 전적으로 수용하고 긍정할 것입니다."라는 구체적인 약속은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

소그룹의 결속을 위해 마지막으로 거쳐야 할 3루 베이스의 과정은 '목표 설정'이다. 나눔과 긍정은 구성원들 상호간의 좋은 관계성을 이루어주고, 좋은 관계는 거친 물결을 헤치고 항해하는 모험의 위험에서도 하나의 공동체로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다. 따라서 3루 베이스에서는 보다 깊은 수준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곳은 어떤 영역입니까?" 등의 물음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에 대한 나눔은 모든 소그룹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차원을 열어줄 것이다. 따라서 3루 베이스의 과정은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결속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다.

마침내 1루, 2루, 3루를 효과적으로 거쳤을 때 그 소그룹은 홈 베이스인 온전한 교제의 상태인 코이노니아에 이르게 된다. 코이노니아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어떤 위대한 음악가가 한 사람으로부터 리듬에 대한 정의를 내려달라는 물음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는 대답하기를 "만일 당신이 그것을 느껴보면 그에 대한 정의는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리 다양한 정의를 내려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

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음악에서의 리듬과 마찬가지로 코이노니아는 어떠한 정의나 서술로도 설명하거나 규정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카타르시스, 교향곡, 결속 등의 말로 설명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언어적으로 살핀다면 코이노니아는 희랍어로 믿음을 함께 나눈 연합체의 '친교'를 의미한다. 홈 베이스는 참된 하나님과 그룹 구성원들 사이의 보살핌으로 이러한 친교가 실현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며, '각 지체들이 모여 있는 상태보다 훨씬 더 위대한 전체를 만들어 내시는' 성령님의 역사로써 체험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이다. 결국 효과적으로 자기 소개의 과정과 전적인 수용과 긍정을 통한 관계의 형성, 그리고 관계성을 가진 모든 지체들의 새로운 목표 설정의 과정이 이루어졌을 때 성경이 가르쳐 주는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기쁨이 소그룹 안에 흘러 넘쳐서 건강한 소그룹을 운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재탄생에 초점을 맞추라

탄생 · 성장 · 재탄생

인생에서와 마찬가지로 소그룹에도 역시 탄생, 성장 그리고 재탄생이라는 자연스러운 생명주기가 있다. 소그룹의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견고하게 결속되어 가는 것은 참으로 보기 좋은 모습이다. 그리고 소그룹이 생명력

을 가지고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모습은 참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소그룹에서도 사랑의 극치는 인생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그룹이 또 다른 새로운 그룹을 탄생시켜 '재탄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소그룹의 임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그룹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출발할 때부터 이 사실을 확인시키고 진행 과정에서 언제나 기억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탄생 시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 나눔에 대해 감사하면서 서로의 이야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삶 속에서 현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바라는 목표가 무엇인지 나눌 수 있다. 이 시기는 마치 이성 교제에서 이제 막 데이트를 시작하려는 단계와 비교할 수 있다. 상대방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서로에 대해 알기 위하여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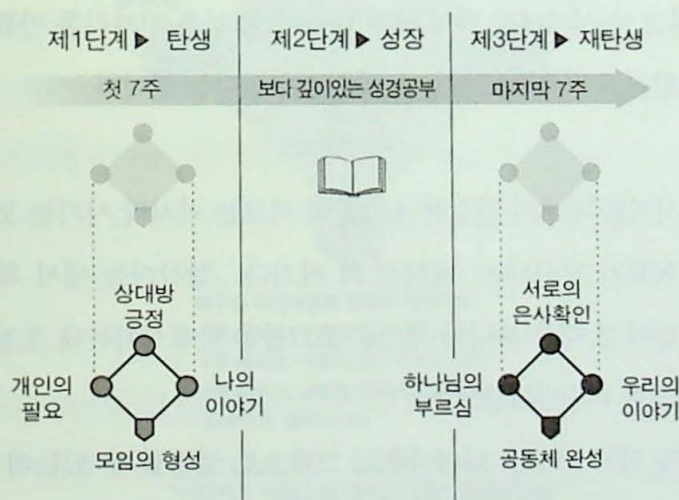



그림 8 그룹 라이프사이클의 세 단계

그리고 결혼에 골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켜야 할 약속을 서로가 목표 설정을 하면서 맺는 과정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탄생 시기를 지나면 성장과 성숙의 시기에 이르게 되는데 이 시기는 결혼의 초기 단계에 비교될 수 있다. 소그룹 구성원들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언약에 스스로 동의했다. 이제는 성장해야 할 시간이 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로 결속되었다. 이제 모든 구성원들은 한 공동체의 지체로서 성장해야 한다. 소그룹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 따라서 성경 공부를 영양을 고루 갖춘 건강식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열려 있는 소그룹으로서 새로운 사람이 모임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을 효과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 마련도 이 시기에는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깊이 있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성경 공부와 그에 맞는 교재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도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빈자리를 만들어서 영적인 성장만큼 수적으로도 성장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이다.

성장의 시기를 지나서 건강한 소그룹이 이르는 마지막 시기는 모임의 확장이라는 목표가 달성되는 '재탄생'의 시기다. '삼각기둥'에서 확장의 요소는 소그룹이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소그룹을 탄생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이미 살펴보았다.

이 단계도 역시 야구장 다이아몬드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은 탄생 시기의 그림과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소그룹의 구성원들은 이미 1단계와 2단계를 거치면서 서로를 잘 알게 되었고 강한 결속력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 시기의 소그룹은 '새로운 그룹'을 탄생

시키기 위한 역량을 깊이 있는 말씀 연구를 통해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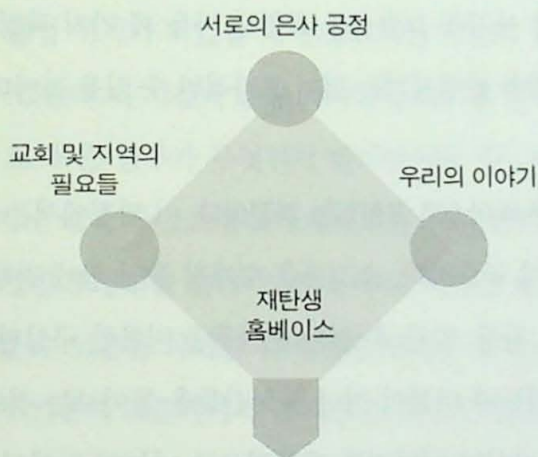
두 시기를 거치면서 소그룹은 '재탄생'을 준비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소그룹을 탄생시킨다는 것은 '계획에 없던 임신'으로 불쑥 나타난 낭패감이 드는 일이 아닌 것이다. 사실 새로운 소그룹의 재탄생은 소그룹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궁극적인 목적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그룹의 탄생은 조심스럽고 자연스런 잉태의 과정이 필요하다. 즉 조심스러운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야구장 다이아몬드 그림과 같다.

"인도자가 가져야 할 직무는 그룹의 멤버들에게
'우리의 소명은 우리끼리의 모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기억시켜 주는 것이다."

그림 9 야구장 다이아몬드 3단계

인도자가 가져야 할 직무는 그룹의 멤버들에게 "우리의 소명은 우리끼리의 모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재탄생 시기의 세 가지 과정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신비한 일이다. 동시에 많은 준비와 배려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소그룹을 낳는 위대한 사역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적어도 소그룹의 생명주기에서 재탄생의 시기에 그림 9로 표현된 다음 세 가지 과정을 잘 거친다면 새로운 소그룹을 탄생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과정은 1루 베이스로 표현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소그룹을 수개월 동안 함께 진행하면서 나누었던 기쁨, 갈등, 감동,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함께 겪었던 영적인 여정들과 더불어 걸어온 시간들을 돌아보는 것이다. 이것 역시 탄생 시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듯이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거쳐야 할 과정인 2루 베이스는 서로가 받은 은사에 대한 긍정이다. 이제 모든 구성원들은 서로를 잘 알게 되었다. 따라서 "나는 당신이 ……에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은사를 지닌 것을 보았습니다."라는 말로 서로가 받은 은사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의 평가와 받은 은사에 대한 격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사역자로 하여금 결단

하고 헌신하도록 하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세 번째 과정인 3루 베이스는 지역과 교회에 대한 기여를 위해 구체적인 결단을 하는 것이다. 소그룹을 이룬 다음에는 영적인 여정의 다음 발걸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소그룹은 작게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 좀 더 크게는 지역 사회와 더 큰 범위의 공동체를 향해서 섬김을 확대하는 결단을 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소그룹을 만들어 생명적 분할을 하는 형태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 모든 소그룹이 새로운 소그룹을 낳는 목적을 가지고 그 방향을 지향해야 하지만 모든 소그룹이 새로운 소그룹을 탄생시키지 않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소그룹의 교과과정 진행상 졸업 시기가 되었을 때 전교회적인 규모의 졸업식 행사로 절정에 이를 수 있는데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와 소그룹 관리자가 다음 해에 교회를 위한 보다 큰 임무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각 그룹에게 바라시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각 소그룹들에게 도전을 다양하게 줌으로써 이후의 소그룹 운영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재탄생의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새로운 또 하나의 그룹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그룹에서 한두 사람을 새로운 소그룹의 인도자로 파송할 수도 있다. 또 교회의 선교 사명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짊어지기 위하여 청소년 그룹의 후원자가 되거나, 사회 봉사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을 위해 기존의 소그룹이 그대로 남을 수도 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과정의 그룹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소그룹 모임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비로소 '완전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수련 기간을 모두 거친 후 최고의 상황, 즉 평생 회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을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소그룹 활동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소그룹의 지체가 되었다는 범위를 훌쩍 뛰어넘어 남은 일생 동안 어느 때든지 함께 했던 소그룹 멤버들에게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 불러낼 수 있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동시에 그런 동역자들을 만들기 위해 또 다른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건강한 소그룹을 통해 맺어진 동역자들이 많은 교회는 자연스럽게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특이 체질을 소유하는 것이다.

8가지 기초 원리에 충실하라

우리 모두에게는 건강한 소그룹을 유지하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열심이 있다. 복합적이고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건강한 소그룹은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성숙하게 세울 수 있고, 서로 섬김으로써 거대한 조직에서 힘을 못 쓰던 사람들 개개인에게 새로운 역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창의적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풀러신학교 교회성장연구소의 칼 조지(Carl George) 박사는 메타 교회 모델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해 당신의 교회를 준비시키라」(Prepare Your Church for the Church)는 책에서 미래 교회에 필요한 요소를 강조하면서 소그룹 사역이 새로운 세기의 대안이 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칼 조지 박사는 미래 교회에서 필요한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은 소그룹이라고 강조한다.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기 위해서 건강한 소그룹의 효율적인 운용은 필수적이라는 말이다.

건강한 소그룹 8가지 기초 원리

그렇다면 건강하고 역동적인 소그룹을 이루기 위해 유지해야 할 기초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이것 역시 여덟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잠재력을 인정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독특한 인격성과 재능을 부여하셨음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각 개인의 인격이 존중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사실상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각 개인이 가진 잠재적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장으로써 소그룹이 있어야 하고, 소그룹의 인도자와 구성원들은 소그룹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진 '가능성 있는 중요한 사람' 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배려할 때 건강한 소그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모든 잠재력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이 최고로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잠재적 능력을 각 사람에게 부여하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교회 내의 소그룹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영적 공동체의 기초 체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최고 경영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동질성을 확보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임을 끊임없이 효과적으로 강조해야만 하는 것이다.

셋째, 협력과 나눔을 위한 구체적인 약속이 필요하다.

소그룹이 역동성을 동반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구성원들의 많은 희생과 노력이 동반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들이 협력하고 함께 짊어져야 하는 공동의 약속을 효과적으로 맺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로를 더욱 깊이 알고 협력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함께 나누는 삶을 위하여 '언약서'를 작성하고 그것에 대해 공동으로 약속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소그룹이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이에 대한 '언약서 작성' 프로그램 등을 갖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내적 변화를 추구하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새롭게 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구성원 상호간의 친밀한 인격적 교감과 생활 전반에서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소그룹은 그 특성상 모든 구성원들의 내적인 변화를 요청할 수 있는 좋은 장이다. 따라

서 모일 때마다 마지막에는 모든 구성원들을 향해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구성원들 전체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결단을 촉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 요청하고 내적인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건강한 소그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열린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

성령님께서 소그룹 구성원들로 하여금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잠재적인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작게는 자신이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 크게는 세계 내에 존재하는 이웃들을 위해 섬기는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즉, 꽉 닫힌 폐쇄적 공동체로서 내부적으로 모든 힘을 탕진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열린 공동체로서 함께 축적시킨 역량을 가지고 이웃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려고 소그룹으로 모이게 하셨고 영적인 은사들을 부여하셨음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항상 개방성을 가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과 어떤 상처로 인해 치유받기를 바라는 이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소그룹, 그리고 다른 공동체의 필요를 공급하는 공동체로서의 일정한 사역을 감당할 때 역동적이고 건강한 소그룹이 될 수 있다.

여섯째, 성경 중심적이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대속 활동에 대한 살아있는 진술이며 지금 이 순간 그분의 뜻을 보여주는 최고의 안내자이다. 아무리 소그룹 구성원들 사이에 깊은 인격적 교감을 통한 풍성한 교제가 있고, 섬김과 나눔을 통한 훌륭한 사역이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는 소그룹은 단언컨대

건강성을 결코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소그룹이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육이 없는 사역의 무미건조함을 항상 인식하면서 깊이 있는 말씀 연구의 토대가 항상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일곱째, 영적인 전체성을 지향해야 한다.

건강한 소그룹은 항상 영적인 전체성을 고려하면서 운용되어야 한다. 영적인 전체성이란 소그룹 구성원들이 존재하는 모든 영역, 즉 '감정, 인간관계, 가치관과 세계관, 생활 방식 등'을 포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편향적으로 한 부분만을 다루는 형식으로 교과과정을 짠다거나 소그룹의 모임 시간을 배분하는 것은 소그룹 자체의 건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성경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가진 것을 이해한다면 성경적 소그룹이 되기 위해서는 소그룹 구성원들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영역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식으로 교과과정이 진행되고 시간도 안배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직된 형태의 소그룹 운영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일이다.

여덟째, 풍성한 교제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

소그룹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성원 상호간에 풍성한 교제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구성원들이 깊은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많은 경우 교제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혀 오히려 분위기를 어렵게 끌고 가는 경우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효과적으로 피하면서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교제의 환경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도구나 자료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만 부지런하다면 충분히 소그룹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들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을 발견하고 궁극적으로 자발적인 축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잃지 말아야 할 소그룹 정신

지금까지 언급한 것과 함께 건강한 소그룹을 이루는 기초적인 여덟 가지 요소로부터 이제 다음과 같이 건강한 소그룹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건강한 소그룹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는 원리를 중요하게 여긴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공감대를 확대하며,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교회는 역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바로 이런 목표를 가장 원활하게 성취할 수 있는 공간이 소그룹인 것이다. 거대한 수직적 관료주의 사회가 붕괴되고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되는 시대적 상황을 이해한다면 진정한 나눔이 있고 회복과 격려가 있는 건강한 소그룹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간다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한 소그룹을 통한 건강한 교회의 구축!"이라는 명제는 더할 나위 없이 소그룹 사역에서 중요하게 취급해야 하는 부분이다.

둘째, 열린 소그룹을 지향한다(빈자리 – Amplify).

건강하다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한 소그룹 역시 '건강하다' 는 형용사를 계속해서 간직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소그룹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 건강한 소그룹은 닫힌 소그룹이 아니라 항상 열려 있는 공동체로서 누구든지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환영하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빈자리(Empty Chair) 전략' 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우리 소그룹에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세우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여지를 마련해 놓고, 궁극적으로 소그룹을 통해 세움을 입은 이들이 또 다른 소그룹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을 꾸준하게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코이노니아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소그룹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보물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교제를 그 안에서 획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소그룹을 진행하면서 많은 경우 어려움이 발생하고 마침내 소그룹이 와해되는 것과 같은 아픔을 겪는 이유는 그 배후에 참된 교제의 기쁨을 소그룹 내에서 누리지 못하기 때문임을 발견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 내에 소그룹이 존재하는 목적은 가르침의 기능 수행이나 효과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서이기보다는 '격려와 세움, 그리고 나눔' 을 통한 치유와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소그룹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제의 기쁨을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할 때마다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계획되고, 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구성원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 공동체가 바로 소그룹인

것이다.

넷째, 소그룹의 핵심 3요소(교제, 말씀 연구, 전도-확장)의 균형을 유지한다.

소그룹이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교제, 말씀 연구, 전도 혹은 확장'의 각각 요소를 효과적으로 균형 있게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3요소 가운데 만약 어느 한 쪽에 지나치게 치우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소그룹의 건강성을 해치는 장애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3요소의 균형을 위해 건강한 소그룹은 항상 소그룹의 생명주기를 전제한다.

다섯째, 소그룹의 생명주기(Life Cycle)를 중요하게 여긴다.

건강한 소그룹은 소그룹이 '탄생, 성장, 재탄생'의 생명주기를 가지고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고 각 시기에 맞게 '교제, 말씀 연구, 전도 혹은 확장'의 소그룹의 3요소를 안배한다. 즉 소그룹이 3요소의 균형을 각 시기에 맞게 가질 수 있도록 교과과정과 소그룹의 활동 내용을 적절하게 편성하는 것이다(참고 : 생명주기 전략을 다시 기억하라). 소그룹의 생명주기를 전혀 무시한 상황에서 성경 공부 교재에만 초점을 맞추어 소그룹 사역이 계속 진행된다면 소그룹의 건강성은 거의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이 임상을 통한 결과였다.

여섯째,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직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성경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주일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배 시의 메시지를 통해 청중들의 삶의 자세

와 세계관이 변화되는 것은 아무리 세계가 빠르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한편으로 세상의 패러다임 자체가 복합적이고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의 언급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다. '선언적 메시지를 들은 후 삶의 본질과 생각은 전환하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야기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대안은 소그룹이다. 아무리 특수하고 복잡한 양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대안을 제시하는 건강한 소그룹들이 교회 안에 구성되어 있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전체성을 띤 교회 공동체가 구성원들이 당면하고 있는 복잡하고 세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길은 소그룹이다.

일곱째, 특성화된 소그룹을 세우고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깊이 고려하여 구성된 특성화된 소그룹이 교회 내에 많을수록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더욱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연령별로나 지역별로 획일화되어 구성된 소그룹들이 아니라 직업별 소그룹, 성별 소그룹, 치유가 필요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소그룹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같은 비전을 공유한 사람들 사이의 소그룹 등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그룹을 구성하고 교과과정을 짜고 운용되는 소그룹이 건강한 소그룹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다.

여덟째, 소그룹 리더를 융통성 있게 세우며 돕는 방안을 제시한다.

탄생, 성장과 성숙, 확장의 소그룹 생명주기를 경험한 소그룹 구성원 가운데 성경적 신앙고백이 확실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소그룹 리더가 될 수 있다. 소그룹 관리자와 목회자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교재(예 : 마음열기를 위해 필요한 게임 자료, 보살핌이나 격려 시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나 도구들 등) 준비와 전체 커리큘럼 구성 등과 같은 부분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병참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융통성 있게 세워진 리더들은 목회자나 소그룹 관리자와 유기적이고 소그룹 인도 시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힘있게 그들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소그룹은 상호 섬김으로 완성된다

강의 스타일의 인도자

"몇 년째 소그룹 리더로 섬기고 있는 김 집사의 소그룹 인도 스타일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강의 스타일이다.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인도자인 김 집사는 강의하고, 질문하고, 함께 한 구성원들은 여러 성경 구절을 찾아 읽는 것으로 소그룹 모임을 진행한다."

이런 형태의 소그룹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물론 전적으로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소그룹은 어떤 한 사람이 자신만의 특별한 은사를 연습하는 장이며, 조금 지나치게 표현하자면 인도자가 '원맨쇼'를 하는 소그룹이다. 한 사람의 인도자가 가르치고 상담하는 은사를 발휘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모임 시간에 참석해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짧게 답하거나 또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이유는 '왜 소그룹으로 모이는가?'에 대한 소그룹의 원래 취지를 상실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소그룹은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소그룹 안에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의 활용을 통해 상호 섬김을 이루어내는 적은 수의 모임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상호 섬김을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소그룹만이 가진 특권이다. 물론 대그룹에서도 은사의 발견과 은사배치 사역은 일어난다. 그러나 대그룹에서는 모든 멤버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것과, 은사 발견 이후 섬김의 현장과 연결시키는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 또 대규모의 모임에서 어떤 은사들은 거의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소그룹에서는 모두가 자기 은사를 통해 다른 구성원들을 섬길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어 있고, 동시에 다른 구성원들이 가진 은사를 통해서 기꺼운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상호 섬김의 장이 보다 효과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교회 안에서 모이는 소그룹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시간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공부에만 치우쳐 가르치는 것과 학습 능력의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다른 은사들은 잊어버리고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소그룹은 결코 한 가지 은사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구성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선명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은사를 가졌을 수도 있다. 어떤 이들

은 함께하는 이들을 환대하고 누가 이야기하든지 잘 경청하며, 사람들을 잘 격려하고 세우는 은사를 가졌을 수도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은사들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은 소그룹이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그저 앉아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성경책만 넘기는 학습 현장으로 전락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른바 대그룹에서 시간적인 이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퇴짜 맞은 은사들을 개발해서 서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섬김을 위한 준비와 과정

그렇다면 소그룹 안에서 구성원들이 자기의 은사를 통해 서로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어떤 준비와 과정이 필요할까?

첫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소그룹 사역을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느슨한 조직의 회중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 사이에 깊은 관심과 사랑이 있는 이른바 서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데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를 향한 섬김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는데 있다. 진정한 상호 섬김이 아닌 위장된 섬김은 구성원들을 피곤하게 만들 뿐이고, 급기야는 가면을 쓰고 섬기는 일로 인해 소그룹 참석 자체를 꺼리게 만들 수도 있다. 진정한 상호 섬김은 계획하거나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각자가 성령과 그룹 내의 다른 사람에게 굴복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이다. 따라서 진정한 상호

섬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섬김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즉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개방적이고, 정직하고, 상처받을 것을 감수하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그룹 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요청된다.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소그룹에서는 가식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개방적이고 정직해야 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서로에게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상처받을 각오를 하는 것이 종종 마음이 편치 않을 때도 있고 불쾌할 때도 있다. 그러나 소그룹 내에서의 상호 섬김은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버릇없이 굴든지 기꺼이 상처를 감내하겠다는 구성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진실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둘째, 인원수를 제한하라.

소그룹 내에서 원활한 상호 섬김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아주 분명한 요소인데 자주 간과되는 것이 바로 이부분이다. 만약 소그룹 내에서 상호 기꺼운 섬김을 원한다면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을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서 밀도 있는 섬김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물론 이런 이유 때문에 소그룹을 통한 영적 재생산(전도의 열매)을 도외시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소그룹의 인원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친밀도가 낮아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의 빈도와 농도는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소그룹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열둘

을 택하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열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내면적 생각과 기도, 그리고 지향점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처럼 하루 종일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열두 명 정도의 인원수도 좋다고 본다. 그러나 만약 한 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고, 주중에 한 번 정도 전화와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물리적 상황이라면 소그룹의 인원수를 더 작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구성원들 상호간에 원활한 섬김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시간을 질적으로 잘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양적 시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소그룹 전문사역자들이 계속적인 임상의 결과를 통해 권고하는 인원수는 6~8명 정도다.

셋째, 자기의 일을 하게 하라.

지금 소그룹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름 옆에 그들이 가진 은사들을 적어보라. 만약 각각의 명단 옆에 적을 만한 은사가 떠오르지 않거나 아예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상호 섬김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소그룹이다. 구성원들의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어쩌면 그들이 은사를 발휘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소그룹 안에서 서로 섬기지 못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성령의 사역을 저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구성원들에게 사역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단 한 사람은 현재의 '리더' 밖에 없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리더 외의 나머지 구성원들은 그저 리더가 던져주는 것만을 받아먹기 위해 모임에 참석하고,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는 아무런 섬김도 하지 않는 '산 자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구성원들의 은사가 무엇인가 추측하지 말

고 그 은사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그들을 위한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소그룹에는 이미 리더가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지만 한 번도 가르쳐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른다. 또 깊은 기도에 은사가 있는 이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믿음으로 권면하는 은사를 가진 이들도 있다. 그러므로 부단히 구성원들을 향해 그들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발견된 은사를 통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상호 섬김은 더욱 효과적으로 소그룹 내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섬김의 외연을 확대하라.

소그룹에서 섬김을 강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성원 상호간의 섬김을 통해 견고한 팀워크을 형성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을 향해 사회적 섬김(Diakonia)을 이루어내는 데 있다. 즉 구성원들이 서로 알게 되고 좋은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내부지향적 섬김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만 그 관계가 자라면 그 그룹 안에 모인 믿음의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즉 상호 섬김은 구성원들이 맺고 있는 관계가 어느 정도로 근사한지를 보여주는 표현의 출구인 셈이다. 그러므로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은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복 주셨는지를 이해하게 되며, 나아가 견고한 관계 형성을 가진 한 팀이 지금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쓰임받기 위해 눈을 뜨고 움직인다면 그것만큼 멋있는 소그룹 사역은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진정한 상호 섬김의 궁극적인 목표로써 우리의 섬김을 요청하는 곳이 어디이며,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한 팀이 함께 팔을 걷어 부치고 허리를 굽혀 손을 내밀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외부적 섬김 과제를 꾸준히 개발하는 것은 성숙을 위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마지막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소그룹에 대해 구성원들이 시큰둥한 태도를 갖는 원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리더만 섬기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다른 이들을 구체적으로 섬겨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기꺼운 섬김을 받아보지도 못한 소그룹에 애착이 갈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이라도 기꺼이 상처를 받겠다는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섬기기로 작정해 보라. 그렇다면 성공적인 소그룹은 결코 책에만 기록된 문자적인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정기적으로 평가하라

아쉬움을 잠재울 방법

"그 때 말 좀 해주지 왜 그랬어?"

"이야기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잖아요."

소그룹 임상을 해보면 모든 소그룹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소그룹 교과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리더와 멤버들 사이에 이런 대화가 심심치 않게 오고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배경은 여러 가지다. 실례로 좀더 역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는데 서로 평가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는 아쉬움 섞인 의미로 이런 말이 오가기도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소그룹이 나아가는 방향과 진

행되는 속도에 대해 결과적으로 소그룹 멤버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이에 대한 리더의 방어적인 상황에서 나오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소그룹을 마칠 때 아쉬움이 섞이지 않고, 리더와 멤버 그리고 멤버들 상호간에 푸념이나 공격적인 언사로 서로 상처입지 않고 효과적으로 전체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소그룹을 평가하는 것이다.

필요성과 유효성

소그룹 사역을 진행하는 가운데 사역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중요한 실수 가운데 한 가지는 일단 그룹이 굴러가기 시작하면, 내버려두기 쉽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그룹을 진맥하고 평가하는 것은 소그룹 사역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사역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그 결과로 엄청난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소그룹 리더가 멤버들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한 가지를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함께 진행하고 있는 소그룹을 잘 평가하고 평가에 대해 주의 깊고 진지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만약 리더가 멤버들의 평가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반응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또 다른 필요를 리더에게 털어놓는 것에 대해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평가를 통해 나온 그들의 제안을 착실하게 실행에 옮긴다면 그들은 자기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리더를 신뢰하기 시작할 것이며, 더 깊은 나눔의 자리로 나아갈 것임에 틀림없다. 여기에 더하여 평가를 통해 나온 것을 실제적으로 실행

에 옮기면서 개선되는 구체적인 사실들이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향후 그 소그룹이 어떻게 발전적으로 진행될 것인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모든 일이 항상 계획한 대로만 된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러나 일이란 것은 종종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평가가 그토록 유익한 이유이다. 정기적으로 지나온 과정을 돌아보고 난감한 질문들을 던져 보는 것은 그룹에 굉장한 유익을 준다. 리더들은 그들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가를 통해 멤버들이 서로 격려하고, 건설적으로 비평하고, 그래서 각자 독특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나온 과정을 돌아보고 실수로부터 배울 시간을 제공하며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소그룹 평가의 필요성과 유익한 점이다. 결국 리더들이 소그룹 환경을 보다 발전적으로 조성하는 일을 돕고, 리더의 자기 개발을 도울 뿐만 아니라 소그룹 내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안전 지대를 제공하는 것이 소그룹을 평가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요청되는 유연성

사실 '평가' 라는 말 자체가 주는 일반적인 인상은 썩 달가운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것을 좋아하고, 안정을 희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은 후 종래의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은 내키지 않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소그룹 사역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성공적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싶다면 정기적인 평가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특별히 소그룹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욱 자주 평가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렇듯 중요하게 취급되는 평가를 위해서 소그룹 멤버 모두에게 요청되는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연성'이다.

소그룹 탄생 시기에 탄탄한 비전과 튼실한 구조라고 여겼던 것들이 과연 몇 주간이 흐른 뒤에도 계속 유효한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실례로 소그룹 멤버들이 소그룹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 해결함을 받고 있는가? 처음 설정했던 영적인 목표가 몇 달이 지난 지금 만족되고 있는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고 있는가? 교회의 사명이 소그룹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가? 소그룹 내에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안정감과 공동체성이 생기고 있는가?

전(全)교회적으로 볼 때 소그룹의 리더들이 자기 사역을 위해 적절한 돌봄을 받고 있으며 그리고 지원과 격려를 받고 있는가? 그들은 팀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룹의 성장과 증가가 계획되고 또 기대되고 있는가? 사람들이 소그룹에 끊임없이 초대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한 번 참석한 그룹에 정착하는가? 등등의 문제들은 반드시 평가해야 할 주제들이다.

소그룹이 탄생될 때 공유했던 사역의 비전과 목표는 제자리에 있어야 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유연성은 소그룹 사역이 뻗어가는 데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소그룹 사역에 있어서 고정된 어떤 틀은 사역의 시작과 성숙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유연해야 할 항목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성경공부 자료, 모임 시간, 훈련 일정과 리더 모임, 소그룹 인도를 위한 테크닉 훈련, 모임 보고 체계와 문서화 작업 등은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소그룹의 수에 따라 처음 계획과 달라질 수 있다. 또 개별 소그룹으로서도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커짐에 따라, 그리고 세워진 리더의 경험 정

도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다.

결국 평가는 소그룹 사역이 진행되는 한 그 소그룹이 어떤 단계(물론 성숙기에 있는 소그룹보다 새로 생긴 탄생기의 소그룹이 당연히 평가가 자주 있어야 할 것이다)에 있던지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평가를 할 때마다 정직과 용기가 요구되고, 안주함 보다는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소그룹 사역의 발전이란 측면에서 긍정적인 고통이란 사실을 인식한다면 소그룹 사역에 대한 유연성을 지닌 평가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소그룹이 경직된 틀에 갇혀있는 듯한 판단이 드는 그 순간이 바로 평가와 변화가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 방법의 선택

그렇다면 성공적인 소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평가해야 할 것인가?

소그룹을 평가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소그룹 구성원이 아닌 외부의 성숙한 사람을 모임에 초대해서 하는 것이다. 초대 대상으로는 교회 내의 소그룹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목회자도 좋고, 다른 소그룹의 리더도 좋을 수 있다. 이런 초대 인사는 객관적으로 소그룹을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소그룹 멤버들이 자기 평가를 하는 방법이다. 모든 멤버에게 소그룹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상기시켜 주고 그 목적과 목표가 평가의 안목으로 볼 때 잘 지켜졌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고 나누는 것이다. 특별히 소그룹이 교과과정을 진행하는 시기 중 탄생 시기와 성

장 시기에 하는 평가 시간에 제시될 수 있는 질문으로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이다.

> "우리 소그룹(리더, 멤버)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 "소그룹에서 새롭게 꼭 해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리더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구성원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멤버들이 우리 소그룹이 어떻게 운용되기를 원하는지, 무엇이 바뀌기를 원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리더는 훨씬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소그룹이 성장 시기를 거쳐 모든 과정을 마칠 즈음에 이르면 앞선 세 가지 질문보다 더 포괄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경 공부의 질, 소그룹 멤버의 구성, 리더들과 협력 리더들의 관계, 그리고 그밖에 교회가 전체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과 리더가 알고 싶은 것들에 관한 정보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요청하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교과과정을 짜고, 새롭게 출발할 차기 소그룹 사역에 있어서 최고의 정보가 될 것이다.

소그룹 사역을 맡은 이상 모든 리더는 자신이 섬기는 소그룹이 보다 성숙되고 역동적이기를 바라는 꿈이 있다. 어떻게 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그 비결 가운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소그룹을 위해 처음 세운 비전은 굽히

지 않되 냉철함을 가지고 용기 있게 평가하고, 조정되고 변화되어야 할 것들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3장 | 소그룹 교과과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소그룹 교과과정을 점검해 보라

구역 예배의 역할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것은 외형적으로 볼 때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의 강력한 리더십과 대형집회들의 영향력이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전도에 열심을 발휘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자리 잡은 중요한 원인으로 1970년대부터 시도된 구역 모임의 활성화를 빼놓을 수 없다. 한국 교회의 구역 모임은 오랜 기간 동안 주일학교 공과교육 이외에 장년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거의 유일한 소그룹 활동이었고 새신자 교육 및 적응 과정, 장년 성경 공부,

목회 상담 및 치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천후 만능 시스템으로 활용되었다.

한국 교회 구역 제도의 장단점과 개선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 단원에서는 하나의 소그룹 교과과정으로써 살펴보고자 한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구역 조직은 초창기 많은 교회들의 모델이 되었다. 이 모델의 특징은 담임 목회자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재확인하는데 있다. 잘 알려진 대로 담임 목회자가 그 주일 강단에서 선포한 메시지의 내용이 구역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전달되는 통합 그룹의 형태를 취했던 것이다. 이러한 모델은 효과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성과를 보일 수는 있으나 소그룹 교과과정으로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성도들의 균형잡힌 영적 성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체계적인 양육과정을 적용할 수 없다.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성경에 대한 심화된 이해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의 원리를 폭넓게 제시하여 고른 영양분을 제공하는 소그룹의 특징적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후 많은 교회들이 구역 모임에서 적용한 소그룹 교과과정은 각 교단의 총회 교육부 또는 유명 목회자들이 일년 단위로 구성한 구역 예배 지침서 또는 구역 공과들이다. 이러한 시도는 나름대로 구역 모임을 체계적인 양육과정으로 활용하려는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교과과정의 한계는 소그룹 활동의 특징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재에서 제시하는 구역 모임의 모델은 '구역 예배 지침서' 라는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그룹 공예배의 축소판으로 틀에 박혀 있다는 것이다. 구역장 한 사람에게 모든 진행이 집중되어 엄숙한 분위기에서 '예배' 를 진행하고 구역 공과에 제시되어 있는 성경 공부 내용을 설교하듯 전달하는 것으로 모임을 마친다. 뿐만 아니라 매년 같은 내용의 공과가 일률적으로 온 교인(정

확하게 말하면 구역 모임에 참여하는 기혼 여성들)에게 적용되어, 개인의 필요에 대한 배려는 고사하고 신앙 성장의 단계조차 전혀 고려할 수 없는 초보적 교과과정의 한계를 보여준다.

제자 훈련의 역할

한국 교회의 소그룹 활동이 적극적인 교육의 목적으로 접근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청년대학부를 중심으로 성경 공부 모임과 제자 훈련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일방적인 설교 형태의 교육과 대중 집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성경 공부 모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그 열기가 확산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교재들 대부분이 지식 전달 위주의 주입식 교육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개인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머리만 큰 교인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주제별 적용 교재들도 역시 성경 구절을 찾아 빈칸을 메우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본질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십여 년 전부터 '평신도를 깨운다.'는 취지로 제자 훈련을 목회의 중심 방향으로 삼고 있는 사랑의교회를 비롯한 교회들은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교과과정에 맞추어 교재를 직접 제작하기도 하지만, 지난 시간 대부분의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에서는 거의가 대학생 선교 단체들을 통하여 개발된 교재들을 사용했고 나름의 교재들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특별히 각 선교 단체들의 교재는 오랜 경험과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고 주제별 또는 성경책별로 다양한 교재

들이 있다. 이제까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교재들의 특징과 교과과정 구성을 소그룹 활동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교과과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보자.

여러 가지 소그룹 교과과정과 교재를 분석해 보라

네비게이토 교재(Navigator)

네비게이토 선교회의 성경 공부 교재들은 소그룹 성경 공부 초창기에 널리 사용되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생활 연구 시리즈'(전10권)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 시리즈'(전6권)는 체계적인 주제별 연구를 시도한 시리즈 교재로 이 교재들을 통하여 체계적인 소그룹 교과과정을 적용하는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이 최초로 교회에서 시도될 수 있었다. 이외에도 경건의 일기, 경건한 생활 관리, 인간과 하나님, 거듭난 삶 등의 단권 교재들이 있어서 주제별 연구와 개인적 성화를 돕는 교과과정을 구성할 수 있다.

네비게이토 성경 공부의 특징은 무엇보다 개인적인 성화와 경건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필요한 깊이 있는 주제들을 상세히 다룰 수 있으며 개인적인 묵상으로 잘 연결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적인 헌신과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함으로써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여 머리만 커지는 불균형적인 성장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그룹 성경 공부(Group Bible Study)가 개인의 말씀 묵상 또는 경건의 시간

으로 연결되어 QT가 정착되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무엇보다 기초 교리와 신앙 생활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상세하게 제시하며 진지한 신앙의 자세를 유도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네비게이토 성경 공부는 계단식 교육과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각 과정 속에 10단계 내지 6단계의 주제들이 구성되어 있고 참가자는 각 과정을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일률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계단식 교육과정은 한 가지 학습 목표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빈틈없이 필요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소그룹 집단의 특징과 개인의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변형하거나 단계를 조절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며 참가자들에게 상당한 부담과 헌신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경 공부 형태가 대부분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핵심적인 헌신자 계층에서만 효과를 보고 때로는 엘리트 교인과 초신자 그룹을 분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소그룹 성경 공부의 교과과정은 소그룹이라는 인격적 관계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는 구성원들의 만남이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상호 활동을 통한 관계 형성을 돕는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제자 훈련 초창기 대부분의 교재들은 여러 가지 주제들을 나열하고 그 주제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강의안 형태를 취하고 있다. 나름대로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대화의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만 역시 주제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물음으로, 해당하는 성경 본문을 제시하고 정답을 확인하는 성경 구절 찾기식 구성에 머물고 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교재(C.C.C., 순출판사 간행)

한국대학생선교회의 교재들은 철저한 계단공과식 체계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교재는 C.C.C. 10단계 성경 교재, 새생명 5단계 성경 교재와 제자화 시리즈 전4권 등이 있다. 네비게이토와 마찬가지로 성경책별 연구는 없고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재들의 장점은 영적 성장의 단계와 수준에 따라 체계적인 과정을 이루고 각 단계에 적합한 난이도를 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 과마다 친절한 문제 제기와 그림 설명을 포함하고 있어서 보다 흥미 있게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영적인 삶의 원리와 교리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양한 도표를 사용하고 그림 설명을 통한 개념 전달을 시도하고 있다.

대학생선교회의 교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일보한 점은 각 과의 진행을 위한 학습 목표-성경 연구-적용 등의 구성이 교육학적으로 고려되어 있다는 점이다. 각 과마다 인도자와 학습자가 정확한 목표를 확인하고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접촉점(contact point)을 가지도록 하고 실제적인 적용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복음주의 신앙에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대학생선교회의 교과과정도 네비게이토의 교과과정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삶에 대한 주제별 접근에만 머물러 있고 각 주제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위하여 성경 구절을 제시하여 정답을 찾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성경의 내용 자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빠져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각 주제의 이해를 위하여 제시되고 있는 성경 본문들도 본문의 한 단락 이상의 내용을 연결하여 살펴보기보다는 한 구절씩 대입시키는 방식으로 성경 본문에 대한 귀납적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제

자 훈련의 최종적인 목적이 한 사람의 평신도로 하여금 스스로 말씀을 읽고 해석하여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교육과정에 있어서 성경 본문에 대하여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관찰하여 문법적,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C.C.C. 교육과정의 한 가지 특징은 구원의 과정과 영적인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자의 영적 삶의 영역에만 초점을 두어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 측면의 균형 잡힌 성장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소그룹 교과과정은 영적인 영역은 물론이고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 영역의 생활까지 온전하게 세워주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구성을 이루어야 한다. 사도 바울도 언제나 자신의 서신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전반부에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고 나면 반드시 후반부에는 그로부터 제시되는 구체적인 삶의 원리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다.

한국기독학생회 교재(IVF, IVP 간행)

한국기독학생회(IVF)는 방대한 주제와 다양한 접근으로 성경책별 연구와 주제별 연구를 균형 있게 다루어 출판부(IVP)를 통하여 꾸준히 간행하고 있다. 미국 IVP의 풍부한 자료와 IVF의 캠퍼스 현장 사역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구체적인 소그룹 인도자 가이드를 제시하고 더 깊은 연구를 위한 참고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IVF 교재들의 특징은 다양한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균형 잡힌 삶의 모델과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으며 복음주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신학적 기반이 튼튼하다는 점이다. 또한 지성 사회의 복

음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성격에 충실하게 깊이 있는 내용과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다양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며 신학적인 기초가 튼튼하다는 것 외에 이 교재들의 장점은 장기적인 계단식 체계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으면서 그룹 성경 공부 및 개인 연구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말씀과 삶 시리즈'에는 체계적인 성경 연구를 위하여 리더를 위한 해설이 제시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기초 단계의 성경 공부부터 주제별, 성경책별 연구가 적절히 조화되어 있으며, 정서적, 영적, 신체적 삶을 모두 돌보는 균형 잡힌 삶에 대한 배려가 돋보인다.

그러나 IVF의 교재들 역시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강조하면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단점들이 눈에 띄인다. 우선 소그룹 교과과정으로 사용되기 위하여 가장 보완해야 할 점은 장황한 설명 위주의 구성으로 대화 위주의 모임을 진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지성 사회의 복음

표5 한국기독학생회 교재 분석

말씀과 삶 성경 공부 시리즈 |
신약 책별 전21권, 구약 책별 전9권, 주제별 9권, 리더용 지침서

IVP 기초 성경 공부 시리즈 |
행복에의 초대, One to One, 새로운 삶의 길, 푯대를 향하여

아볼로 성경 공부 시리즈 |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의 삶, 증인의 길

신자의 삶 성경 공부 시리즈 |
빛으로 가까이,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 네 빛을 비추어라

제자의 삶 성경 공부 시리즈 |
베드로의 일생, 한 사람을 향한 비전, 역동적인 공동체

IVP 캐어링 시리즈 |
정서적 필요를 돌보는 삶, 영적 필요를 돌보는 삶, 신체적 필요를 돌보는 삶

기타 주제별 단권 교재 |
행복에의 초대, 푯대를 향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성령의 열매, 거친 형상, 세계 선교 등

화' 라는 단체의 목적에 맞게 내용적 우수성을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상대적으로 높은 난이도로 인하여 지식 전달 위주의 학습을 꺼리는 신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고 학력 계층별 차이가 심하게 부각될 수 있다는 단점도 무시할 수 없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다. 이전의 주제별 계단공과들과는 다르게 다양한 교재들을 균형 있게 발간했지만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어야 할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단계적인 구성 및 수준에 따른 배려가 없어 목회 현장에 전체적인 적용이 어렵다. 이러한 구성은 각 교재 간의 계속성과 관련성을 발견하기 어려워 체계적인 교과과정으로 구성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소그룹 양육과정에서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제별 연구는 물론 성경책별 연구도 본문에 대한 귀납적 연구와 적용보다는 주제별 물음에 따른 구절 분석과 단답형 물음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소그룹을 위한 성경 공부는 내용의 전달만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원리와 그룹 다이나믹스를 통한 진행 방법론의 비중이 매우 크다. 그러나 IVF의 교재들은 내용에만 치중한 나머지 성경 공부 모임 진행과 참가자의 흥미 유발, 동기 부여를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따라서 모임 자체가 지나치게 정적인 분위기로 흐르고 그러한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중도에 탈락할 염려가 있다.

균형잡힌 소그룹 교과과정을 구성해 보라

소그룹 교과과정의 방향

오늘날 미국에서 성장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지속적인 평신도 제자 훈련과 사람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소그룹 프로그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윌로우크릭교회(Willow Creek Community Church)를 비롯하여 새들백교회(Saddleback Valley Community Church), 새소망교회(New Hope Community Church) 등 체계적인 소그룹 사역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은 메타 교회(Meta-Church)를 그 모델로 삼고 있는데, 메타 교회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스스로 변화하는 교회라는 것이다. 메타 교회 모델은 세포 그룹들을 중심으로 그 구조가 짜여져 있다. 그곳에서 친구를 사귀고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토론함으로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지도 받고, 은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사용하며 서로를 위해 돌보는 구조이다. 이러한 소그룹은 10명 내외의 세포 조직과 같은 작은 모임으로써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공통점을 중심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돕는 일을 배우는 인간 관계 모임이다. 이것은 이제까지 GBS(Group Bible Study) 위주의 성경 공부 모임과는 다른 개념이다.

윌로우크릭교회의 소그룹은 모든 이들이 보살핌을 받고, 그 누구도 10명 이상은 돌보지 않게 한다는 방침을 표방하고 있다(빌 도나휴, 윌로우크릭교회 소그룹 이야기, 서울: 디모데, 1997, p. 23). 새소망교회의 세포 그룹들은 학생, 미혼자, 남성, 여성, 직장인 등이 서로의 관심사에 의해 소그룹을 구성한다. 이 모임에서는 더 나은 생활을 위하여 공부하고, 실생활 적용을 강조하며, 자

유롭고 개방적인 토론을 갖는다. 모임의 인도자는 세심한 훈련과 감독을 받는다(김점옥 저, 청년대학부 20.20 비전으로 재건하라, 서울: 기독신문사 출판부). 지속적이고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인격적인 상호 관계 중심의 이러한 소그룹 교육과정이야말로 교회 공동체와 성도 개개인의 발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다양한 대상의 분석 필요

균형잡힌 소그룹 교과과정을 세우는 일은 우선 양육 대상을 정확히 분석하여 양육 체계를 세우고 그 특성에 맞는 교재와 자료들을 선택, 구성하고 인도자들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일로 시작된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수준에 따라 4그룹으로 나누어서 다양한 그룹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구도자라고 할 수 있는 새신자나 불신자들, 전체 교인의 60%를 차지하는 강단 설교만을 청취하는 사람들의 그룹, 전체 교과과정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30% 정도의 언약 그룹과 제자 훈련을 통하여 지도자로 재생산될 10%의 핵심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의 수준과 특성에 맞게 선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다.

영적,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균형잡힌 전인적 교과과정

균형잡힌 소그룹 교과과정은 성경의 교육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

심을 바로 알고 그 가운데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영적 영역에서 균형잡힌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균형잡힌 성장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눅 2:52) 여기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라는 말씀은 정신적 영역과 신체적 영역의 균형잡힌 성장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말씀은 영성과 사회성이 모두 바르게 세워졌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6 다양한 대상에 대한 교과과정

유형	참여대상	교과과정의 특징
새 가족 소그룹 교과과정	교회에 처음 등록한 새 가족	· 교회공동체에 대한 소개 · 믿음의 기초에 대한 소개 · 충분한 자기 소개(history telling)와 교제 형성
헌신자 소그룹 교과과정	30% 이내의 핵심 제자 훈련 그룹 자발적인 언약에 기초함	·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교과과정 ·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성경 연구 과정 · 고도의 헌신을 요구하는 리더십 훈련 · 탄생-성장-성숙-재탄생의 라이프 사이클
직능별 소그룹 교과과정	비슷한 직업 또는 사회적 역할을 가진 사람들	·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분야별 대안 적용 · 경험나누기 & 보살핌과 기도 중심 ex) 40대 자영업자 그룹, 30대 직장인 그룹, 의료인 그룹, 공무원 그룹, 교육자 그룹 등
사역별 소그룹 교과과정	교회에서 같은 봉사 사역을 수행하는 사람들	· 은사 활용과 리더십 훈련 · 경험나누기 & 보살핌과 기도 중심 ex) 주차관리팀, 주방봉사팀, 교회학교 교사모임, 새 가족 지원자팀, 문서선교팀, 당회원 모임 등
협력 회복 소그룹 교과과정	특별한 문제에 부딪혀 있거나 도움과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 자기 소개와 자아발견 & 전문적인 상담 문제해결을 위한 경험 및 정보의 교류 ex) 알코올중독 모임, 독신 모임, 문제자녀 부모들의 모임, 실직자 모임, 임산부 모임 등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본받아 균형잡힌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였다. 그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후반부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1~2)

그는 우리의 정신을 먼저 언급하고(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하면서(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태도와(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영적 관계(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균형잡힌 소그룹 교과과정은 교회 내의 생활이나, 교리적인 연구, 또는 영적인 삶의 과정에 대해서만 다루어서는 부족하다. 동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소그룹이라면, 그 속에서 그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와 방향 제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들의 삶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전인적인 교과과정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나가야 한다.

소그룹의 성장 단계 고려

균형잡힌 소그룹 교과과정은 소그룹이 '탄생, 성장, 재탄생'의 생명주기를 가지고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고 각 시기에 맞게 '교제, 말씀 연구, 전도 혹은 확장'의 소그룹의 3요소를 안배해야 한다. 즉 소그룹이 3요소의 균형

을 각 시기에 맞게 가질 수 있도록 교과과정과 소그룹의 활동 내용을 적절하게 편성하는 것이다(참고 : 생명주기 전략을 다시 기억하라). 소그룹의 생명주기를 전혀 무시한 상황에서 성경 공부 교재에만 초점을 맞추어 소그룹 사역이 계속 진행된다면 소그룹의 건강성은 거의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이 임상을 통한 결과였다.

여기에서는 소그룹하우스 소그룹 성경 공부 시리즈의 교과과정을 통하여 소그룹의 성장 단계를 배려한 교과과정의 구성을 이해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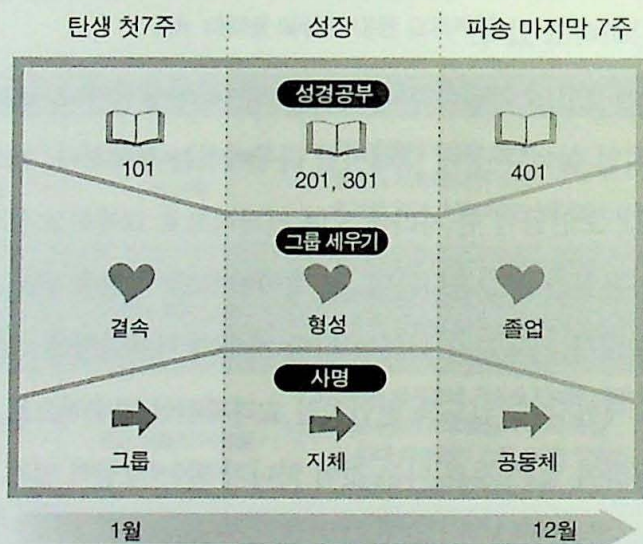



그림 10 그룹의 라이프 사이클

❶ 101 탄생 단계

서로 얼굴을 익히고 자신의 영적 삶의 여정을 나누는 과정이다. 이 과정의 진행 단계를 야구 선수가 내야의 다이아몬드를 돌아 1루, 2루, 3루를 거쳐 홈 베이스로 들어와 득점하게 되는 과정을 통하여 첫 모임에서 서로 서먹하던 사람들이 하나의 그룹이 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 1루 베이스 :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 — 어린 시절, 살아온 날들, 꿈과 희망.

· 2루 베이스 : 서로의 나눔에 대해 감사의 응답을 한다.

· 3루 베이스 : 좀더 깊이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다. — 장애물, 욕망들, 하나님과 그룹 구성원들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부분.

· 홈 베이스 : 공동체로서 결속을 다진다.

101 단계의 성경 공부는 선다형 질문들로 이루어져서 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소그룹하우스 101시리즈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101 시리즈 : 새로운 시작 / 새로운 도전 / 믿음의 기초
- 각 권 5주 과정 / 전체 3권

❷ 201 성장 단계

소그룹에서 가벼운 교제 위주의 성경 공부(101 첫출발시리즈와 같은)와 깊이 있는 성경책별 연구 사이에 다룰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한다. 다양한 관심과 필요에 맞추어 주제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01 시리즈 :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리스도인의 인간 관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훈련받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사회 생활/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 성경/ 그리스도인의 은사/ 남성상/ 남성들의 문제/ 성경의 위대한 남성들/ 여성상/ 여성의 문제들/ 성경의 위대한 여성들/ 결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모의 역할/ 돈/ 스트레스/ 결혼 그 이후/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상처 치유/ 봉사 생활/ 아름다운 노후 생활/ 교회와 예배/ 예수 그리스도/ 교제로의 초대/ 고난의 극복/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라/ 꿈/ 영성과 직업

❸ 301 성숙 단계

좀더 깊이 있는 책별 성경 연구와 영적 훈련으로 들어간다. 여기에는 단계에 따라서 과제 없이 성경 본문을 그룹 토의 방식으로 연구하는 과정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과제를 부여하고 실력 있는 지도자가 깊이 연구하여 지도하는 심화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301 시리즈 : 창세기/ 출애굽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느헤미아/ 룻기/ 다니엘/ 호세아/ 마태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서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계시록

❹ 401 재탄생 과정

세 단계를 모두 거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소그룹을 위한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소그룹은 이미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었으며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의 은사를 발견함으로써 서로를 도울 수 있고, 그들의 영적 여정의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다. 성숙한 세포가 분열하여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것처럼 이 과정을 통하여 각 구성원들을 새로운 리더로서 훈련시키고 또 하나의 소그룹의 생명을 재탄생시키는 과정이다.

· 졸업 : 새로운 자립과 생산을 위한 리더 훈련

· 401시리즈 : 새로운 소그룹을 탄생시키라/ 이렇게 인도하라/ 이렇게 섬기라

소그룹 성경 공부 커리큘럼 구성의 실제

1) 소그룹하우스 모델

소그룹하우스 모델은 학기별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소그룹하우스 모델은 아래와 같이 3가지 타입의 소그룹을 형성하여 학기별로 진행하며 다양한 주제의 성경 공부 교재를 그룹의 필요에 맞게 선정할 수 있다.

표7 소그룹하우스 성경 공부 커리큘럼 구성의 예

	A-Type	B-Type	C-Type
소그룹 Type	구원의 확신이 있고 지속적인 성숙을 원하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소그룹	교회는 오래 다녔으나 구원의 감격이 없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소그룹	교회에 처음 나온 구성원이 많거나 초신자들로 이루어진 소그룹
부르심 단계 (4-8주)	새로운 시작 /믿음의 기초/ 새로운 도전 (중 택일)	새로운 시작/ 믿음의 기초/ 새로운 도전 (중 택일)	새로운 시작/ 믿음의 기초 /새로운 도전 (중 택일)
성숙 단계 (12-16주)	그리스도인의 인간 관계/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 균형잡힌 삶/ 은사와 소명/ 스트레스 탈출/ 관계회복/ 영적 전쟁 (중 택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자화상/ 가치관/ 균형 잡힌 삶 (중 택일)	믿음의 여인들/ 남성들의 전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중 택일)
심화 단계 (8-10주)	빌립보서/에베소/로마서/비유들 (중 택일)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 복음서	로마서/ 베드로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적들 (중 택일)
보내심 단계 (6주)	새로운 소그룹을 탄생시키라	새로운 소그룹을 탄생시키라	새로운 소그룹을 탄생시키라

학기별 진행이며 한 사람이 리더로 서기까지는 개인차에 따라 1학기가 될 수도 있고, 7학기가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성장하여 새로운 소그룹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새로운 그룹의 리더로 분리하지 못하고 학기를 더 진행해야 하는 사람들은 별도의 그룹을 형성하여 성숙 단계와 심화 단계를 계속반으로 진행한다.

2) 영광성결교회 모델

영광성결교회의 소그룹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병성 목사는 아래와 같이 교회의 소그룹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시행해 왔다. 아래의 글은 이병성 목사가 직접 작성하여 보내준 글이다.

그룹 구성원들 간의 친밀감과 깊이 있는 성경 연구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가? 구성원의 성숙도와 진행 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영광교회에서는 2년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리더를 세우기 위한 후속 과정도 진행하고 있다. 아래 도표는 2년을 생명주기로 한 영광교회 소그룹의 진행과정이다.

표8 영광성결교회 커리큘럼

단계	101	201				301
1년차	3월	4~5월	6월	7~8월	9~10월	11~12월
주	4주	8주	5주	8주	8주	8주
교재	새로운 시작 (소그룹하우스)	그리스도인의 성품 (소그룹하우스)	그리스도인의 확신 (네비게이토)	여름방학 과제 (도서,신약1독)	그리스도인의 인간 관계 (소그룹하우스)	빌립보서 (소그룹하우스)

단계	301			401			
2년차	1월	2~3월	4~5월	6~7월	8월	9월	10~11월
주	4주	8주	8주	8주	4주	4주	8주
교재	겨울방학 과제 (도서,구약1독)	그리스도인의 생활지침 (네비게이토)	에베소서 (소그룹하우스)	신약개관 (프리셉트)	여름방학 과제 (소그룹교재분석)	재탄생을 축하합니다 (소그룹하우스)	신약개관 (프리셉트)

영광교회에서는 3월에 청지기 개강예배를 통해 각 훈련영역들(바나바사역, 전도폭발, 소그룹하우스 성경 공부, 인물별 성경 연구, 주제별 성경 연구)이 일제히 시작된다. 소그룹하우스 소그룹도 남성과 여성반으로 구분하여 3월에 시작된다. 2년

후에 그룹을 재편성하지만, 단계마다 재편성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간에 진행하고 있는 그룹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구성원들의 허락이 있으면 3단계 초기까지는 참여할 수 있다.

101단계에서 그룹을 세우기 위해서 교제를 중심으로 삼고, 201단계와 301단계에서는 각각 소그룹하우스에서 발생한 교재 2권과 타 기관의 교재 1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명확하게 해답을 주어 체계화시키는 단답식 교재의 장점을 이용한 것이다. 401단계에서는 리더들에게 성서의 맥을 이해하기 위한 성서개관과 재탄생을 위한 교재로 구성된다.

방학 기간에는 성경을 1년에 1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소그룹에 관련된 서적을 선정하여 읽기도 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제자 훈련 교재를 나름대로 분석하여 발표하게 한다. 그리고 각 단계를 마칠 때마다 음식을 통한 교제를 나누고 1개월마다 한 교회를 선정하여 탐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우리 교회의 소그룹의 강점은 구성원들이 소그룹목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세미나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그룹목회연구원의 철학과 비전을 이해해지 못하면 교재의 특성과 진행 과정에서의 장, 단점을 구성원이나 리더가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리더는 필수적으로 세미나를 수료해야 한다. 또한, 소그룹목회연구원의 전문강사를 초청해 정기적으로 강의를 듣고 있다. 이는 소그룹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소그룹 구성원들에게는 계속적인 훈련의 기회가 되고 있다.

본인은 개 교회의 특성과 성숙에 맞게 소그룹목회연구원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교재를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구성한다면 적지 않은 효과를 얻으리라 확신한다.

인격적 대화에 적합한 4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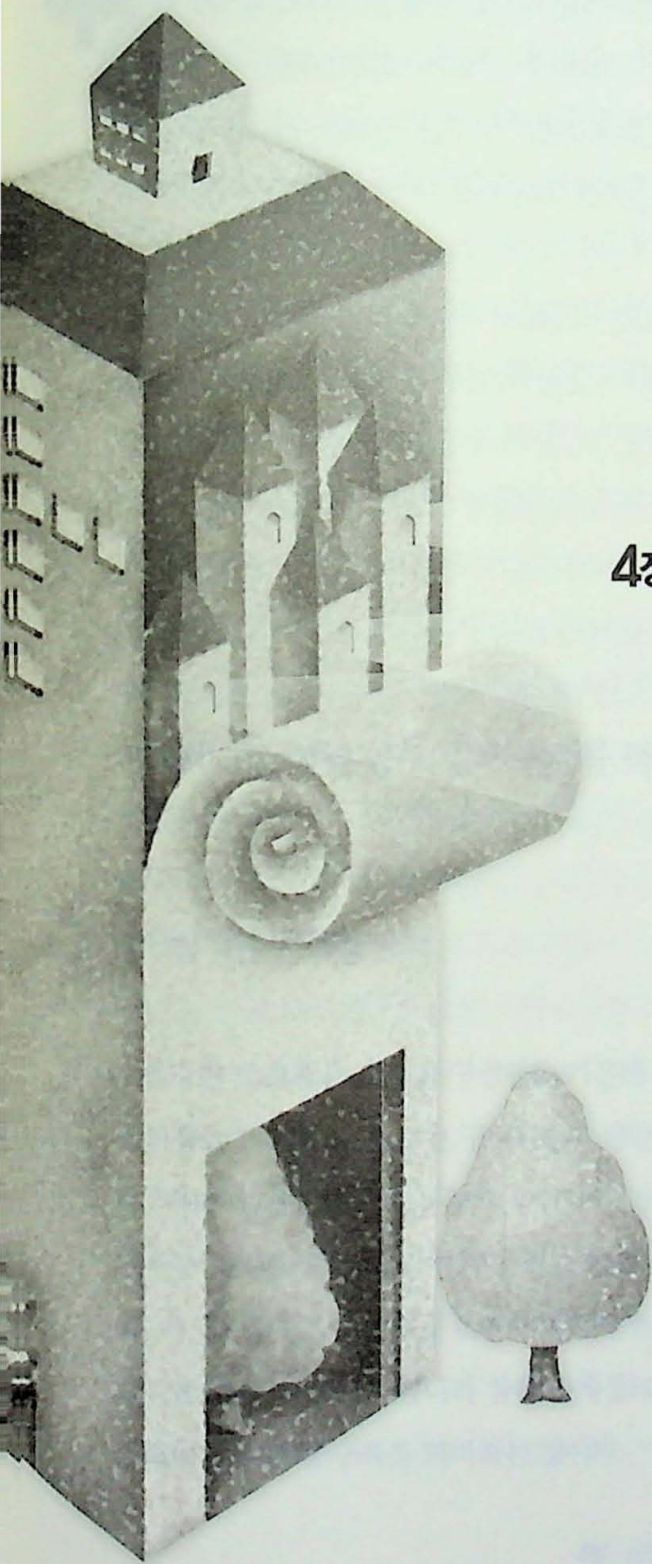
균형잡힌 소그룹 교과과정은 건강한 소그룹의 3요소인 교제, 성경 연구, 전도와 확장을 고르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전체적인 소그룹의 성장주기에서 뿐만 아니라 매번 진행되는 각 과에서도 적절히 단계를 이루어야 한다. 일반적인 학습 이론에서는 하나의 교안을 구성할 때에 '학습목표 - 학습 내용 - 적용과 평가' 로 수업 진행을 구성한다. 최근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 귀납법적 성경 연구의 방법론에서는 성경 공부의 단계를 '관찰 - 해석 - 적용' 의 3단계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소그룹의 특징을 극대화하는 성경 공부 교과과정에서는 인격적 대화에 적합한 4단계의 구성이 필요하다.

우선 각 과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일은 별도의 언급이 필요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정확한 목표는 이번 모임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많은 성경 공부 인도자들이 이 목표에 대한 인식을 소홀히 함으로써 한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함으로써 소그룹을 산만하게 이끌고 참가자들을 금세 질리게 만드는 오류를 범한다.

목표 설정 이후의 구성 단계는 '마음열기 - 말씀나눔 - 적용과 마무리(보살핌)' 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3단계로 보이지만 본문 연구를 '이야기 관찰' 과 '나의 이야기' 라는 두 단계로 나누면 4단계가 된다. 소그룹 성경 공부에 있어서 대그룹 강의나 일 대 일 성경공부에서보다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은 바로 '마음열기' 이다. 이것은 'Crowd break' 또는 'Ice break' 라는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서로에 대하여 서먹하고 닫혀 있는 분위기를 깨뜨리고 대화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자연스럽게 그 날의 주제에 대해 관심

을 갖도록 이끌어주는 방법적 과정들이다. 여기에는 간단한 게임을 진행하거나 공통의 관심사(날씨, 스포츠 등)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의사소통을 위한 인간 관계 훈련의 방법을 도입할 수도 있다. 특히 소그룹의 첫 출발 단계에서는 자기 자신의 인격적 특징과 지나간 삶의 여정을 소개할 수 있는 대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음열기'의 다음 단계는 귀납적 성경 연구의 '관찰 - 해석'에 해당하는 성경 본문 연구의 과정이다. 이 과정은 '이야기 관찰'의 단계와 '나의 이야기'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야기 관찰'의 단계는 우선 성경 본문의 맥락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물음을 통하여 학습자가 수천 년 전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 그 주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과정이다. 101이나 201단계에서는 성경 본문을 읽고 그에 대한 간략한 맥락만을 소개한 다음 성경을 상황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몇 가지 질문을 나눔으로써 이 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301심화 과정의 단계에서는 성경 본문에 대한 보다 상세한 주석적 해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의 이야기' 단계에서는 성경 본문의 상황에 나의 입장과 견해를 대비시켜서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스스로 성경 공부 전체 주제에 대한 해답을 찾도록 하는 과정이다.

마지막 단계는 '보살핌'의 시간이다. 이것은 공부한 주제를 자신의 삶에 적용시킬 뿐만 아니라 서로의 필요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영적인 공동체로서 하나됨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다. 또한 공부를 통하여 도달한 결론을 가지고 사역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화하는 방향 제시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보살핌'의 시간은 '나눔 - 기도 - 활동'의 과정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4장 | 건강한 소그룹 성경 공부, 이렇게 인도하라

효과적인 성경 공부 인도 원리를 적용하라

예상되는 문제점

건강한 소그룹은 소그룹 구성원들 가운데 그 누구도 모임에 참석했을 때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모든 구성원들이 평안함과 소속감을 느낄 때 가능하다. 따라서 건강한 소그룹을 지향한다면 탄생 시기에 소그룹을 견고하게 세우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즉, 교제와 보살핌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성경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관계성의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나가는 토대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다.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의 견고한 그룹이 되는 방법은 자신의 영적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다. 따라서 소그룹 성경 공부는 개인 성경 연구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고, 소그룹에서의 학습 방법은 귀납적 성경 연구의 세 가지 원리인 관찰, 해석, 적용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실제로 교회 내에서 몇몇 뜻있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해보자.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돌파구로 생각한 것이 기독교 서점에 가서 점원에게 좋은 성경 공부 교재가 있는지를 묻거나 매장에 진열된 교재들을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것들을 구입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모든 종류의 주석이 들어 있는 큰 성경책을 샀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고안된 소책자들을 샀다. 그러나 사실 소책자들은 혼자 방 안에 앉아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고안된 것들이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그룹으로 모여 성경을 공부하기를 원한다. 그룹 성경 공부와 개인 성경 공부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 이들은 그 차이점을 몰랐던 것이다. 몇 주가 지난 후에 소그룹의 운영은 실패했고, 그 후 이들은 신앙 생활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 그룹을 운영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은 실패작이었다고 말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까?

놀이터 철학

해결책이 간단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놀이터 철학'에 입각해서 모임

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코 소외되지 않도록 소그룹을 운영해 나간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어린이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따돌림 없이 자기 역량에 맞추어서 즐겁게 노는 것을 연상해 보면 '놀이터 철학' 의 의미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성령님께 대하여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에 관하여 개방되어 있는 환경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놀이터의 수준 조절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놀이터의 수준은 어느 누구도 혜택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다.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특히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임 속에 있으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놀이터 철학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데 있어서 생기는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고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소그룹의 인도자들이 이러한 원리들을 배우고 적용하는 것은 건강한 소그룹을 이루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소그룹의 멤버들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는 수준을 넘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개발하는 깊이 있는 수준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놀이터 철학에 입각한 다음과 같은 원리들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어린아이처럼 시작하라.

소그룹 모임을 시작할 때 각 사람들에게 재미있고 유쾌하게 접근하는 것은 소그룹의 분위기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점이다. 모든 구성원들이 호기심과 적극성을 가지고 시작할 때 모임의 분위기는 그 후의 프로그램을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밝은 대화의 물꼬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참가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호기심과 흥분에 가득 차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마음의 벽을 허물기 위한 게임들은, 얼음장과 같은 마음을 녹이는 과정이라고 해서 일명 '마음열기(Ice Break)' 라고 일컫기도 한다. 이것은 치밀한 준비가 없으면 자칫 우스꽝스런 해프닝으로 끝나 버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잘 준비된 게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게 되고 각 구성원들이 하나로 연대되는 귀한 시간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둘째, 개인 성경 공부가 아닌 그룹 성경 공부임을 명심하라.

소그룹 인도자와 참석자들은 모두 그룹 성경 공부의 차원은 개인 성경 공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룹 성경 공부와 개인 성경 공부는 벌써 목적에서 차이가 난다. 특히 영적으로 보다 성숙하지 않은 초신자들이 소그룹의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초신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소그룹 성경 공부의 목적은 '견고한 그룹이 되는 것' 이다. 그러면 어떻게 견고한 소그룹이 될 수 있는가? 비결은 영적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다. 영적 이야기를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것은 두려운 것이다. 그러나 영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 처음에는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영적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할 수 있다면 한결 쉬울 것이다. 즉 '자신의 이야기' 를 성경에 있는 비유나 사건 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비교해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게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야기를 드러내는 척도' 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 이야기를 드러내는 척도

· 위험도가 낮은 이야기부터 시작 ➜ 위험도가 높은 이야기로 맺음

· 성경에 있는 이야기 ➡ 나 자신의 이야기

·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난 방법 ➡ 내가 하나님을 만난 방법

· 베드로의 삶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인가?

➡ 나의 삶에 일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셋째, 강요하지 않는 질문을 하라.

소그룹의 참가자들이 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느낌이나 인상을 묻는, 결론이 열려 있는 질문이다. 열린 질문은 선택과 관찰, 그리고 그 누구도 맞거나 틀린 주장이 있음을 판단하도록 해서 더 이상의 이야기가 진전되는 것을 막아버리는 낭패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정답이나 오답이 없는 것이다. 단순히 '예' 나 '아니오' 라고 대답할 수 없고 자신의 느낌들을 자유롭게 참가자들과 주고받을 수 있는 질문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이런 유형의 질문을 마태복음 16:13~17, 21~26에 있는 베드로의 신앙고백과 관련한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경우 닫힌 질문과 결론이 열려 있는 질문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닫힌 질문

· 질문 :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 답(24절 참조) :

●결론이 열린 질문

· 질문 :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24절)고 말씀하

신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답 :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그룹 성경 공부 시에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린 대다수의 원인은 성경 공부 교재가 항상 정답만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결론이 열려 있는 질문은 효과적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강요하지 않는 질문의 유형은 오른쪽 뇌를 이용하는 질문들이다. 오른쪽 뇌를 이용하는 질문은 분석적인 대답을 하도록 하는 왼쪽 뇌를 이용하는 질문들보다 대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창조하는 작용을 한다. 오른쪽 뇌는 사람들이 음색, 절감, 색감 등에 관해 지니고 있는 '주관적인' 느낌을 발견하도록 한다. 오른쪽 뇌를 이용하는 질문들은 특별히 대화에 참석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서술적인 대답과 이야기들을 이끌어내는데 효과가 있다. 이런 질문의 예를 누가복음 18:9~14에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에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질문 : 당신은 이 이야기 속의 바리새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답 : ① 주먹으로 코를 한 방 때리고 싶은 심정이다.

② 그의 말이 옳다.

③ 내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다.

④ 그에 대해서 유감스러울 뿐이다.

(이 외에도 많은 유형의 대답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오른쪽 뇌의 자극을 받은 질문은 특히 그 상황에서 토론을 나누기에 적

합한 설화체 이야기(Narrative Story)를 나누는 데 적절할 것이다. 세 번째로 강요하지 않는 질문의 유형은 복수선택 선다형 질문이다. 복수선택 선다형 질문들은 성경에 관해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정답을 골라야 한다는 부담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복수선택 가능한 선다형 질문들을 대할 때, 성경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는 젊은 크리스천들은 부담과 강요를 느끼지 않으며 내성적인 사람들도 조바심과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실례로 누가복음 18:9~14에 있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복수 선다형 성경 공부 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질문 : 당신은 왜 세리가 겸손한 자세로 기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답 : ① 그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다.

② 그는 동정 받기를 원했다.

③ 그는 열등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다.

④ 그는 하나님께 흥정을 벌이고 있었다.

⑤ 그는 자신을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이런 질문이 수록된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면 성경 공부가 너무 쉽고 가볍다는 인상은 지울 수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누구도 부담감을 가지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지는 않게 될 것이 틀림없다.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참석하고 있다면 이런 배려는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 자신도 이 성경 공부 모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넷째, 다양한 소재로 이야기를 나누라.

새로운 소그룹이 출범하고 서로 깊이 사귀지 못하는 사람들이 둘러 앉아 있을 때 소그룹 구성원들은 모두 서먹한 감정을 가지고 거리감을 유지하게 된다. 이 때 다양한 소재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그 이후 소그룹 내에서의 나눔과 학습은 쉽게 진행될 수 있다. 날씨나 스포츠 등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이 배움과 가르침의 효율을 높여 주고 소그룹의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실례로 날씨와 같은 이야기로 소그룹을 이끈다고 생각해 보라!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참가자들은 쉽게 자신의 마음을 열 수 있고, 자신의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 그리고 이후에 개인적인 적용을 통하여 더욱 깊은 영적 교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마도 이런 아이디어는 실생활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집에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입을 잘 열지 않는 수험생 자녀에게나 경직된 상황의 부부들 같은 경우 "오늘 하루 당신의 상태를 날씨로 표현한다면?"이라고 묻는다면 훨씬 더 부드럽게 분위기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례들은 보다 부지런한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발견할 수 있고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소그룹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에피소드와 관련하여 나눔을 가지고 그 다음 더 깊은 영적 차원으로 이어 가는 것은 소그룹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는데 좋은 도구인 것이다. 특별히 이런 일상성에 관련하여 다양한 소재로 말씀을 나누시므로 참석자들에게 친근히 다가가신 분의 전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계획성 있게 잘 짜여진 활동을 유지하라.

효과적인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계획을 치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점이다. 계획을 가지고 잘 짜여진 활동은 좋은 모임을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소그룹에서 시행할 게임 한 가지나 그에 필요한 환경에 대한 고려나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위한 자료의 준비 등 여러 측면들에 대한 세심한 준비는 건강한 소그룹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다. 결국 잘 짜여진 환경을 창조함으로써 인도자는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과정에 집중하게 되고, 그룹의 구성원들을 위하여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잘 짜여지고 긴장감 있는 구성은 진행되는 일들을 잘 조절해서 참가자들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하고, 기본 규칙이나 시간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게 될 것이다.

여섯째, 소그룹의 인원수를 잘 조절하고 안배하라.

원활한 토론과 나눔을 위해서는 열 명이나 열두 명으로 모이는 것보다 네 명이나 일곱 명으로 모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특별히 깊이 있는 성경 연구를 위해서라면 인원수를 적절하게 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상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아주 깊이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눔을 위해 적절한 인원수는 네 명 정도가 이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할 때 보다 친밀한 작은 모임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야기할 시간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다면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할 경우에 7명 정도가 하나의 소그룹이라면 4명, 3명으로 각각 나누어 한 그룹은 인도자가 다른 한 그룹은 보조인도자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일곱째, 사람들의 개성과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 긍정하라.

어쩌면 이것이 건강한 소그룹을 인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일 것이다. 소그룹이 견고한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새롭게 출발할 때, 그리고 소그룹에 참가하는 각 개인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할 때, 서로 숨기는 것 없이 나눈 것들에 대하여 긍정하는 것은 소그룹의 생명과도 같이 중요한 것이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이 소그룹의 규칙이다. 참가자들이 나눈 이야기에 감사함으로써 그리고 각자의 요청할 기도 제목에 대해 물음으로써 사람들의 개성과 그들의 이야기를 긍정하라.

(부록 1 에 위와 같은 개념으로 구성된 성경 공부 교재의 샘플을 수록하였다.)

소그룹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벗어나라

네 가지의 오류

많은 소그룹 지도자들이 소그룹에 대하여 아래의 네 가지 잘못된 개념들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자신도 역시 이러한 오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라.

· **오류 ❶ 소그룹을 시작할 때 10명에서 12명의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 가장 시작하기 좋은 규모는 그룹 속에서 성장하려는 세 사람 내지 네 사람이다. '작게' 시작하고 하나님께 '빈자리'를 채워주실 것을 기

도하라.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보라.

· 오류 ❷ 소그룹을 인도하는 데는 많은 기술이 요구된다.

역시 옳지 않은 생각이다. 세 부분의 잘 짜여진 활동을 연결시키면 거의 누구나 하나의 그룹을 인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특별한 협력과 회복 그룹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술들이 요구된다. 그러나 전형적인 성경 공부와 보살핌의 그룹은 뜨거운 열정과 비전을 가지면 누구나 인도할 수 있다.

· 오류 ❸ 비밀 유지를 위하여 첫 과가 지난 다음에는 문을 닫아 둔다.

특별한 고난도 그룹들을 위해서는 그렇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필요로 하는 평균적인 성경 공부와 보살핌의 그룹에서는 "그룹 안에서 이야기한 것을 그룹 밖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세우고 지키면 된다.

· 오류 ❹ 그룹이 오래 지속될수록 더 나은 결과를 얻는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효과적인 소그룹을 위한 종모양의 곡선은 일반적으로 2년째에 정점에 이른다. 새생명이 그룹에 인도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룹은 생명력이 감퇴하게 된다. 탈진 상태의 위험 수위로 달려가는 것보다는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룹을 해체하고 새로운 그룹을 결성하는 것이 좋다.

소그룹의 문제들, 이렇게 진단하라

소그룹에 속하는 것이 부담스러운가?

· **증상** : 소그룹이라는 말을 들으면 곤혹스러운가? 당신 차례가 되어 이야기하려고 하면 입이 안 떨어지는가? 기도할 때도 그런가?

· **처방** : 당신이 소그룹에 속할 준비가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 테스트를 해보라. 아래의 열 가지 항목 중 일곱 개에 '그렇다' 라고 답했다면 당신은 소그룹에 뛰어들 준비가 된 것이다.

❶ 현재 당신은 삶 속에서 생기는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곳을 찾고 있는가? □그렇다 □아니다

❷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 삶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 있는가? □그렇다 □아니다

❸ 당신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는 근원으로써의 성경에 대해 마음이 열려 있는가? □그렇다 □아니다

❹ 당신은 당신 자신이 성경에 대한 모든 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나 당신의 삶 자체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그렇다 □아니다

❺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해 질문거리들을 갖도록 할 수 있는가? □그렇다 □아니다

❻ 당신은 소그룹 내에서 '탕자'로 꼽히고 영적 믿음을 얻기 위해 갈 길이 먼 사람들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렇다 □아니다

❼ 당신은 소그룹 내에서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에 대하여 절대로 비밀을 지킬 수 있는가? □그렇다 □아니다

❽ 당신은 그룹 사람들과 책임을 나누고 기도로써 그들을 기꺼이 도울 마음이 있는가? □그렇다 □아니다

❾ 당신은 함께 공부하는 이 기간(6~12주) 동안 모임에 우선권을 둘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시간 이후의 장기간의 헌신에 대해 생각하는가? □그렇다 □아니다

❿ 당신은 당신의 삶을 다르게 만들 소그룹 생활의 가능성에 대해 흥미를 느끼는가? □그렇다 □아니다

당신의 목적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는가?

· 증상 : 당신은 규칙이 전혀 없는 팀에서 뛰고 있는 것 같은가? 어떤 방향이나 성취하고자 하는 이상이 전혀 없는 팀에 속해 있다고 느

껴지는가?

· **처방** :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은 모임의 목적과 규칙과 기대 등을 명시한 '언약'을 정해야 한다. 잠시 시간을 내어 함께 계약을 맺으라. 여기에 방법이 나와 있다. 아래의 문장들을 각자 완성하도록 하라. 그런 후에 의견을 수렴하여 모두가 동의하는 규칙을 정하라. 이것이 경기 계획이 될 것이다.

❶ 우리 모임의 목적은…

❷ 우리의 특별한 목표들은…

❸ 우리는 ___주 동안 ___번 만날 것이며, 그 후 우리 모임을 평가할 것이다.

❹ 우리는 ____요일 ____시에서 ____시까지 모일 것이다.

❺ 우리는_____ 에서 모일 것이다. 혹은 만나는 장소를 계속 바꿀 것이다.

❻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는 _____도 할 것이다.

❼ 우리는 다음의 기본 규칙들을 지킬 것이다.

· 모임의 인도자는 _____ 이며, 혹은 돌아가면서 인도자의 역할을 맡을 것이다. (인도자 외에) 우리 모임 내의 작은 소그룹을 인도하는 사람은 ______ 이며, 혹은 이 책임을 돌아가면서 맡을 것이다.

· 간식/휴식 시간은…

· 아이를 보는 문제 등은…

❽ 이 일반적인 규칙들에 덧붙여 우리는 다음 규칙에 동의할 것이다.

· 출석 : 이 모임에 우선 순위를 둔다.

· 참가 : 사람들과 책임을 나누어 갖는다.

· 비밀유지 : 은밀히 말해진 것은 어떤 것이라도 발설하지 않는다.

· 책임 : 스스로 정한 목표에 책임을 진다.

· 접근 :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한밤중일지라도) 언제라도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가?

· **증상** : 당신의 모임은 추운 날 아침의 고물 승용차와 같이 출발했는가? 혹은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늘 분위기가 푹 가라앉았는가? 당신이 보기에 몇몇 사람들만 내내 말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가?

· **처방** : 성경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토의를 잘 이끌기 위해 질문들을 사용하라. 이 질문들은 세 단계의 나눔 시간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 만든 것이다.

❶ 도입 / 10-15분

당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나 누구나 관심을 가질만한 경험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하라. 이 단계에서의 '이야기'가 좋을수록 사람들과 더 깊이 있게 나눌 수 있을 것이다('어린아이 같음'과 '예수님 같음'에는 밀접한 유사성이 있다.).

1. 당신은 의기소침해 있을 때 무엇으로 기분을 상승시키는가?

2. 당신은 어떻게 웃는가? 조용히 미소를 짓는가?

❷ 말씀나눔 / 30-40분

이 단계에서 성경 본문을 읽고, 대답과 관련되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첫 질문부터 답하라. 이 질문들은 사람들이 관찰과 해석을 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이것을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 이라고 부른다). 그렇다고 모든 질문에 답을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적용'의 시간을 남겨 두라.

사태가(그가 옥에 갇혔을 경우) 좋아지거나 나빠졌을 때 바울은 어떻게 할 것 같은가? 또 그의 모범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격려가 될 수 있겠는가?

❸ 적용 / 15-30분

이것은 성경 공부의 핵심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자신의 삶을 조목조목 살펴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다. 이 질문들은 '위험 수준' 이 높다. 즉 사람들은 기도하기 전에 '필요성의 차원'에서 나눌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____________이니라."

이번 주 당신의 우선 순위와 일정을 생각하며, 이 빈칸을 정직하게 채워 보라.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 때문에 모임에서 두려움을 느끼는가?

· **증상** : 당신은 성경에 대한 무지로 당황스러워질까 봐 두려운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멜기세덱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답하겠는가? 만일 당신이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다. 너무나 틀린 답이다.

· **처방** : 그러나 절망하지 말라. 모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 답을 모를 것이다. 그리고 몰라도 괜찮다. 이 성경 공부는 초보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보자들을 위한 '해설'을 준비해서,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해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 중요한 단어의 정리
· 역사적 배경: 본문 단어를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
· 지리적 배경: 지형, 호수, 농작물, 길, 성지 등에 관한 사실
· 문화적 조망: 생활 양식, 가정, 관습, 특정 절기, 전통, 그 사회의 특정 양식 등
· 고고학적 증거: 성경의 사건을 밝혀 주는 최근의 발견들
· 요약/주석: 해당 구절을 책 전체의 문맥에서 볼 수 있게 논증을 다시 거론함

모임을 당신 위주로 끌고 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가?

· **증상** : 두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다. (1)만일 어떤 사람을 우리 모임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친밀함'이 깨어질 것이고 (2) 어떤 사람을 우리 모임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서

로 충분히 나눌 시간을 갖지 못할 것이다.

· **처방** : 예수님의 사역과 초대교회에 대해 공부하면서, '친밀함'의 필요성과 '폐쇄성'의 위험에 대해 살펴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우리끼리 지내자' 그러기 위해 '초막'을 짓자고 요구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마가복음 9:2~13에 나오는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말씀을 주목하라.

· **치료1** : 모임이 끝나면 빈 의자를 놓고서, '다음 주에는 이 의자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라.

· **치료2** : 모임의 구성원이 7~8명이 되면, 각각 4명씩 나누어 앉으라. 매주 모임 시간을 그런 체제로 만들어 전체 모임을 유지하면서 조별 토의 시간도 마련하라.

이 모임이 지겹게 느껴지는가?

· **증상** : 당신은 모임이 시작하기도 전에 '지겹다'고 느낀다. 그리고 모임이 끝나면 이 증상이 더욱 악화된다. 나눔의 시간은 대부분 '실족케 되기 쉬운' 시간이 된다. 어떤 사람은 3주 연달아 결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상습적으로 늦는다. 당신이 이 시간에 다른 것을 하면 더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다.

· **처방** : 당신은 이제 모임의 '중반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세 가지 제안이 있다.

❶ 성경 공부를 잠시 중단하고 여러분이 약속했던 언약을 평가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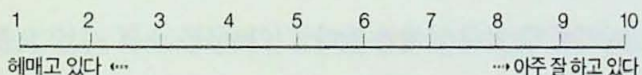
처음의 목적과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당신은 규칙을 지키고 있는가? 규칙들 중에서 어떤 것을 폐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아무도 당신이 그럴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❷ 건전한 소그룹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측면(양육/성경 공부, 교제와 협력, 확장/봉사)에서 여러분의 모임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해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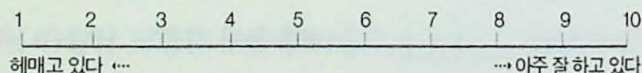
여기에 시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다음 세 항목에서 여러분의 모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선택하여 동그라미를 치라.

· 양육/성경 공부 : 성경을 아는 것,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 삶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시게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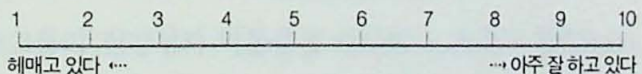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헤매고 있다 ←⋯ ⋯→ 아주 잘 하고 있다

· 교제와 협력 : 서로 알아 가는 것, 서로 돌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최상의 것에 서로 책임지도록 하는 것.

1 2 3 4 5 6 7 8 9 10

헤매고 있다 ←⋯ ⋯→ 아주 잘 하고 있다

· 확장/봉사 : 곤궁에 빠진 사람 돕기, 사람들을 모임으로 받아들이거나 다른 모임 후원하기.

1 2 3 4 5 6 7 8 9 10

헤매고 있다 ←⋯ ⋯→ 아주 잘 하고 있다

❸ 하나님이 모임을 끝낼 시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라. 자연스럽게 모임이 각자에게 어떠했는지(무엇을 의미했는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라.

당신은 어떤 것을 더 해보고 싶다는 갈망이 있는가?

· **증상** : 단지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 지겹게 느껴지는가? 당신 주위에는 지금 상처 받고 갈등을 겪고 있는 동료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고 계신 것 같으나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 **처방** :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임을 분리하여 새로운 모임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계실 수 있다.

여기에 몇 가지 단계가 있다.

❶ 함께 멋진 생각들을 떠올려 아래 첫 문장을 완성하고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 가라.

나는 __________ 그룹(예를 들어 미혼모, 남편이나 아내가 없는 사람들, 젊은 연인들, 외로운 노인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나는 우리가 __________________ 하길 바란다.

나는 기꺼이 ____________ 할 것이다.

❷ 당신이 식사에 초대하여 '성경 공부 모임의 의미'를 설명할 만한 사람들(교회 주변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자.

❸ 당신이 직접 쓴 초대장을 이들에게 보내어, 집으로 초대하라(교회 게시판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 아무도 읽지 않는다).

소그룹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 이렇게 해결하라

문제와 해결책

생명을 가진 존재가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교회만큼 생명적 유기체로 간주될 만한 것이 없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최소 공동체인 소그룹만큼 생명체로서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 없다. 굳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신학적 교회론을 진술하지 않더라도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논한다고 할 때, 이미 교회는 생명체로 간주되는 것이다. 무생물을 향해서는 결코 성장과 성숙을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회를 구성하는 최소 공동체인 소그룹의 건강성을 따지면서 탄생과 성장, 그리고 새로운 소그룹의 재탄생이라는 라이프 사이클(life-cycle)을 이해한다면 소그룹 역시 생명적 유기체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소그룹의 건강성과 역동성을 바라며 소그룹의 웰빙(well-being)이라는 과제를 짚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그런데 소그룹이 문자 그대로 웰빙해서(잘? 살아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면 좋겠지만 소그룹 내에서 소위 성장통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점이

다. 고질적인 수다쟁이나 논쟁을 좋아하는 멤버가 있어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매시간 맺어야 할 결론도 맺지 못하고 결국 옆길로 새서 허망하게 모임을 마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구성원들의 성품들이 너무 조용해서 리더 혼자서만 떠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인격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멤버나 뒤에서 수군대기 좋아하는 구성원 때문에 소그룹 전체가 갈등하다가 아예 모임 자체가 깨져 버리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어쨌든 생명체이기 때문에 소그룹이 성장과 성숙을 향해 전진하기 위해 직면하는 구체적인 문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문제들과 그 해결책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임이 활기를 잃고 탈락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할 때

소그룹 사역에서 정말로 어려운 것은 피로감이다. 소그룹 모임이 매주 계속되는 과정에서 흥미는 점점 떨어지고, 출석률 역시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구성원들은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들이 함께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목표 의식을 상실한 것이다. 이런 경우 소그룹의 전체적인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아무도 비전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그 소그룹에 목적이 없고, 끝마치는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그룹의 생명주기를 전체적으로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구성원들이 모임이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장거리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언약을 맺고 그룹을 위한 기본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신들이 서로의 팀워크를 견고하게 해야 할 탄생 시기에 놓여있는지, 아니면 보다 심도 깊은 말씀 공부를 통해 성장을 향해 줄달음쳐야 할 시기인지, 그것도 아니면 함께 공부를 하는 정적인 모임보다는 교회나 지

역 사회가 요청하는 봉사의 영역에 구체적으로 헌신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이 재탄생과 확장이라는 임무가 자신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건강한 부부에게는 자연스러운 사랑의 열매로 자녀가 주어지는 축복이 있게 마련이다. 건강한 소그룹 역시 그 자연스러운 귀결점은 새생명을 탄생시키는 데 있다.

자기들끼리만 얽매여 있는 그룹은 지쳐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한 주 정도는 아예 성경 공부하는 것을 멈추고 소그룹 구성원들이 함께 맺었던 언약들을 재협상하는 것이 좋다. 만약 소그룹을 시작할 때 언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더욱 이 작업은 필요하다. 만약 멤버들이 언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파티'를 열고 모임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승리를 위해 출발하는 것임을 선언하고 모임을 종결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일이다. 함께하는 관계를 포기할 줄 아는 그룹은 오히려 새로운 측면에서 만나는 것을 통해 결과론적으로 더욱 많은 영적 자녀들을 낳고 그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그룹을 지속성 있고 역동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비전 제시의 영역은 담임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며, 소그룹에 끊임없이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사역팀이 있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특정한 사람이 특수한 주제로 모임 전체를 좌우하려고 할 때

한 사람이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자녀 문제와 같은 자기 문제들로 모임 전체의 분위기를 흔들어 놓는다. 또, 한번 마이크를 잡으면 놓지 않는 말꾼들도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 간단한 해결 방법은 질문을 던질 때마다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다. 예를 들면 질문을 한 후에 "이 질문과 관련하여 한 분이 2분씩 사용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덧붙인다면 대답 중간에 말을 끊어도 큰 실례는 아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모임이 끝난 후에 그 사람에게 소그룹의 목적 등 '기본 규칙들' 을 재확인시켜 주고 다음 순서를 진행해야 함을 말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 사람이 끝까지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으면 교회의 소그룹 관리자에게 모임에 참석해서 문제를 관찰해 줄 것을 부탁한다.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람을 특별한 주제를 다루는 소그룹에 옮기게 할 것인지를 관리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교회 내에는 특수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협력하고 그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협력과 회복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소그룹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별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문제 해결 중심의 성경 공부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말하기 어려운 특수한 문제를 다루거나, 나누는 이야기들 속에 비밀이 새어나가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때

소그룹 멤버 가운데 특별한 상처로 인해 회복이나 치유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 멤버가 당면한 문제를 다루고 그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곤혹스러운 문제임에 틀림없다. 이 때 제일 중요한 자세는 '당연한 요청' 을 받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지나치게 거친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있다면 거친 자녀를 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임을 비공개로 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데 비공개로 모일 경우에는 진행 과정을 미리 염두에 두고 날짜를 정해야

한다. 특히 모임이 절대적인 비밀 유지를 요구하는 민감한 문제를 다룬다면, 구성원들로 하여금 비공개로 모이는 것이 필요하고 비밀 유지에 대한 언약을 맺어야 한다. 또 다루는 문제의 성질이 '수치스러운 것' 이라고 생각된다면 보호막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보호막은 목회자나 전문가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는데, 대략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첫째는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별한 시작 세미나를 여는 방법이다. 둘째는 같은 문제로 인해 회복될 필요가 있는 친구들을 더 많이 초청해서 함께 참석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이 그 안에 있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미리 인식시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소그룹 인도자가 확실한 경계선을 가지고 토의 중에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소그룹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제안할 수 있는 대안은 교회 내에 특수한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특성화된 치유와 회복 소그룹을 운용하고 전문성을 지닌 인도자를 훈련시켜 놓는 방법이 있다.

넷째, 소그룹이 배타성을 가지고 있을 때

몇 달이 지났는데도 소그룹 멤버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감각과 열정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몇몇 사람은 아예 성장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만약 새로운 사람들이 소그룹 모임에 참여한다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친밀함' 을 깨뜨릴 것이라고 느끼기도 한다. 결국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소그룹의 문을 열어 놓은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심지어는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문제가 내부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그룹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 외에도 수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할 곳이다. 따라서 소그룹을 시작할 때부터 이에 대한 강

한 도전을 모든 구성원들에게 주어야만 한다.

이런 배타적인 성향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아이디어가 효과적이다. 첫째는 빈자리 전략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빈자리를 두고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마다 그 의자에 누군가가 와서 앉도록, 기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그룹 구성원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분리하는 것이다. 둘째는 언약의 두루마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성경 공부의 교재를 바꾸는 시점이나, 소그룹의 각 단계를 출발할 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향한 손길을 뻗치기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말로써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약속이 적힌 문서를 함께 작성함으로써 새로운 영혼에 대한 열정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거나 교재를 바꾸는 시점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성숙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영적 순례의 길을 떠나는 장이 주인도자를 세우고 그들을 미리 그리고 지속적으로 양육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한 소그룹의 리더는 소그룹 내에 항상 보조인도자를 발굴하고 그를 양육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다. 양육의 과정에서 리더는 보조인도자로 하여금 그가 소그룹을 통한 확장과 전도에 대한 훈련 및 사명 감당의 강조를 통해 마침내 새로운 소그룹의 재탄생까지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새로운 사람이 소그룹에 들어왔을 때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소그룹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소그룹 멤버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롭게

참석한 사람들은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 사람일 수도 있다. 소그룹의 개방성을 강조하고 그래서 나타난 좋은 결과이지만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 이런 경우이다.

먼저 어느 정도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새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소그룹 내에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각 교회가 선택한 소그룹의 유형이나 커리큘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은 한 주 정도 진행되는 교과과정을 멈추고 시간을 따로 내서 다시 한 번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잘 알 수 있도록 시간을 갖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더 큰 문제는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 모임의 분위기에 익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새로 들어왔을 때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 방안은 그 동안 우리 소그룹이 진행해 왔던 교과과정 중에서 소그룹이 처음 출발할 때 서로를 잘 알기 위해 나누었던 교재 중 두세 과 정도를 다시 활용하는 것이다. 모든 구성원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스스럼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도록 구성된 교재를 함께 나눌 때 이미 견고하게 결속된 구성원들은 이전에 느꼈던 기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새로 온 사람은 편안함을 느끼면서 소그룹의 멤버로 자리를 서서히 잡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새로운 사람이 소그룹에 들어왔을 때에는 그저 두세 과 정도 새로운 사람이 모임에 익숙해질 때까지 쉬운 성경 공부로 되돌아가면 되는 것이다.

생명체로서의 소그룹이 성장과 성숙을 향해 움직이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떤 의미에서 문제가 전혀 없이 소그룹 사역을 하고 있다면 생명력 없는 소그룹 사역을 하고 있다고 진단해도 틀리지 않다. 그러므로 건강한 소그룹 사역을 하고자 할 때 항상 인식해야 할

것은 소그룹 사역을 진전시키는 과정 속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나타나고, 더욱 중요한 것은 뛰어넘어야 할 난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안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소그룹 사역 속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성장을 향해 몸부림치고 있는 반증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결국 '전진하는 배에만 파도가 친다' 는 진리를 기억하며 건강한 소그룹이 되기 위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는 것이다.

소그룹 내에서 역동적인 토론을 가능하게 하라

논쟁을 좋아하는 멤버

"우리 소그룹에는 논쟁을 좋아하는 멤버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든지 결국 나중에는 서로 얼굴을 붉히고 끝이 납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소그룹은 매번 모일 때마다 멤버들이 서로 '침묵 약속' 을 맺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멤버에게 말할 차례가 주어지면 도저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아는 것은 많은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멤버들은 제대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언감생심 역동적인 토론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소그룹 리더들의 하소연 내용 가운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이 섬기고 있는 소그룹 내에서는 역동적인 토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1년 동안 말 그대로 수십 번의 소그룹 모임을 해도 말하는 사람만 하고, 이가 썩어도 입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소그룹 모임을 지속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피곤한 일' 이다. 아주 잘 알려진 소그룹 전문사역자 가운데 한 사람인 로베르타 헤스테네스(Roberta Hastenes)는 "그리스도인의 소그룹은 정해진 시간에 3명에서 12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위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기 위한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한자리에 모인 모임이다."고 소그룹을 정의한다. 이 정의 가운데 소그룹 내에서의 역동적인 토론과 관련하여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말은 3명에서 12명이라는 분명한 인원 제한이다. 즉 원만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물리적 수인 12명 이하의 사람들이 모여 '진리를 공동으로 발견하기 위한 토론' 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그룹 안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원만한 의사소통과 모든 구성원들이 진리를 함께 발견해가는 역동적인 토론을 통해서 비로소 소그룹의 건강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과연 소그룹 내에서 역동적인 토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첫째, 토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라.

실례로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물리적 상황을 한 번 생각해 보자. 소그룹 모임에 두 살배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참석하

는 젊은 엄마가 있다. 소그룹을 시작하는 첫 시간은 얌전히 앉아 있지만 십 분도 채 지나지 않아 어린아이는 엄마에게 매달리기 시작할 것이 뻔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할 것이고, 역동적인 토론은 고사하고 리더는 아예 "아이가 좀더 크면 소그룹 모임에 오겠다."는 통보를 받을 수도 있다. 또 모임 도중에 "믿지 않는 남편이 일찍 퇴근했는데 집 열쇠가 없어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전화가 한 멤버에게 걸려 온다면 그 모임에서 역동적인 토론을 진행할 에너지는 상당히 빠져 버리고 만다.

게다가 전화를 받은 멤버의 남편이 믿지 않는 상황이라면 전화를 받은 그 순간부터 그 멤버는 이미 모임을 끝낸 것이나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전화 통화 내용을 소그룹 멤버 전체가 듣게 되었다면 바로 그 시간부터 그 모임은 빨리 끝내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힐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모임 장소에 멤버들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요소들(낯선 사람을 보고 쉬지 않고 짖어대는 애완견, 계속 걸려 오는 전화, 털갈이하는 고양이 등)이 더해진다면 역동적인 토론은 그림의 떡이다.

이상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대로 역동적인 토론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그룹 멤버들이 집중할 수 있는 물리적 혹은 외면적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를 동반하고 참석하는 멤버를 위해서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를 돌본다거나, 모임의 분위기를 산만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전화기, 애완동물 등)은 미리 정리해 두며, 그리고 모인 멤버들 가운데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 등을 통해서 토론의 자연스러움에 제약을 가하는 것을 사전에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상호 친밀감을 이루라.

역동적인 토론이 가능할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관건은 멤버 상호간의 친밀감 형성이다. 즉 멤버들이 소그룹에 왔을 때 "이 곳에 와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 하는 생각이 들 때 활발한 토론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그룹 사역이 힘든 것은 소그룹으로 모이는 시간 자체만으로 소그룹 자체가 친밀감을 형성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어떤 의미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시간만을 가지고 모든 승부를 내려고 하는 소그룹은 반드시 토론 참여 저조라는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역동적인 토론이 있는 소그룹으로 가기 위한 '비공식적 관계'로써의 친밀감 형성을 사전에 이루어 내어야 하는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친밀감이란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꾸준한 만남이 전제될 때만이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 소그룹이 겪는 어려움은 비공식적인 만남을 멤버들이 자주 가질만한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소그룹의 새로운 멤버 구성이 이루어지고, 처음 소그룹이 출발했을 때의 시간을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소그룹이 생성되는 초기에 소그룹 리더는 지나치게 무엇을 하려고 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많이 먹고, 많이 웃고 떠들 수 있도록 해서 친밀감을 형성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준비해야 한다. 천성적으로 과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친한 친구를 만나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따라서 소그룹 탄생 초기에 친밀감만 형성된다면 향후 진행되는 소그룹 모임에서 역동적인 토론의 여부는 전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셋째, 좋은 질문으로 토론을 자극하라.

역동적인 토론이 가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관건은 리더가 좋은 질문을 준비하는 것이다. 질문의 기능은 질문을 받는 이들의 생각과 사고를 자극하여 그들 안에 있는 이야기를 끌어내는데 있다. 그러므로 리더가 어느 정도로 좋은 질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느냐에 따라 역동적인 토론의 가능성 여부는 결정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좋은 질문은 어떤 것인가? 역설적으로 역동적인 토론을 어렵게 만드는 나쁜 질문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면 이에 대한 대답은 의외로 쉬워질 수 있다.

역동적인 토론을 어렵게 만드는 질문은 첫째, 토론에 필요한 질문에 한계 설정을 해놓지 않는 질문이다. 한 마디로 무엇을 묻는지, 질문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주제를 토론의 중심에 올려놓는 질문이다. 이런 질문은 멤버들의 생각을 오락가락하게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리더 자신의 견해를 너무 많이 포함하는 질문이다. 이런 질문으로는 멤버들에게 새롭고 창의적인 대답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 틀림없다. 넷째, 복잡한 내용을 나열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질문이다. 이것은 미리 예습해 온 리더 혼자만 대답하기로 작정한 질문이므로 토론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 틀림없다. 다섯째, 단순히 '예, 아니오'의 대답만을 요구하는 질문이다. 이미 이것은 우리 소그룹에는 토론이 필요없다고 선전포고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결국 질문과 관련하여 역동적인 토론의 관건은 리더의 자세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좋은 질문을 통해서 멤버들의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리더는 결코 많이 말하지 않고 잘 들어주는 태도를 취한다. 즉 리더가 자신에 대해 강의하는 교사가 아니라 조력자(facilitator)인 것을 인식하고, 멤버들보다 더 적게 말하기로 작정하면서 질문을 만들고 토론을 진행한다면 역

동적인 토론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는 셈이다.

실제적으로 소그룹 성경 공부와 관련하여 역동적인 토론을 이끌어내는 질문으로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관찰 질문(예: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오천 명을 먹이셨습니까?") 보다는 해석 질문(예: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이나 적용 질문(예: "지금 당신이 오병이어 기적에 직접 참여한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리라고 보십니까?")이 훨씬 용이하다. '우호적인 의견의 불일치'를 두려워하지 않고, 멤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질문의 계발은 역동적인 토론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넷째, 비밀 유지에 신경을 쓰라.

진지한 토론을 통해 알려진 결과들이 제3의 공간에서 둥둥 떠다닌다는 것을 상상해 보라. 소그룹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는 그 안에서 소화되어야 한다. 토론을 통해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얼마 후 교회 공동체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버린다면 그 이후 진지하고 역동적인 토론을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다. 역동적인 토론의 분위기에 이끌려 진지하게 자기 아픔을 고백한 결과가 다른 사람들의 질시 어린 시각으로 돌아온다면 그 다음 시간 아무리 훌륭한 질문이 던져져도 토론의 분위기를 다시 살리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소그룹 내에서 토론하고 나누어지는 내용들이 그 안에서 보호되고, 나누어진 이야기들로 인해 이후에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며, 성경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소그룹의 구성원들이 나누는 독특한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오늘도 모임에 참석한다. 그렇

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를 나눌 때, 그 주제에 대한 토론에 대해 흥미를 느끼면서 역동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 만약 우리와 함께하는 소그룹 멤버들이 토론과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가슴이 너무 뛰어서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모임에서 불렀던 찬양을 밤새도록 불렀다고 다음 모임에 와서 간증할 수만 있다면 이런 그룹이야말로 진짜로 좋은 그룹이다.

투명성과 친밀감을 유지하라

예 / 아니오

아래의 질문에 '예 / 아니오' 로 대답해 보자.

❶ 매주 여러분과 함께하는 소그룹 구성원들과 당신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하여 가슴을 연 대화를 바로 시작하기가 어렵습니까?

❷ 필요한 말을 한 다음 곧바로 의미 있는 대화를 진행한다는 것이 왠지 어색하다고 생각합니까?

❸ 당신의 삶 속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편안하게 이야기하려면 언제나 말할까, 말까 잠시 동안 뜸을 들이게 됩니까?

❹ 당신의 소그룹 모임은 기도를 요청하고 서로를 위해 깊이 있고 진지하게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지고 끝마치기가 어렵습니까?

상기한 질문들은 소그룹 리더 세미나를 할 때마다 소그룹 전체가 친밀감을 형성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 가운데 몇 가지다. 경험적으로 볼 때 상기한 질문들에 대해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리더들은 거의 없다.

실제로 소그룹 리더들 가운데 다음과 같이 상담하는 리더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발견한다.

> "우리 소그룹은 비공식적인 교제 모임도 자주 하고, 서로 식탁 교제를 나누는 데도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멤버들 사이에는 가려진 베일이 있는 듯 하고, 어떤 경우에는 좀 냉랭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말로 설명하기에도 어려운 이런 상황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요?"

리더 자신으로서는 구성원들의 친밀감 형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 구성원들도 서로 교제하는데 별반 어려움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정작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 대두되면 마음을 열지 않는 멤버들로 인해 소그룹 자체가 온전한 친밀감을 이루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많은 활동들을 기획하고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팀이라는 의식이 형성되지 않는 소그룹이라면 성공적인 소그룹으로 가기에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소그룹 나눔의 시간에 거리낌을 가지고 있는 듯한 멤버가 있거나,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어려워하는 표정을 가지고 있는 멤버가 모임 시간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자. 분위기 전체가 가라앉는 것은 시간 문제다. 또 소그룹 모임이 매주 계속되기는 하지만 자신에게나 그룹의 나머지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숨길 요량으로 가면을 쓴 채로 앉아

있는 사람에게 성숙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현대 사회가 점점 거대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심화될수록 사람들은 더욱 자신에게 소속감을 줄 만한 적은 수가 모이는 공동체를 찾으려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자신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수긍해 줄 수 있는 소그룹 내에 안주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 내의 소그룹에 사람들이 왜 오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체 회중이 모이는 분위기 안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을 투명하게 열어 놓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그룹만으로 새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정착시키는 일이란 그리 쉽지 않다. 결국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집단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대안 공동체로서의 소그룹이 존재해야 할 필요성을 현대 교회는 요청받고 있는 것이다.

매주 모이는 소그룹에서 구성원들이 온전한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해 소속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개인적으로나 소그룹으로서나 한 마디로 불행이다. 결국 성공적인 소그룹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관건은 멤버 상호간의 '친밀감'에 있다. 그러나 친밀감은 모임의 횟수가 많거나 한 번 모여서 긴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데 어려움이 있다. 임상적으로 볼 때 친밀감 형성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투명성'이다.

투명성을 이루는 방법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자연스럽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는 투명한 소그룹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친밀감 형성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소그룹으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이유인 소그룹 내의 친밀감 형성의 열쇠인 투명성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첫째, 리더 자신이 먼저 가면을 벗을 때 소그룹 내의 투명성은 유지될 수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깊숙한 비밀이 다른 이들에게 거부당하거나 비판받을까봐 가면 쓰기를 좋아한다. 자신의 내면을 속이고, 성령께서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는 영역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시켜 적당히 포장하는 데 익숙한 것이 현대인들의 경향성이다. 그러나 자신을 투명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소그룹 내에 포진해 있는 이상 소그룹을 통한 성숙과 성장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안은 리더 자신이 먼저 모든 멤버들 앞에 가면을 벗고 투명해지는 것이다. 만약 리더가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거나 투명해지는 것에 대해 너무 힘들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그룹은 소망이 없는 소그룹이다.

리더로서 자신의 예민한 부분을 드러내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리더가 먼저 투명해지기를 시작할 때 친밀감을 향한 올바른 진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세미나 때마다 투명성과 소그룹의 친밀감에 대해 강조할 때 소그룹 리더는 '실험용 마루타'가 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리더로서 먼저 자신을 오픈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구성원들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싶기 때문에 드는 비유이다.

임상을 해보면 너무나 신기하게 리더가 이야기하는 투명성의 농도만큼만 멤버들이 자기 오픈을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즉, 소그룹 구성원들은 리더가 오픈하는 것 이상으로 절대 오픈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사랑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요 3:19~21) 만약 소그룹 리더로서 구성원들과 한 팀이 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가면을 벗어 던지는 것이 최우선이다.

둘째, 소그룹이 투명성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타이밍(Timing)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소그룹 멤버들이 상호 친밀감을 이루기 위해 요청되는 투명성 형성은 결정적인 시기(Timing)가 있다.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 후에 아무리 노력해도 별 진전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면 투명성 형성의 결정적인 시기는 언제인가?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은 소그룹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장을 위한 생명주기가 있다는 점이다. 탄생 시기가 있고, 성장 시기가 있고, 완숙하게 성장해서 새로운 생명을 낳고 양육할 수 있는 재탄생 시기가 있는 것이다.

소그룹이 친밀감을 이루어내기 위해 투명성을 형성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는 바로 소그룹 멤버들이 처음 만나 소그룹을 출범시킨 탄생의 시기이다. 탄생기는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룹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기이다. 만약 이 시기에 모든 구성원들이 겉옷을 벗어 놓고,

리더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기부여'(스티브 셜리가 집필하고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에서 편역한 「아이스브레이크 백과사전」이 도움이 될 것이다)를 통해 남김없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게만 된다면 소그룹 모임이 전체적으로 끝나는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친밀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소그룹이 처음 출발한 탄생기에 투명성 유지를 위해 모든 효과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투명성 유지를 위한 보호막을 만들어야 한다.

의외로 많은 리더들이 소그룹 내의 투명성 유지와 관련하여 폐해가 있다는 지적을 종종 한다. 내용을 들어보면 지나치게 솔직하게 표현했더니 그것으로 인해 시험(?)이 들었다는 것이다. 물론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 투명성을 유지하고 그것을 통해 상호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 정도의 약속을 구성원들 상호간에 가지고 있다면 이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먼저는 '비밀 유지' 다. 소그룹 내에서 들은 이야기는 절대로 밖에 나가서 발설하지 않겠다는 상호 언약을 맺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전적인 수용과 긍정'의 약속이다. 누가 이야기하든지 성경의 진리와 위배되지 않는다면 모든 멤버들이 전적으로 수용하고 긍정하겠다는 약속을 맺는 것이다. 자신의 이야기가 밖으로 떠돌아다닐 것이라는 위험을 느끼는 사람이 투명하게 자기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리는 만무하다. 또한 진지하게 자신의 마음을 열고 말하고 있는 순간 함께한 사람들이 수용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냉소적이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그 멤버에게서 투명한 이야기를 듣기란 거의 힘들 것임을 예상해야 한다. 그러므로 소그룹의 친밀감 형성을 위해 투명성이 요청된다면 적어도 '비밀 유지'와 '전적인 수용과 긍정'이라는 안전 장치를 소그룹 내에 마련해 두어야만 한다.

휴가철 소그룹 리트릿을 계획하라

교회마다 바빠지는 휴가철

여름이 되면 교회마다 여름 행사로 분주해진다. 여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황금 같은 시간이 아닐 수 없다. 전통적으로 여름만 되면 전국의 기도원이나 한적한 시골 교회는 각 교회에서 밀려드는 은혜파 성도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한국 교회의 전통은 새벽 기도의 열기와 함께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도들을 성숙시키는 또 하나의 축이 되어 왔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유형의 소그룹이 한국 교회에 소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전통 교회의 주류 속에서 새로운 스타일의 여름 행사가 준비되고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교회마다 소그룹을 운영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교회 전체 차원에서 구역 예배처럼 소그룹을 운영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교회의 모든 조직이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셀 교회 같은 교회도 있다. 가정 교회 스타일의 소그룹도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네비게이토나 C.C.C. 같은 선교 단체 스타일의 소그룹 시스템을 갖춘 교회도 있다. 제자 훈련과 다락방 소그룹을 운영하는 교회는 3년의 커리큘럼 속에 여름을 위한 알찬 훈련 계획이 마련될 것이다.

어떤 유형의 소그룹이든지 여름은 동일하게 찾아온다. 그리고 소그룹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은 목자된 심정으로 여름 동안 성도들이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고 오히려 영적 성숙의 길을 마련해주기 위해 노심초사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목자의 심정만 있어도 70%이상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도자들이 양떼들에게 건강한 영적 양식을 먹이기 위해 고민한다는 것은

이미 성도들의 성숙을 위한 천금 같은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유익한 프로그램

전체 소그룹 차원에서는 소그룹 컨퍼런스 같은 행사를 계획해도 좋을 것이다. 많은 비용과 준비 기간이 필요한 일이지만 이러한 행사를 계획하고 일사분란하게 치러낼 수만 있다면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여름 행사가 될 것이다. 어떤 교회는 한 해의 모든 프로그램이 여름에 이루어지는 소그룹 컨퍼런스와 같은 행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집중적인 말씀의 도전으로 성도들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렇게 강력하게 변화된 사람의 동력을 중심으로 한 해의 소그룹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여름마다 새로운 인물(?)들이 탄생되어 교회에 활력을 얻게 된다. 타성에 젖은 성도들에게는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새신자들은 자기의 존재를 모든 성도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행사는 소그룹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인 제자 삼는 일을 실천하고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을 깨우고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을 삼는 것을 교회의 핵심가치로 삼고 이것을 위해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는 교회가 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많은 교회는 아직까지 그러한 행사는 그림에 떡 같은 일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 큰 행사를 치를 수 없다고 소그룹 활동이 죽는 법도 없으며 전통 교회라고 소그룹 여름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법도 없다.

최소 단위 여름캠프

오랫동안 교회 차원의 소그룹 디렉터로 섬겼던 이병성 목사는 "하룻밤 공동체를 만들자!"(smallgroup.co.kr, 소그룹보물찾기 2004년 7월호)는 그의 글에서 목표는 단순하게, 장소는 근거리로, 시간은 최소 단위로 하여 여름캠프를 치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그룹 공동체가 좀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숙식하면서 공동의 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소속된 다른 공동체의 요구가 많아진다면 더더욱 어렵다. 그렇다면, 정해진 소그룹 공동체가 함께하는 시간을 최소 단위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것이 하룻밤이다."

또 smallgroups.com의 편집자로 널리 알려진 맥 미카일은 그의 경험에 근거하여 여름에 소그룹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여름 행사를 계획한다면 작은 교회의 소그룹이나 교회 차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교회의 작은 소그룹들도 얼마든지 유익한 여름을 지낼 수 있게 될 것이라 믿는다.

7, 8월이 나오는 큰 달력을 구해서 벽에 붙여둔다. 매주 열리는 정기모임 날짜를 살펴보고 조원들 대부분이 휴가를 가거나 집을 떠날 날짜를 삭제한다. 그 날짜를 피해서 모임 계획을 세운다. 사람들에게 친절한 행동을 하고,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면 된다.

- 이웃들을 초청해서 바비큐 파티를 연다.
- 이웃을 초대해서 함께 야구나 축구 구경을 간다.

· 이웃을 초대해서 야외 콘서트에 간다.
· 늦여름에는 크리스천이 하는 콘서트에 이웃과 함께 간다.
· 날씨가 더울 때 길가에 있는 공원에서 음료수를 대접한다.
· 길가에 주차해 있는 차를 세차해 준다.
· 이웃을 위한 무료 아기 돌보기를 시행해서 젊은 부부들이 오붓한 저녁 시간을 갖도록 해준다.
· 지금껏 모임을 갖던 요일 외에 다른 날에 모임을 갖는다. 여름에는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아침이 더 낫다. 이 기간에는 좀더 융통성을 보인다.
· 모임의 빈도는 줄이되, 모임을 없애지 않는다. 매주 모이기보다는 4주에 3번 모이거나 격주로 모인다.
· 캠핑을 가든지 함께 수련회를 간다. 선교 단체에서 실시하는 크리스천 캠프를 간다. 또는 젊은이들을 위한 크리스천 여름캠프에서 함께 자원봉사자로 섬긴다. 이렇게 해서 서로 관계가 깊어지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
·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되 개인 기도와 그룹 기도를 병행한다. 특별히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에게 한 단계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기도한다.

소그룹 컨퍼런스와 같은 거대한 프로그램이 없어도 이와 같은 소그룹별 활동으로 조원들과 함께 단조로운 일상을 벗어나 보는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새로운 관계가 생겨나고 기존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아래의 몇 가지는 꼭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각자가 자신이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단기수련회라면 음식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좋다. 둘째, 노트, 펜, 성경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단순하게 노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시간표를 만들어서 가까운 곳에 붙여 두고 정각에 시작하고 마쳐야 한다.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이다. 넷째, 하루를 여러 시간으로 나눠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말해주어야 한다. 다섯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묵상하고 조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은 꼭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사명선언문이나 만약 이번 주에 죽는다면 당신의 비문에는 어떤 내용이 씌어지기를 원하는지를 글로 써보게 하는 것이 좋다. 일곱째, 이 모든 활동에 인도자와 협력 리더는 솔선수범하여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아이스브레이크를 활용하라

아이스브레이크와 보살핌

아이스브레이크는 당신이 인도하고 있는 소그룹에 굉장한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소그룹의 역동성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일명 '스몰 그룹 다이나믹스' 라고 부른다. 우리가 구역을 진행하면서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대학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장년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그룹이든지 그 소그룹 안에 왠지 김이 빠져 있고 뭔가 억지로 도살장

에 끌려 들어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참석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다. 따라서 '그 소그룹을 어떻게 갱신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았을 것이다. 어느 소그룹 인도자는 "제가 인도하고 있는 소그룹은 질문만 하게 되면 쥐 죽은 듯 조용해집니다. 그들은 마치 침묵하기로 맹세라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왔다.

아이스브레이크는 소그룹에 참여한 구성원들 사이에 서먹서먹하게 냉각된 분위기를 깨뜨려 친밀한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소그룹 구성원들이 서로 격려하고 영적으로 더 깊은 자리에 나아가 소그룹 자체를 견고하게 할 목적으로 동원되는 의사소통의 기술, 자료 및 총체적인 시간을 의미한다.

우리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환경의 수준도 다르고 그들이 속해있는 영역도 다른 사람들이다. 다 목회자들 같으면 좋겠지만 다 목회자들일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우리 구역 모임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가정주부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각기 자기 삶의 영역에 함몰되어 있다가 한 주 하루 시간 내어가지고 만나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 자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의사소통의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훌륭한 소그룹 인도자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애달파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는 소그룹을 진행하면서 "어떠세요?"라고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나오지 않을 때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랬어요."라고 하며 가만히 있는다. 각자 자

기 삶의 영역 속에서 푹 빠져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와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본질적인 이야기, 깊이 있는 이야기가 터져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인도자에게 '에이, 괜히 물어봤네.'라는 생각이 든다. 한두 사람에게 더 묻다가 "다들 별일 없었던 거 같은데 그냥 성경 공부합시다. 이제 본문 읽고 성경 공부 진행하죠." 하고 지나쳐 버린다.

그렇게 하는 것이 크게 나쁜 것은 아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소그룹이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아, 나는 소그룹에 가서는 깊이 있는 얘기를 못해." 또는 "영적으로 우리는 긴밀한 관계 형성이 안 돼 있어.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뭘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결론으로 치닫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일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아이스브레이크이다.

건강하고 역동적인 소그룹은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서로 이름을 아는 것이다. 한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를 아는 것이다. 소그룹이 이런 현장이 될 때, 그 소그룹은 건강하고 역동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영적인 이야기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꺼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소그룹을 시작할 때 하는 아이스브레이크로써 마음열기이며, 그 다음은 소그룹을 마칠 때에 하는 아이스브레이크로써 보살핌이다.

목회자들이 볼 때 저 소그룹 인도자가 정말 칭찬할 만하고 인정할 만하고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소그룹 인도자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소그룹을 인도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의식의 차이도 있고 삶의 방식도 굉장히 다르고, 그들의 우선 순위도 다 다르다.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와 폭

도 다 다르다. 그런 천차만별의 사람들과 함께 소그룹을 진행할 때,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고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마음열기가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 정말 즐겁게 시작해서 '아, 나는 여기에 와서 소속되어 있고 우리의 목적은 동일하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소그룹 안에서는 용납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성공적인 소그룹 인도자가 되는 것이다.

소그룹 인도자는 누가 이야기하든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성경의 진리와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또 훌륭한 소그룹 인도자는 정답과 오답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을 얘기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다.

"김 집사님, 한 주간 동안 슈퍼모델에 가까운 한 주간이었나요? 아니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한 주간이었나요?"

그렇게 물으면 뭔가 대답을 하게 된다.

"저는 슈퍼모델 쪽에 가까웠습니다."

"왜요?"라고 물으면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 속에서 나누는 것은 한 주간 동안 함께 만나기 전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생활의 이야기가 되며 이 이야기를 진행하는 동안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터치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소그룹을 시작할 때 효과적으로 사람의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이야기를 깊이 해서 나중에는 비전을 나누는 공동체로 발전시키도록 돕는 자료가 아이스브레이크이다. 아이스브레이크는 견고한 팀워크 형성을 위해서 실시한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중고등부나 청년부 수련회를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팀 파워를 형성하는 공동체 훈련이다.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면, 다양한 관계의 방들로 가득차 있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은 수천 개, 수만 개의 문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을 만나면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맨날 뒤에 가서 수군수군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에게는 마음문 2개만 열어줘야지 하고 그 수준까지만 열어준다. '열어준다' 는 의미는 그 사람하고의 인간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자신을 오픈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소그룹 안에서 소그룹에 참여하는 소그룹 구성원들을 향해서 '우리 소그룹(구역)식구들은 내가 좀 깊이 있는 얘기를 하면 금새 돌아서서 딴 사람하고 뒷얘기를 하더라.' 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면 절대로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다. 이런 불편함이 계속되면 그 소그룹은 절대로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 것이다.

아주 냉랭한 분위기를 깨뜨릴 수 있고, 영적인 이야기를 깊게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깨뜨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아이스브레이크로써 '보살핌' 이 있다. 따뜻하고 감격있는 효과적인 마무리는 또 다른 시작을 약속한다. 이 보살핌이라는 것은 소그룹을 마칠 때 적용하는 아이스브레이크이다. 따뜻하고, 감격적이고, 효과적인 마무리는 또 다른 시작을 약속한다. 소그룹 마칠 때, 효과적으로 마무리를 한다면 또 다른 시작을 분명히 약속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분기점이 된다.

아이스브레이크는 소그룹 내에 영적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기 위해 실시한다. 영적인 체험과 감동, 감사와 응답, 이런 것이 있는 소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노력하고 소그룹 인도자들이 애를 쓰지만, 이야기하라고 하면 입을 다물어 버리고, 기도 제목을 다 모아보면 괜히

물어봤다 싶을 정도로 천편일률적인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감사에 응답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다. 우리는 상대를 사람을 앞에 놓고 사랑이나 감사의 표현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이 서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잘 못하니까, '저 사람은 항상 나에 대해서 화내고 있다' 라고 느낄 수도 있다. '저 사람과는 깊이 있는 얘기가 안 된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이스브레이크이다.

성경 공부를 마치는 시간에 성경 공부 친구들과 다음에 주어진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자. '이번 주 당신을 가장 잘 묘사하는 일기예보를 하나만 선택해 보십시오. 선택한 것과 관련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자, 박 집사님, 지난 주 날씨 상태가 어땠습니까? 밑에서 하나 골라보시겠어요?"

"저요? 음… 영하 15도에다가 바람까지 부는 찬 날씨였어요."라고 대답을 한다. 그러면 인도자는 "왜요?" 이렇게 물어주기만 하면 계속 이야기가 진행될 것이다. 자기가 이것을 선택한 이유를 쭉 이야기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아이들과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요약하면, 지금 하나님께 아뢰어야 될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그를 돕고 기도로 격려해야 될 것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자, 이 집사님은요?"

"저요? 음… 좋지 않은 날씨일 것이 확실합니다."

"왜요?" 이 집사님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이다. 이유를 물었더니 이 집

사는 이렇게 대답을 한다. "다음주 금요일까지 제가 맡은 프로젝트를 끝내야 되는데 지금 머리 속에 하나도 정리된 게 없고 해놓은 것도 없고 답답해서 정말 머리가 돌 지경입니다."

그러면 인도자는 "어휴, 이 집사님 그러면 금요일까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프로젝트 잘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군요."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이 집사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다.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성경 말씀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한다. 그리고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한다. 또 한 말씀을 선택하여 그 문장의 주어를 1인칭으로 바꾸어 봄으로써 선택한 그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아이스브레이크 자료들은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에서 편역한 아이스브레이크 백과사전에 수록되어 있다.

아이스브레이크를 활용할 때 유의할 점

아이스브레이크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 번째, 소그룹이 얼마나 지속된 모임인가를 예리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위험도가 낮은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점점 위험도가 높은 이야기로 발전해야 된다. 자료가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적용을 하면 "지금 우리 소그룹은 그걸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관계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이고 내가 이야기할 때 어떤 반응을

하는 사람인지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자기의 깊은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관계 형성의 밀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예리하게 판단해야 한다.

특별히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서는 어릴 때부터 발가벗고 같이 놀았는데, "여기에 있는 대한민국 지도를 보세요. 당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된다. 그러니까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성숙도, 관계의 밀도, 함께 살아온 경륜 등을 늘 예리하게 판단하면서 적용해야 한다.

두 번째, 어떤 종류의 소그룹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굉장히 지적이고,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억지로 깨뜨리기 위해 아주 우스꽝스런 마음열기나 보살핌을 적용한다면 역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인 사람들이 근엄하다고, 근엄한 마음열기나 보살핌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중요한 것은 그 소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이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인도자는 항상 예리하고 통찰력 있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그룹은 여러 가지 종류의 소그룹으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사별한 사람들끼리의 모임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남편과 사별하고 사는 미망인들끼리의 소그룹이 있을 수도 있고, 고3 학부모들만의 모임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아이스브레이크 적용시킬 때는 이 소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은 제거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소그룹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세 번째, 오늘 성경 공부 주제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다. 그런데 웃고 떠드는 마음열기를 적용한다면 "지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웃고 떠들고 할 분위기가 아닌데."라는 말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저 사람, 영적인 깊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 공부 모임의 주제와 상응하는 그런 영적인 마음열기나 보살핌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 교재를 주면 교재에 나온 대로 곧이곧대로 다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우리는 분위기에 따라서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 아이스브레이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때로는 구성원 모두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만 질문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질문의 내용이 많다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한 문제씩 맡아서 대답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여러 방법들을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계획성 있게 잘 짜여진 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가고 싶지 않은 소그룹의 1위가 제멋대로 끝나는 고무줄 같은 소그룹이기 때문이다. 소그룹 인도자가 자기 기분이 좋으면 1시간 반 해버리고, 기분 나쁘면 30분 하고. 이런 들쭉날쭉한 소그룹에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정말 건강하고 역동적인 소그룹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계획성 있게 잘 짜여진 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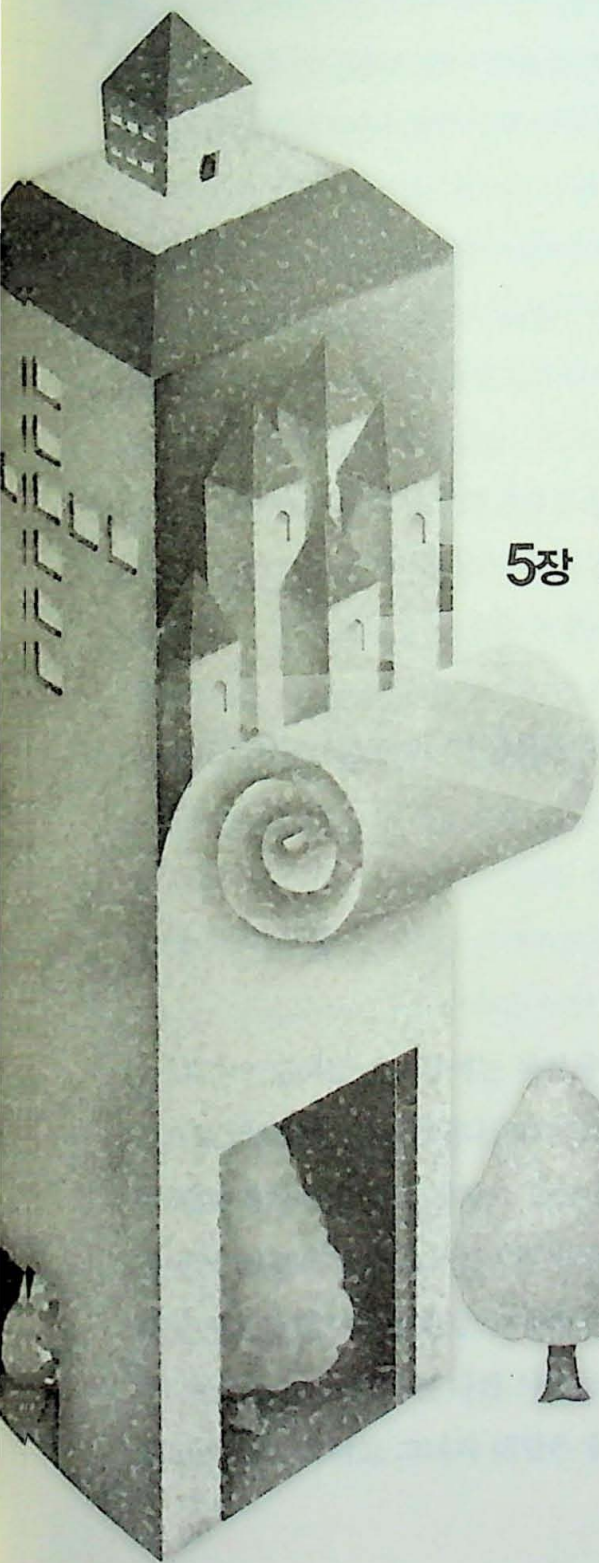
동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아이스브레이크를 적용할 때, 사전에 리허설을 해보아야야 한다는 것이다. 리허설을 해보지 않고 마음열기를 갖고 들어갔다가 낭패보는 경우가 많다. 마음열기와 보살핌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소그룹 인도자들끼리 모여서 먼저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미 사용을 해본 인도자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거 해보니까 어떤 대답이 나오느냐,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이야기가 모여지더냐 하는 것들을 미리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 소그룹의 인원수를 잘 조절하고 안배해야 한다.

아이스브레이크 백과사전에 보면 어떤 자료는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하면 그 이상 좋을 수 없는 그런 아이스브레이크가 있다. 일 대 일로 하는 것이 좋은 아이스브레이크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홀수로 해야 되는 아이스브레이크가 있다. 그러니까 리허설을 해보지 않으면 몇 명이 하면 좋은가 하는 견적이 나오지 않는다. 아이스브레이크 중 빙고게임 같은 것은 세 사람을 앉혀 놓고는 진행을 할 수 없다. 그것은 최소 열 명 이상은 해야 재미있다. 그것을 우리는 집단 아이스브레이크라고 한다. 집단 아이스브레이크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할 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따라서 소그룹의 인원수를 잘 조절하고 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짝수가 모여서 하는 것이 좋으냐, 홀수가 모여서 하는 것이 좋으냐, 숫자가 많은 것이 좋으냐, 적은 것이 좋으냐, 아니면 일 대 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이와 같은 견적을 아이스브레이크를 적용할 때마다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일곱 번째, 사람들의 개성과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긍정해야 한다.

아이스브레이크를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위험성이 있다.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꼭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붙잡는 경우를 종종 본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말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 소그룹 안에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 하는데 그 방파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언약서는 그런 위험의 방파제가 될 수 있다. '약속을 맺고 하라' 는 것이다. 소그룹이 출범하기 전에, 가능하면 출범하는 첫머리에 약속을 맺는 것이다. 그 언약 중에 중요한 것이 긍정에 대한 언약이다.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때, 때때로 그것이 진리에 어긋나는 이야기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만일 그것이 성경에 대한 진리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라면, 성경의 진리와 위배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수용하고 인정해준다." 이와 같은 언약을 맺어 놓는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누군가 아주 냉소적으로 앉아 있다면 그런 냉대를 당한 사람은 다음 번부터는 자기의 속 안에 있는 이야기를 절대 하고 싶어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록 2 에 '유용한 아이스브레이크 모음자료 10선' 을 수록하였다.)

5장 | 소그룹 인도자는 과연 누구인가?

인도자의 기본적인 자질은 FAT이다

세 가지 자질

"내가 인도하는 소그룹에는 독점쟁이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는 천성적으로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 자매는 모태신앙이라 성경에 조예가 깊고 훌륭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소그룹 성경 공부 시간에 다른 소그룹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는 아랑곳없이 항상 자신이 생각하는 관점에 대해서만 그칠 줄 모르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면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겨를도 주지 않고,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녀의 대답은 끝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결국 그녀가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하기 때문에 리더인 내가 애초에 계획했던 토의는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되고, 함께한 다른 사람들 역시 그녀의 이야기를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다가 소그룹 모임이 끝나기 일쑤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소그룹은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면 마치 침묵하기로 맹세라도 한 것 같습니다. 원만한 의사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소그룹은 건강한 소그룹이 아니라고 배웠는데 나에게는 애초부터 소그룹 리더가 될 만한 자질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이상은 소그룹리더십세미나 Q&A 시간에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질문들이다. '건강한 교회에는 건강한 소그룹이 있다'는 이론이 한국 교회 안에 널리 퍼지고, 아울러 역동적인 소그룹 사역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교회 안에서 소그룹 리더가 누구여야 하느냐에 대한 소그룹 리더십에 대한 관심은 점점 증폭되고 있다. 성공적인 소그룹 모임이 되기 위한 지름길은 준비된 평신도 리더를 절대적으로 요청한다. 「성공적인 소그룹 만들기」(네비게이토출판사, 1999년 간)에서 '소그룹의 성패는 준비된 리더가 열쇠'라고 말하는 닐 F. 맥브라이드의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소그룹 리더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영역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소그룹 리더가 될 자질이 있는가? 현재까지 출간된 소그룹 리더 관련 도서들만 정리해도 소그룹 리더가 갖추어야 할 자격은 일일이 열거하기에 피곤할 정도로 많다. 그러나 일단 F.A.T.라는 세 가지 영어 철자만 기억해 놓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F.A.T.는 신실한(Faithful), 여유가 있는(Available), 가르침을 받을 줄 아는(Teachable)의 앞 글자를 모아 만든 단어이다.

사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위대한 성경학자들만 출석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모태신앙으로 최소한 교회를 20년 이상 다녔고, 교회 분위기에 익숙한 이들로만 구성되어 있지도 않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Q.T도 매일 빠짐없이 하고, 깊은 영성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것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2명 이하(구성원의 수가 12명을 넘으면 대그룹이다)의 소그룹에 속해있는 영혼들을 책임 있게 돌보며, 성경 공부를 효과적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성숙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리더를 누구로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은 중차대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록 성경에 대한 전문지식이 아직은 박약하고, 교회를 다닌 연륜이 짧으며, 완벽한 영성의 삶을 유지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F.A.T. 하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다.

이제 F.A.T.로 요약한 소그룹 리더십의 세 가지 특성을 살펴보고, 성공적인 소그룹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왜 이것들이 필요한지를 알아보자.

신실한(Faithful) 리더

무엇보다 소그룹 리더십에서 요구되는 자질은 신실함(Faithful)이다. 그룹 리더십으로 신실성을 말할 때 이것은 두 가지 영역에 적용된다. 첫째,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영역이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소그룹 리더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이자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유능한 소그룹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은 거의 확보된 셈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확신할 수

있다면 '신실한'이라는 단어는 곧바로 '성장하는 삶'과 연결된다. 즉 하나님과 말씀 앞에 신실한 사람은 규칙적인 영성 생활(기도, 말씀 묵상과 개인적인 성경 공부)에 시간을 할애하고, 깨달은 사실을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통해 어제보다 오늘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것이다. 결국 신실하다는 것은 삶이 완벽하거나 성자 같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신실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다. 둘째, 신실함은 리더로서 자신의 역할에 적용된다. 소그룹 리더라면 모임에 참석하고 멤버들과 접촉하는 시간에 관심이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반복적으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리더가 모임에 나타나지 않을 때, 그것도 대신 그룹을 맡아 줄 사람을 정해두지도 않고 모임에 빠지는 것보다 소그룹 멤버들로 하여금 좌절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없다. 만약 리더가 되기를 동의했다면 그것은 바로 모이는 시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로 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시간표에서 가장 우선권을 두고, 시간을 드리며 기도하는 자세로 헌신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신실함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유용한(Available) 리더

두 번째로 소그룹 리더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헌신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뛰어난 리더의 자질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소그룹을 위해 시간적 헌신을 할 만한 적당한 때가 아니라면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소그룹을 돕는 일이다. 자신의 삶의 방식이나, 인생의 때, 우선 순위를 고려해보고 과연 소그룹을 이끌 여유가 있을지 정직하게 결정해야 한

다. 이렇게 보면 여유도 신실성의 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해외 출장을 자주 가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매주 모이는 성경 공부를 위해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유치원에 갓 입학한 첫 아이와 네 살짜리 둘째, 그리고 젖먹이를 둔 어머니는 물리적으로 소그룹 리더를 감당하기에 어렵다.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서 구성원들을 건강하게 유지하기가 힘들다면 일단 리더의 사역을 자제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 소그룹 리더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시간표를 조정해주실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우선 순위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허비하는 시간들을 정리(희생)해서 리더로 충분히 섬길 수 있다면, 시간표를 향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하튼 현명한 소그룹 리더라면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전 3:1)라는 솔로몬 왕의 충고를 묵상할 필요가 있다.

가르침을 받을 줄 아는(Teachable) 리더

남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거나 리더로서 남다른 기술이 있다는 자부심 때문에 우쭐대는가? 아니면 누구에게든 가르침을 받기에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성령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은 소그룹 리더의 중요한 자질이다. 단정적으로 말하자면 좋은 리더는 가르침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성경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리더로서 필요한 기술들을 배워나가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에 아까워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자세를 가졌다는 것은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만이나 우월감으로 가득 찬 태도는 리더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소그룹 전체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소그룹을 망치고 싶으면 교만하면 된다.

리더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 순간부터 완전무결한 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라는 야고보 사도의 고백대로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 결국 훌륭한 소그룹 리더가 되는 관건은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자신을 개방하며, 보다 낮은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섬기는 리더십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한 소그룹 진행방법

소그룹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진행 방법은 인도자의 기질과 성격에 따라 좌우되는 측면이 많이 있다. 기질이 우울질인 사람은 시간을 잘 지키는 경향이 있고 다혈질인 사람은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탁월함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떤 기질이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소그룹의 인도자라면 소그룹을 인도할 때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이 언제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째, 엄격한 시간표 적용을 중요시 하라.

소그룹이 고도의 효과를 얻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다. 여기서 소그룹이 모일 때 가지는 시간 배정이나 모든 형식은 담임 목회자에 의해 정해지

고 그 다음 소그룹 인도자에 의해 수행된다. 따라서 모든 모임의 형식은 동일할 수밖에 없고, 소그룹 인도자는 최소한의 기술만 가지더라도 모임을 진행하는데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된다. 엄격한 시간표는 그룹이 조화를 유지하게 하며 최소의 그룹 인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둘째, 허용된 범위 안에서 인도자가 진행에 융통성을 가지라.

모든 소그룹에 a) 사랑(그룹 세우기), b) 학습(성경 공부), c) 결심(과업/선교), d) 행함(활동)의 네 가지 구성 요소를 두고, 각 소그룹의 인도자는 그 그룹의 상황에 따라 네 요소를 적절하게 안배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소그룹 인도자는 각 구성 요소에 얼마의 시간을 할당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융통성이 허용된 상황에서 소그룹의 민주성을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다.

셋째, 소그룹의 생명주기를 고려하여 인도자가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라.

소그룹 인도자는 소그룹이 탄생, 성장, 재탄생 혹은 졸업의 생명주기가 있음을 이해하고 인도자는 각 단계의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소그룹이 출발한 첫 6주에서 8주 사이에는 소그룹을 견고하게 세우는데 적절하도록 고안된 교재를 가지고 탄생 단계를 진행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한다. 소그룹이 형성되고 견고해진 다음에는 성숙과 성장을 향한 제자 훈련의 과정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그룹이 새로운 소그룹을 시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인도자의 역할은 각 단계의 첫 모임과 마지막 모임에서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모임에서, 인도자는 그룹이 그들의 언약을 결정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마지막 모임에서, 인도자는 그룹이 그들의 경험과 언약 갱신 혹은 해체 여부를 평가하도록 돕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위험한 PCS그룹

리더는 소그룹을 인간적인 유대로 이끌지 말아야 한다. 인간적인 유대로 형성된 소그룹은 언제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소그룹은 어떤 형태의 그룹으로 변질될지 모른다. 건강하지 못하게 변질된 소그룹 중에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PCS 그룹이라고 부른다.

성령의 교통이 없는 소그룹은 먼저 정치적인 그룹(A Political Group)이 될 수 있다. 성령의 온전한 교제가 없는 소그룹은 잘못되면 교회 안에서 좋지 못한 세력(Power Block)을 형성할 수 있다. 물질적으로 사람들을 움직여서 자신들의 목적에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그룹은 교제한다고 사람을 만나면서 소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다.

둘째로 성령의 교통이 없는 소그룹은 논쟁적인 그룹(A Controversial Group)이 될 수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소그룹은 언제나 토론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깨달음을 서로 나누면서 성령의 터치를 기대하지 않고 성경 공부 본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과 생각을 발표하게 되면 나눔이 아니라 토론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셋째로 성령의 교통이 없는 소그룹은 사회적인 그룹(A Social Group)이 될 수 있다. 지극히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 소그룹은 성령이 말씀

하시는 것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인다. 성령이 없는 그룹에서는 인간적으로만 가까워질 수 있다. 같이 모여서 성도의 교제라는 이름으로 문화예술공연장에 간다든지 운동경기장에 간다든지 레저오락에 참여한다든지 할 때 사회문화적인 소그룹으로 전락하기가 쉽다. 일차적인 목표인 교제권 형성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활동할 수 있지만 소그룹이 어디로 가든지 성령의 교통을 떠난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이성간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소그룹 사역을 꺼리는 교회 지도자들은 바로 이런 요인을 생각하고 소그룹 사역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해서 소그룹 사역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점도 있지만 소그룹 사역은 우리 시대에 강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역이다. 이러한 위험성은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으며, 소그룹 사역은 21세기 목회리더십의 분명한 대안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소그룹 모임은 언제, 어느 때 모이든지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 한다. 성령의 교통은 소그룹이 PCS 그룹으로 변질되지 못하게 막아주는 영적 백신이다. 소그룹 리더는 소그룹 모임을 인도할 때마다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늘 그렇게 해오고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 요소다.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터치가 이루어지는 소그룹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소그룹이 될 수 있다는 본질을 재확인해야 한다.

(부록3 에 직무소개서 및 리더 자격을 수록하였다.)

6장 | 새로운 소그룹을 출발시키라

6단계의 점검

건강한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 그렇다면 건강한 소그룹은 무엇인가? 단언컨대 열린 소그룹으로서 새로운 소그룹을 탄생시키는 것이 건강한 소그룹이다. 이제 문제의 관건은 '어떻게 새로운 소그룹을 탄생시킬 수 있는가?'에 있다. 실천적으로 하나의 소그룹이 또 다른 소그룹을 낳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6단계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1단계는 바람의 단계이다. 지금 운용되고 있는 소그룹은 과연 전도와 선교를 향한 목적으로 움직여 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짧은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소그룹 구성원들이 얼마나 목적지향적인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2단계는 대상 설정의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그룹을 귀중하게 여기며 건강한 소그룹을 이루기 위한 목적지향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그룹 구성원들이 주로 영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여기서는 필요하다.

사실 교회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그룹들을 살펴보면 그 구성원들 대부분이 고도로 헌신된 그 교회의 핵심 멤버들일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로만 구성된 소그룹일수록 재생산의 기쁨을 누리기가 대체로 힘들다. 그러므로 재탄생을 꿈꾼다면 이미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대상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의 그림은 교회와 지역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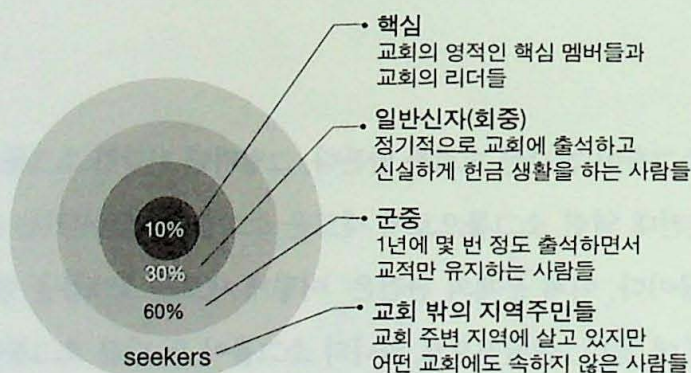



그림 11 대상설정

위의 그림에 소그룹 구성원들이 동심원 가운데 어느 위치에 속해 있었는지 점을 찍어보라. 그리고 만일 같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소그룹들에 대해

서도 구성원들을 알고 있다면 그림 위에 그 그룹의 사람들이 속한 위치를 더 표시해 보라. 다 표시하고 나면 소그룹 구성원들에게 아래의 질문을 던져보자. "어째서 우리 교회에서는 소그룹들이 오직 이 그림 위의 점에 표시된 사람들에게만 흥미를 끄는가?" 재탄생을 소망한다면 교회 내의 소그룹 구성원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대상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단계는 조사의 단계다. 교회에서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려운 곳은 어디에 있는가?'를 면밀히 살피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다. 교회에서 소그룹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사람들이 요청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전에 소그룹에 전혀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혹은 소그룹에 참석했다가 흥미를 잃고 더 이상 참석을 하지 않은 사람들 등)이 소그룹에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내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전교회적으로 설문조사와 같은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4단계는 아이디어 회의 단계다. 조사한 결과로부터 교회가 현재 더욱 신경 쓰고 배려해야 할 부분과 영역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그룹을 시작할 때 지금까지 해왔던 소그룹 사역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차별화된 소그룹 사역을 시작함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단계는 순회 유세의 단계다. 여기서는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새로운 소그룹 사역에 참여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예상 명단을 모든 소그룹 구성원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마지막 6단계는 파송의 단계다. 소그룹 구성원들 가운데 새로운 소그룹을

시작하는 데 헌신한 자들을 축하하며 파송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적당한(인상에 남을 수 있는) 파티를 여는 것도 효과적이다.

확장 - 재탄생에 대한 소그룹 점검 확인서

당신이 속해 있는 소그룹은 확장(전도와 선교- 재탄생)을 위해 움직여가고 있는가? 어떤 쇠사슬이든지 가장 큰 위험은 가장 강하게 연결된 부분에 있다. 이것은 특별히 성경 공부 그룹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바로 성경 공부의 깊이가 새로운 사람들의 합류를 가로막거나 그들이 참여할 때 편안하게 느끼지 못하게 한다. 그룹이 내부적으로 성장하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기중심적이 되고 영적으로 둔감하게 된다. 여러분의 그룹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의 간단한 물음에 대답하고 그룹의 구성원들과 함께 그 결과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자.

❶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입니까? □예 □아니오

❷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당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 □아니오

❸ 당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돌보는 작은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함을 믿습니까? □예 □아니오

❹ 당신은 당신의 교회에서 현재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❺ 당신은 교회의 한 구석에서 삶을 나누는 소그룹에 소속될 필요가 있는 친구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❻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까?

□예 □아니오

❼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소그룹 안에서 당신을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에 자신을 열어 놓을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❽ 당신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그룹을 이루고자 당신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하여 열려 있습니까? □예 □아니오

만일 당신이 어떠한 물음에도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자신은 헌신되어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부록 | 1. 직무 소개서 및 리더 자격

2. 유용한 아이스브레이크 10선

3. 소그룹하우스 성경 공부 교재 샘플

1) 오프라인 교재 샘플

201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1과

2) 온라인 소그룹 성경공부 교재 안내 및 샘플

부록1 직무소개서 및 리더 자격

1. 소그룹 인도자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격

❶ 모든 그룹 인도자는 그룹을 담당하기 전에 6시간 이상의 훈련 과정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❷ 모든 그룹 인도자는 그룹을 담당하기 전에 보조인도자를 구해야 한다.

❸ 모든 그룹 모임은 반드시 삼각기둥의 세 가지 요소 (1)그룹 세우기 (2)성경 공부 (3)임무 - 빈자리 채우기를 갖추어야 한다.

❹ 모든 그룹 인도자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인도자 계속 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❺ 모든 그룹 인도자는 최소한 일 년에 한 개 이상의 새로운 그룹을 탄생시켜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❻ 모든 그룹은 최소한 한 달에 두 번은 모임을 가져야 한다.

❼ 모든 그룹은 소그룹 관리책임자에 의해 인정된 교과과정과 교재만을 사용해야 한다.

2. 소그룹 인도자의 자격과 직무

역할

우리 모임의 임무를 다함께 완수하기 위하여 그룹의 구성원들을 준비시키고, 격려하고, 인도한다.

자격

❶ 우리 교회의 교인

❷ 자신이 받은 영적 은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

❸ 소그룹 사역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제자로서 교회의 비전을 믿고 공유하는 사람

❹ 가르칠 수 있는 사람

❺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사람

책임

❶ 그룹을 위하여 보조인도자를 발굴, 선택한다. 보조인도자를 지도하고 훈련 과정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❷ 당신이 있는 곳에서 보조인도자가 모임을 진행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신중하게 판단해서 당신이 없이 인도해 볼 기회도 마련한다.)

❸ 보조인도자와 창립 멤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장차 그룹 모임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을 초대한다.

❹ 최소한 한 달에 두 번 이상 모임을 소집한다. 모든 구성원들과 참가 예상자들을 개인적으로 방문하거나, 전화 연락 등을 통해서 왕래를 갖는다.

❺ 기도, 대화, 찬송, 성경 적용의 내용이 포함된 활동을 준비한다.

❻ 그룹이 교회 밖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❼ 각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모임을 준비한다.

❽ 대응이 필요한 심각한 위기 상황들에 대해서는 담당교역자에게 보고한다.

보고 체계

❶ 소그룹 인도자는 소그룹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훈련과 개발

❶ 오리엔테이션 / 6시간의 사전 교육

❷ 월 1회의 계속 교육

❸ 가능한 대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하여 우선권을 갖는다.

3. 보조인도자의 자격과 직무

역할

우리 모임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그룹의 구성원들을 준비시키고,

격려하고, 인도하는 일에서 인도자를 보조한다.

자격

❶ 우리 교회의 교인

❷ 자신이 받은 영적인 은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

❸ 소그룹 사역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제자로서 교회의 비전을 믿고 공유하는 사람

❹ 가르칠 수 있는 사람

❺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람

책임

❶ 아이들을 돌보아주고, 간단한 간식을 제공하고, 모임에 적합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가정을 물색한다.

❷ 초청 대상자와 구성원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서신을 통해 연락하고 왕래한다.

❸ 모임 때마다 새로운 참가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빈자리를 마련해 놓는다.

❹ 연합을 유지하고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가르침이나 행동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❺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는 책임을 받아들인다.

❻ 그룹에 대한 월간 보고서를 소그룹 관리자에게 제출한다.

❼ 충분히 성장하게 되면 새로운 그룹을 탄생시킨다.

❽ 각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모임을 준비한다.

❾ 대응이 필요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담당교역자에게 보고한다.

보고 체계

❶ 보조인도자는 인도자에게 보고한다.

훈련과 개발

❶ 6시간의 사전 교육

❷ 월 1회의 계속 교육

❸ 가능한 훈련 기회에서 우선권을 갖는다.

4. 초청자의 자격과 직무

역할

모임을 위하여 자기 집이나 편안한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그룹의 인도자와 보조인도자를 돕는다.

자격

❶ 우리 교회의 교인

❷ 자신이 받은 영적인 은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

❸ 소그룹 사역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제자로서 교회의 비전을 믿고 공유하는 사람

❹ 가르칠 수 있는 사람

❺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람

책임

❶ 자기 집이나 모임을 위해 편안한 장소를 제공하고 인도자 중심으로 모여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배열한다(원형이 적당하다).

❷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참가자들이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간단한 간식을 준비한다.

❸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여분의 성경과 종이와 펜을 준비한다.

❹ 모든 손님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따스한 미소로 문 앞에서 그들을 맞이한다.

❺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처음 초대된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한다.

❻ 손님들이 자리를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리를 정돈하고 청소를 한다.

보고 체계

❶ 초청자는 인도자에게 바로 보고할 수 있다.

6. 소그룹에 대한 현재의 관심에 관하여

❶ 나는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의 중심적인 목적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라고 믿는다.

❷ 소그룹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유는 :

❸ 내가 지닌 리더십의 장점은 :

❹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역할은 :

❺ 만일 결혼하셨다면 배우자는 당신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❻ 당신은 소그룹에서 어떤 역할에 관심이 있습니까?

□인도자 □보조인도자 □초청자

신앙고백

나는 다음의 내용을 믿습니다(예 또는 아니오에 ○표 하십시오).

□ 예 □ 아니오

1. 나는 죄된 본성을 지녔으며 내 죄의 사함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 예 □ 아니오

2.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 예 □ 아니오

3. 나는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음을 믿습니다.

□ 예 □ 아니오

4.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나의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되는 유일한 신성의 법칙임을 믿습니다.

□ 예 □ 아니오

5. 나는 사도적 신앙고백과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 예 □ 아니오

6. 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록2 유용한 아이스브레이크 10선

(아이스브레이크 백과사전/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 편역/국제제자훈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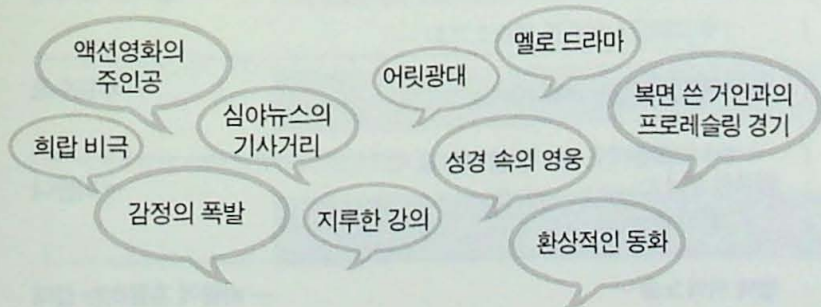
1. 나는 누구일까요

아래의 목록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 다섯 가지를 골라서 ∨표시 해보십시오. 모두가 표시하고 나면 각자 가지고 있는 교재를 펼쳐서 가운데 쌓아 놓습니다. 교재를 쌓아 놓은 다음 그 쌓아 놓은 책들 가운데 다른 사람의 책을 돌아가면서 한 권씩 집어듭니다. 돌아가면서 자신이 집어든 책에 표시된 다섯 가지 항목을 읽어 주면 그것이 누구의 교재인지 맞추어 봅니다.

- ☐ 칭찬을 받으면 얼굴이 빨개진다
- ☐ 007미팅에 나간다
- ☐ 찜질방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 ☐ 샤워를 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 ☐ 지퍼가 열린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다
- ☐ 국을 훌훌 소리내어 마신다
- ☐ 음악을 들을 때 볼륨을 최대로 한다
- ☐ 춤추기를 좋아한다
- ☐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
- ☐ 꽃향기를 맡기 위해 걸음을 멈춘다
- ☐ 낮잠을 자면서 꿈을 꾼다
- ☐ 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대화를 피한다
- ☐ 신문에 개인적인 광고를 낸 적이 있다
- ☐ 첫 데이트라도 마음에 들면 손을 잡는다
- ☐ 간이 화장실은 이용하지 않는다
- ☐ 천둥번개 치는 것을 좋아한다

- [ ] 연애소설을 즐겨 읽는다
- [ ] 낱말 맞추기 퍼즐을 좋아한다
- [ ] 쉽게 사랑에 빠진다
- [ ] 고소공포증이 있다
- [ ] 번지점프를 즐긴다
- [ ] 무술(태권도, 유도, 검도 등) 유단자이다
- [ ] 연속극을 열심히 본다
- [ ] 어두운 곳에서는 두려움이 생긴다
- [ ] 일찍 잠자리에 든다
- [ ] 기타를 칠 줄 안다
- [ ] 나무나 화초에게 이야기를 한다
- [ ] 잠깐만 시간이 나도 잠을 잔다
- [ ] 낯선 사람에게 망설임 없이 길을 묻는다
- [ ] 혼자 여행하기를 즐긴다
- [ ] 신문의 경제면을 꼼꼼히 읽는다
- [ ]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저축을 한다
- [ ] 자신의 나이를 속인다
- [ ] 심판에게 큰 소리로 항의한다
- [ ] 자신의 자동차를 직접 정비한다
- [ ] 테니스를 즐긴다
- [ ] 공포영화를 보면서 눈을 감는다
- [ ] 수박을 주먹으로 깨뜨린다
- [ ] 자녀에 대한 걱정거리가 있다
- [ ] 매일 아침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만든다
- [ ] 게임할 때 속임수를 쓴다
- [ ] 휴가는 집에서 보낸다
- [ ] 편지를 주고받는 친구가 있다
- [ ] 곰인형을 끌어안고 잔다
- [ ] 수술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 [ ] 죽은 후 화장해 달라고 유언할 것이다
- [ ] 친구에게 건강이 안 좋아 보인다고 말한다
- [ ] 우스운 이야기를 잘 한다
- [ ]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 [ ] 신문을 들면 1면보다 만화를 먼저 읽는다
- [ ] 축하카드나 연하장을 빼놓지 않고 보낸다
- [ ] 식사보다 후식을 먼저 먹는다

2. 요즘 저의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오늘 당신은 어떤 하루를 보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어땠습니까? 한 달은? 일 년은? 아래의 그림 중 요즘 당신의 생활을 묘사하는 것 한 가지를 선택해서 다른 참가자들에게 소개하십시오.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부담가질 필요는 없지만 각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고려하십시오.

3. 오늘 어땠어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래의 선 위에서 자신의 오늘 하루를 설명하기에 적당한 위치에 ∨표시를 해보십시오. 그런 다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자신이 왜 그렇게 표시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4. 총 합계

자, 이제 덧셈과 뺄셈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마음열기를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은 이 마음열기를 참가자들을 두 개의 소그룹으로 나눌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득점자나 최저득점자를 뽑아서 간식 준비 등의 담당자를 정할 때 재미있는 방법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괄호에 정확한 숫자를 적어 넣고 각자 자신의 숫자를 계산해 봅니다. 모두 계산이 끝나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합계가 나왔는지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크게 실패를 경험한 횟수 (	)
+ 내 지갑(수첩) 속에 있는 사진 장수 (	)
+ 우리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 숫자 (	)
− 이제까지 연애편지를 보내본 이성의 수 (	)
+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사를 다녔던 횟수 (	)
+ 우리 집의 전화기 대수 (	)
− 뼈가 부러졌던 횟수 (	)
+ 친형제와 자매를 모두 합한 수 (	)
− 내가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의 수 (	)
+ 내가 태어난 달은 몇 월? (	)
− 당신이 할 줄 아는 구기종목의 수 (	)
= 총 합계 (	**)**

5. 기분과 표정

요즘 기분이 어떻습니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러 갈 때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아래의 그림 가운데 자신의 기분을 묘사하는 그림을 선택하거나 적당한 표정을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왜 그런 그림을 선택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6. 내 인생 최고의 대상

지금은 여러분 자신이 선정한 최고 대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난 최고의 사람이나 최고의 것들에게 상패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고는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고 아래에 기록해 봅시다. 한두 가지를 선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하십시오.

* 내가 어렸을 때 **최고의 친구**는?

* 내가 만난 **최고의 선생님**은?

* 내가 가졌던 **최고의 직업(일)**은?

* 내가 만난 **최고의 상관(상사)**은?

* 내가 가졌던 **최고의 장난감**은?

* 내가 학창 시절에 속했던 **최고의 학급**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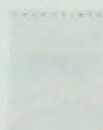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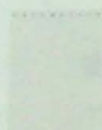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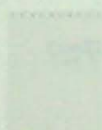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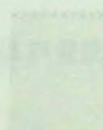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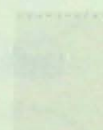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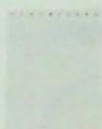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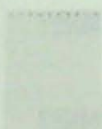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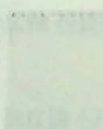
* 내가 본 것 가운데 **최고의 책이나 영화**는?

* 내가 타 본 **최고의 자동차**는?

* 내가 보냈던 **최고의 휴가(방학)**은?

* 내가 함께 한 **최고의 이웃**은?

7. 날씨 어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영역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세 가지 영역을 선택해서 그 영역의 상태가 아래에 나와 있는 각 월별 날씨 가운데 어떤 날씨에 해당하는지 표시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부담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애정　　직업　　우정　　금전　　영성

가족　　감정　　신체　　모든 것

1월 : 춥고 눈은 내리지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2월 : 새해의 결심이 벌써 무너지기 시작하고 나는 조금씩 지쳐간다.
3월 : 아직은 춥고 바람이 매섭지만 서서히 봄기운이 도는 것은 느낀다.
4월 : 모든 것이 들뜨고 동요되지만 내 인생은 여기저기서 상처투성이다.
5월 : 이제 완연한 봄이다.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바람은 따뜻하다.
6월 : 따뜻하고 느긋해지는 날들이다. 초목이 자라고 녹음이 우거진다. 마음은 벌써 여름 휴가를 기다린다.
7월 : 너무 덥다. 모든 것이 검게 그을리고 지쳐서 어깨가 무겁다.
8월 : 한바탕 태풍이 불고 빗줄기가 세차게 퍼붓고 있지만 이 고비만 넘기면 시원한 가을추수가 다가올 것이다.
9월 : 어느덧 시원한 바람이 불고 제법 가을이 느껴진다. 하늘이 점점 높아져 간다.
10월 : 가을이 무르익고 있다. 생물들은 겨울나기를 준비하지만, 산과 들은 아름다운 채색으로 불탄다.
11월 : 낙엽이 모두 져버리고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8. 나의 기념관

축하합니다! 막대한 기금을 운영하는 선한 양심을 가진 시민들의 위원회에서 당신을 기념하는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기념관 건물은 이미 완공되었고 이제 당신이 전시할 자료들을 제공해야 할 단계입니다.

기념관에는 다음과 같은 전시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가문의 전통과 유산
* 어린 시절
* 학창 시절
* 청년 시절과 사랑
* 업적
* 영적인 삶
* 미래(공사중)

당신의 기념관의 각 방에 전시될 삶의 흔적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라고 이름 붙여진 방에 당신이 훗날 전시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각자 자신의 기념관에 무엇을 전시할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합시다.

9.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아래의 목록 가운데서 지금 당신에게 좀 더 필요한 것을 5가지만 골라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자신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 생기와 활력	· 자존감	· 방향성관심	· 평정	· 안전
· 인정	· 관용	· 균형	· 활동성	· 자신감
· 보살핌	· 인식	· 건강	· 동기부여	· 대화
· 고독	· 헌신	· 묵상	· 안정	· 신뢰
· 통찰	· 기쁨	· 기도	· 친교	· 통합
· 용서	· 자기포기	· 믿음	· 목표	· 음악
· 웃음	· 후원	· 자기표현	· 친구	· 조화
· 로맨스	· 친밀감	· 인내	· 아름다움	· 민감성
· 자기인식	· 기술	· 기회	· 도전	· 다양성
· 조직	· 재능	· 절제	· 상상력	· 돈
· 책임감	· 교육	· 경험	· 자유	· 힘
· 에너지	· 건강	· 여유	· 위로	· 영양섭취
· 감동	· 수면	· 천진성	· 조정	· 유연성
· 연습	· 자기통제	· 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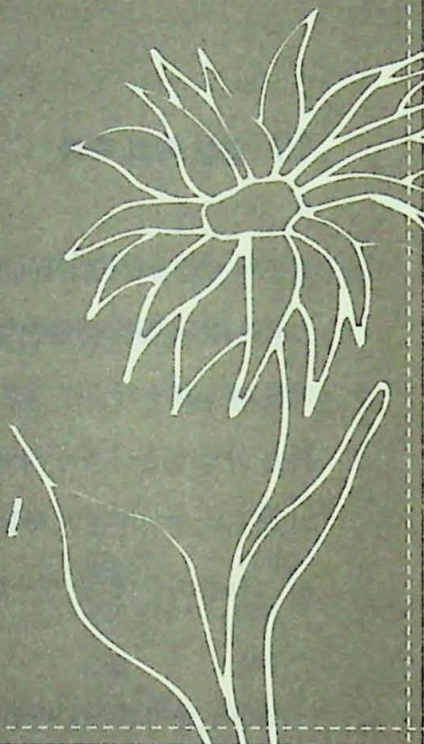
♥ 소그룹 모임에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10. 일상 속의 축복

모두 함께 각자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봅시다. 아래 그림과 같은 일상 생활용품들 가운데서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특별한 가치를 떠올리게 해주는 것을 골라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방안의 분위기를 환하고 밝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생각하며 전구를 택하거나 우리 그룹이 하나가 되도록 엮어주는 사람을 생각하며 서류 클립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들 가운데 한 가지를 이용하거나 적당한 다른 것을 택해도 좋습니다.

모두들 준비가 되었다면 자신이 누구를 생각하며 무엇을 택했는지, 왜 그렇게 연상되는지 이야기합니다.

01

제1과

출발하기

[!] 진행안내 마음열기 201(성숙)은 101보다 말씀나눔의 비중이 높아지게 됩니다. 101보다는 마음열기의 비중이 적어지고 말씀나눔과 보살핌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그룹이 탄생기를 지나 이제 성숙기로 전환되어야 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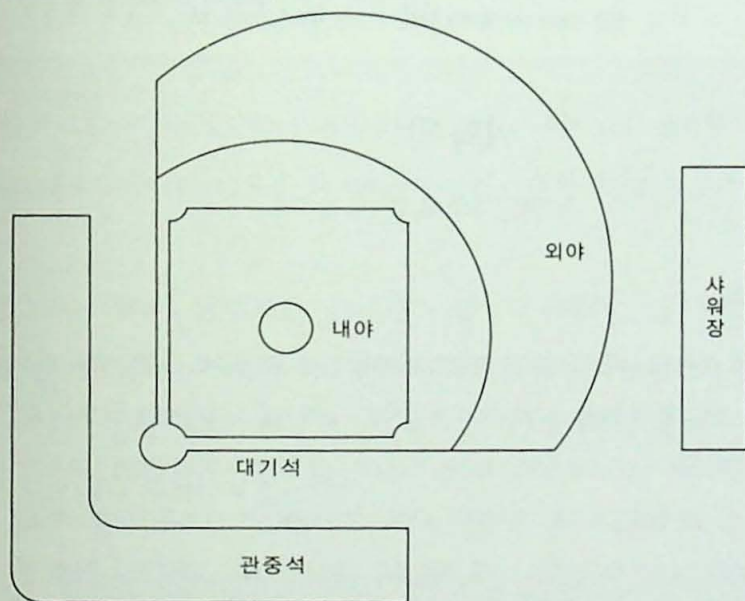
지금 나의 위치

이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서 당신의 삶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룹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표시해 보십시오. 두 가지 기호를 사용해서 당신의 위치를 나타내 보십시오.

☐ 내, 외야 – 실제 활동하고 있는 장소

□ 대기석 – 팀에는 속하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다

□ 관중석 – 흥미는 있지만 단지 관객일 뿐이다

□ 샤워장 – 몸을 식히고 씻는 곳

"지금 나의 위치" 체크를 하고 나서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지, 왜 그런지에 대해 나누도록 하십시오.

예) 하나님과 조금 소원한 관계에 있다면 샤워장을 표시한다.

멤버들에게 큰 관심이 있다면 관중석을 표시한다.

[!] 진행안내 '말씀나눔'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4명 정도가 적절합니다. 그래서 조원이 너무 많을 경우 '말씀나눔' 시간에 인원수를 적절히 조정하여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그룹하우스의 성경공부 교재는 예, 아니오의 답이나 성경구절을 찾아 답을 써넣는 식의 폐쇄형 질문은 가능한 배제하고 있습니다.

씨와 땅

누가복음 8:5~8, 11~15

개역성경

[5]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6]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7]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1]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2]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13]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14]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15]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도입

이 비유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반응하는 방법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반응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위해 네 유형의 땅을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아예 시작하지도 않는 사람은 바위로 이루어진 땅이라 할 수 있으며, 사람이나 물건에 마음이 쏠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길가

땅이고, 상황이 나빠지면 도망가는 사람은 가시떨기가 있는 땅,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시작 -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영접하는 것 - 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1. 다음은 네 사람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각각은 예수님이 설명한 네 유형의 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고 어떤 유형의 땅인지를 맞추어 보십시오.

"창호씨는 매사에 첫 번째로 지원하는 사람인데 상황이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나가 떨어진다. 많은 약속을 하지만 지키기 쉬운 몇 가지만 끝까지 행한다. 함께 하고 있는 그룹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자주 바꾸는 편이다. 인기가 없어 보이는 일은 절대 하려들지 않는다."

창호씨는 ______________________ 땅과 같다.

"민호씨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는 여러 가지 일로 항상 분주하다. 그는 진지한 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매사에 쉽게 따분해하고 재미없는 일에는 그냥 그런 태도를 보인다."

민호씨는 ______________________ 땅과 같다.

"영숙씨는 어떤 일을 할 때 실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녀는 자신에게 중요한 일은 아주 열심히 한다. 상황이 나빠져도 떠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다. 그녀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녀는 ______________________ 땅과 같다.

"은정씨는 삶을 즐기는 데만 전념한다. 그녀는 잘생긴 남자들과 같이 있기를 좋아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인기있는 그룹에 속하려고 한다."

은정씨는 ____________________ 땅과 같다.

*서로서로의 답이 일치하는지 맞춰 보십시오.

2.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복음의 씨를 뿌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3. 영적인 생활을 시작한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만 답하십시오.)

- 길가 – 말씀을 내 마음에서 밀어냈다.
- 바위투성이 땅 – 말씀이 좋기는 했지만 상황이 어려워질 때마다 포기하곤 했다.
- 가시 밭 – 잘 믿고는 싶었지만 다른 것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 좋은 땅 – 정말 흥분했고 이것이야말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4. 내가 그렇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내게는 너무 새로운 것이었다.

■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것 같았다.

■ 당시의 삶의 방식이 좋았다.

■ 모든 일에 너무 진지해지기 싫었다.

■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이 너무 좋았다.

■ 미숙해서 잘 알지 못했다.

■ 잘 모르겠다.

5. 지금 하나님과 말씀에 반응하는 자신의 방식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은 어떤 땅입니까?

■ 길가 ■ 바위 ■ 가시밭 ■ 좋은 땅

6. 구원은 사건입니다. 사전에서는 사건을 "어떤 중요한 일의 발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두 개의 성경구절에 따르면, 우리 입장에서 어떤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시작하게 합니까?

■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볼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20)

■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12)

7. 구원은 사건임과 동시에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그리스도인에게 절대로 간과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사전에서는 과정을 "계속 진행되는 움직임이나 발전"이라

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좇아가노라." (빌립보서 3:12~14)

a. 구원의 사건이 자신의 삶에 발생했다면 당신에게서 잊어버려야 할 뒤의 일은 무엇입니까?

b. 지금 당신의 앞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c. 이번 주에 목표를 향해 좇아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나누어 주십시오.

진행안내 따뜻한 마무리는 다음 모임을 위한 준비입니다. 다음 항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 당신의 생에에서 예수님을 당신의 삶에 영접한 때가 있었다면 언제인지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였습니까? 지금 당장 멈추어서 당신의 삶에 있었던 그 기뻤던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지금껏 예수님을 당신의 삶에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금 해도 좋습니다. 계 3:20에는 당신이 요청하기만 하면 당신의 삶에 들어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붙든다면 당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2. 예수님을 당신의 삶에 영접한 사건 이후로 당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잠시 돌이켜보십시오.

3.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온라인 소그룹 성경공부 교재 안내 및 샘플

'전인적 성장을 위한 온라인 소그룹 성경공부 교재' 를 소개합니다.

'건강한 소그룹, 건강한 교회!' 의 기치아래 1994년 이후 꾸준히 소그룹 성경공부교재와 소그룹사역관련 자료를 연구개발 해 온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에서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교회에서 매주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소그룹성경공부교재'(단행본)과 **'온라인 소그룹 성경공부 교재'** 를 집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의 교재와 인도자 훈련자료는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의 소그룹목회학위과정(Th.M., M.A.)의 학생들과 긴 시간 연구와 임상을 통해서 나온 결정체**입니다. 성경공부교재 역시 말씀연구와 공동체 내의 풍성한 교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역인 전도와 섬김, 소그룹의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를 효과적으로 돕는 **임상을 거친 실용적이고 차별화된 성경공부교재**입니다. 따라서 기존 성경공부교재와는 달리 'Storytelling' 식으로 구성원들의 생각과 삶을 자연스럽게 나누고 적용함으로써 친밀한 교제와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데 탁월한 적용성을 지닌 교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현재, 소그룹교재의 중요성을 인식한 국내교회와 해외한인교회 및 선교지에서 계속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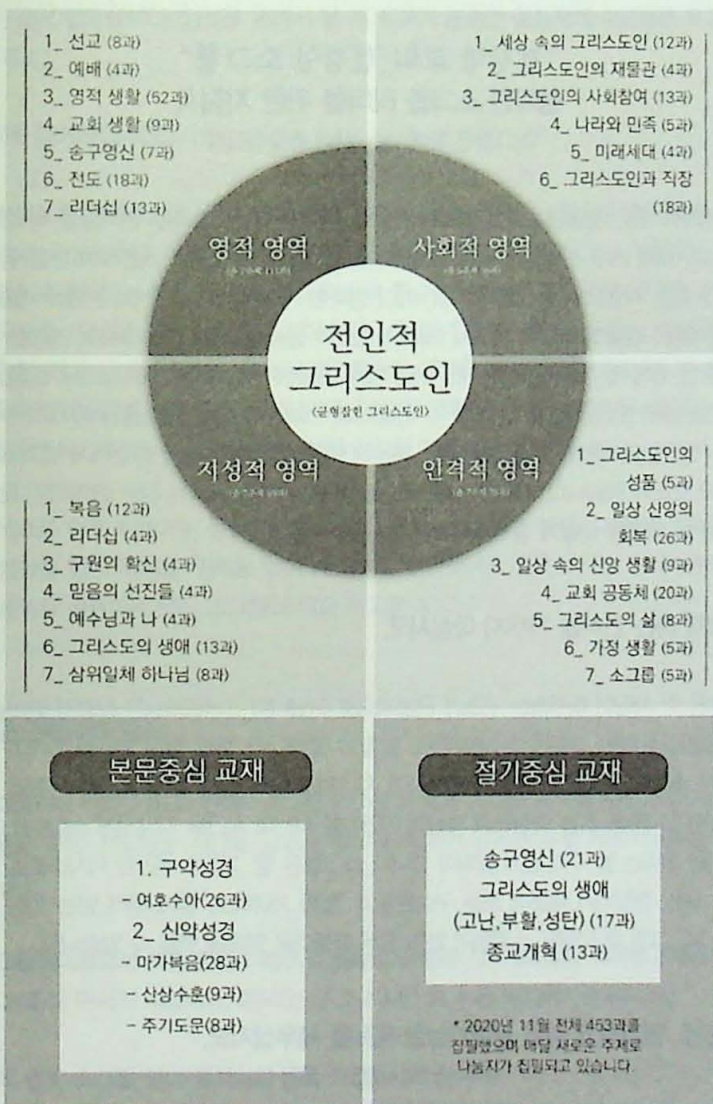
■ 소그룹 나눔지 구성 및 특징 ■

1. **아이스브레이크**(마음열기)
2. **찬양 나눔**(찬송가 & 복음성가 각 1곡)
3. **말씀 나눔**(본문 및 기본 3~4가지 질문)
   - 도입 및 관찰 질문 → 묵상 및 해석 질문①,②,③ → 적용 질문
   - 각 질문은 모든 구성원들이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작성된 열린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풍성한 삶의 나눔과 적용, 구체적인 일상의 기도제목을 나눌수 있도록 되어있는 마무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4. **보살핌**
   - 풍성한 삶의 나눔과 적용, 구체적인 일상의 기도제목, 소그룹과 영적 공동체의 기도제목을 뜨겁게 나눌 수 있도록 보살핌 지침으로 마무리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사용안내를 받고 싶으시면 본 연구원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 Korea Smallgroup Ministry Institute 대표 : 이상화 목사
☎ 070-7578-2957 팩스: 02-722-5229
전자우편: webmaster@smallgroup.co.kr / 홈페이지: www.smallgroup.co.kr

2020년 11월 현재 소그룹 교재 전체구성 일람표

(각 영역별로 계속 교재가 집필되고 있습니다.)

소그룹 교재 샘플

〈월별 인도자모임 Tip 샘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소그룹"
행복한 소그룹 리더를 위한 지침서

"소그룹은 함께 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영적 성장에 대한 갈망을 마음에 품고 모인 소그룹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겨우 신앙을 갖게 된 사람도 소그룹 안에서 성장을 거듭하여 다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고, 이미 성숙한 사람은 소그룹 안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성숙의 속도에 있어서 더욱 가속도가 붙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건강한 소그룹의 환경 속에서는 개인의 성장만이 아닌 다른 이들의 성장을 돕고 또 스스로 도움을 받는 구성원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소그룹을 유지하면서 소그룹 구성원들이 '함께' 성장하고 열매 맺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한 단계적인 목표를 세울 때 이 목표를 어떻게 함께 세우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1. '함께' 라는 인식을 거두지 마십시오.

소그룹은 한 사람이 독주하는 구조가 근본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이 많으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소그룹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열린 질문을 가지고 나눔을 위한 소그룹 모임을 지향할 때 인도자가 지나치게 말이 많은 것은 아닌지, 구성원 가운데 한 분이 나눔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을 지나치게 소비하는 것은 아닌지를 리더는 늘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소그룹은 말 그대로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 '함께' 모인 현장이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기여하고, 함께 배려 받는 현장"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아무도 소외됨이 없이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2. '함께' 변화하고 싶은 실현가능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말씀을 기준으로 인도자나 한 구성원에게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나눔이 이루어지는 소그룹이 더욱 역동성을 띠기 위해서는 매주 모임을 가지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맹목적인 모임을 좋아할 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그룹 멤버들 각자에게 "우리가 왜 모였는지" "모여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모임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좋은지"를 물어보고 실현가능한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상을 통해서 볼 때 목표가 분명한 공동체에 사람들은 오고 싶어 합니다.

3. 함께 걸어가십시오.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 매주 서로를 배려하는 모임을 가지며 주중에도 리더와 구성원들이 서로 영적인 격려와 돌봄을 지속적으로 하면 그 소그룹에는 성숙의 기쁨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모습들 가운데 보다 깊이있는 기도제목 나눔과 영적인 격려를 위해서 비밀유지에 기초를 둔 리더 보고서 작성을 통해서 교역자들이 '함께' 목회적인 돌봄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교역자들과의 소통은 필수적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 격려하고 배려며 함께 걸어갈 때 우리 자신도 믿기 어려운 영적인 성장을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 목표를 향해 뛰어가는 동안 어려운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가 있기에 영적인 성장을 향한 여정을 두려움 없이 시작하고, 좌절하여도 일으켜 주는 형제자매가 있기에 끝까지 완주하는 멋진 소그룹이 되길 기도합니다

월별 인도자모임 광고

1. **소그룹리더 산상 기도회 안내 :** 소그룹 리더들과 함께 소그룹 사역과 자신과 맡겨질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추후 재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소그룹리더보고서 제출 안내 :** 매주 조원들의 근황과 기도제목들을 리더보고서에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보고나 서면 보고 중 택일하시면 됩니다.)

※ 교회 별로 소그룹 리더 공지사항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그룹 교재 서언 샘플〉

■ 교회 생활

교회 내 신앙생활 가이드(1)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바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교회내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 고민하는 성도들을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교회 내 신앙생활 가이드(1,2)'**를 통해서 교회 내 신앙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몇 가지 영역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1과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역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과의 목표는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바른 예배 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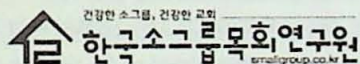
2과 "성도의 특권, 기도" 기도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식상해 합니다. 반복적으로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이 들었다고 기도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알기는 하지만, 정작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의 특권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잃어버렸던 기도의 골방을 되찾는 것이 본 과의 목표입니다.

3과 "금보다 사모하는 말씀" 우리의 신앙이 메마르고 결핍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갱신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생활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도록 도전을 주는 것이 본 과의 목표입니다.

4과 "감옥에서 부르는 찬양"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찬송하며 삽니다.
성경에서 찬양하라는 명령은 수를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찬양해야 하는지, 언제 찬양해야 하는지,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 살

펴보고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결단하는 것이 본 과의 목표입니다.

5과 "성령 안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나눌 친구가 필요합니다. 다른말로 하면 인간은 교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 과에서는 성도의 삶에 교제가 필요한 이유와 어떻게 그 교제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의 강건함 있기를 소원합니다.

대표 이상화

〈소그룹 교재 나눔지 샘플〉

■ 교회 내 신앙생활 가이드(1)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 마음열기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에 대해 묵상할 때 마다 내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 겸손 □ 안도감 □ 의심 □ 감사 □ 소망 □ 회의
□ 분노 □ 영적인 감동 □ 아무 느낌도 없다. □ 기타

♬ 함께 찬양

우리에게 향하신
새찬송가 95장(통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 말씀 나눔 [마태복음 4:8~11]

1.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만일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리라는 시험을 받으실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때 사용된 '경배하다'와 '섬기다'는 단어는 예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배란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이나 축도로 끝나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엎드려 최고의 가치로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예배는 어떠한지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예배의 의미를 생각해보지 않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많았다.
□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은혜 받는 것'으로 이해했었던 것 같다.
□ 예배의 모든 순서에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바른 예배생활을 위해 예배 자세와 마음가짐을 다시 바로 잡아야겠다.
□ 기타

2.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자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와 경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 요즘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 버린 것 같다.
□ 사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있다.
□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 기타

3.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러오기 전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마음가짐, 성경찬송, 헌금, 복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는 전심을 다해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예배 이후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당신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바른 예배를 위해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
예배 전 준비해야 할 것	
예배 중 집중력을 다하는 것	
예배 후 드리는 삶의 예배	

⊙ 보살핌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로 경배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될 수 있도록3번에서 결단한 것들을 놓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모든 예배가 '최고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고 마무리 하십시오.

 # 한 주간의 기도제목

교 회	
소그룹 공동체	
개인기도	

| 인.도.자.용 |
1과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 학 습 목 표 ■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역시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과의 목표는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바른 예배 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 말씀 나눔을 위한 도입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보통 우리는 예배, 교육, 전도, 기도, 교제, 봉사 등 교회 중심의 여러 가지를 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굳이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예배를 희생하면서 해야 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혹시 교회 봉사하는 일에 바빠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교회나 전도회 모임 때문에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른 예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그룹 마침기도 ■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죄인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녀삼아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에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구속의 은혜를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최고의 것을 최선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전부되신 주님께 내 모든 것 내어드리기 소원하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상기한 내용을 참고 하셔서 더욱 깊이 기도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 참고구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1)

'온라인 소그룹 성경공부 나눔지' 사용 및 신청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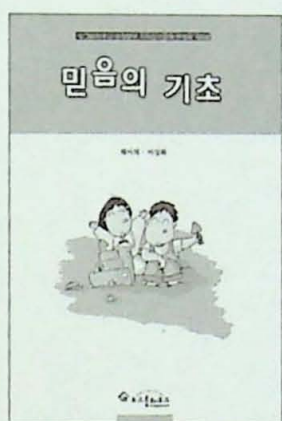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후 신청서를 메일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 070-7578-2957
주소: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7길 31 교육관 503호
전자우편: webmaster@smallgroup.co.kr
홈페이지: www.smallgroup.co.kr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
Korea Smallgroup Ministry Institute

소그룹하우스 출간 성경공부 교재

■ **101 부르심 / 제1권 새로운 시작**

제1과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부르심
제2과 제자로 부르심
제3과 남을 돌볼줄 아는 자로 부르심
제4과 화목하게하는 자로 부르심

■ **101 부르심 / 제2권 믿음의 기초**

제1과 겉과 속
제2과 알지 못하는 신에게 고함
제3과 돌아온 아들
제4과 보다 더 소중한 것

■ **201 성숙 / 그리스도인의 성품**

제1과 심령이 가난함
제2과 애통함, 온유함, 의에 주림
제3과 긍휼히 여김
제4과 마음이 청결함
제5과 화평케함
제6과 의를 위해 핍박받음
제7과 겸손
제8과 사랑

■ **201 성숙 /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제1과 먼저 나를 알아볼까요
제2과 나의 역할
제3과 하나님의 요구수준
제4과 부담스러운 만남
제5과 선하게 대함
제6과 주도권 잡기
제7과 견해차이
제8과 탁월한 화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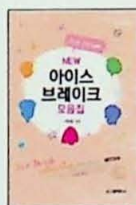
■ **201 성숙 / 그리스도인이 된다**

제1과 출발하기
제2과 전환점
제3과 성장의 고통
제4과 투쟁
제5과 사랑하기
제6과 버티기
제7과 다음 단계

소그룹하우스의 추천도서

소그룹 성경공부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팻시코라 지음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 옮김
소그룹하우스
개정판 | 13,000원

이 책은 팻시코라가 25년간 경험해온 소그룹 사역의 총결산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에 담겨있는 내용은 효과적인 소그룹 성경공부의 특징, 토론을 이끌어가기 위한 원리, 좋은 리더의 자질, 소그룹성경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검토해야 할 일, 소그룹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그 해결책이다. 이 책은 미국에서 120만부가 팔린 밀리언셀러이며 아마존 독자만족도 최우수의 책이다. 순장, 구역장, 셀 리더 등 모든 종류의 소그룹 인도자들이 꼭 읽어야 하는 필독서이다.

NEW 아이스브레이크 모음집

채이석, 이상화 엮음
소그룹하우스
신국판 | 25,000원

이 책은 소그룹 모임의 시작과 끝을 역동적이고 따뜻하게 인도할 수 있는 아이스브레이크 아이디어를 모아놓은 책이다. 사용법과 마음열기, 보살핌의 3부로 구성되어 소그룹의 생명주기와 모임의 주제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아이콘별 찾아보기를 달아 놓았다. 아이스브레이크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또 처음 아이스브레이크를 활용하는 리더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서 소그룹을 효과적이고 역동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과 실제적인 자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성경공부 교재 시리즈 세트

101시리즈
새로운 시작
믿음의 기초
새로운 도전

201시리즈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301시리즈
본문연구
집필 중

401시리즈
재탄생

※ 도서구입은 본원 홈페이지 smallgroup.co.kr을 참고하십시오.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소그룹의 원리는 지난 40여년의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메시지와 교육학적 방법이 조화를 이루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한 소그룹 사역 자료들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소그룹을 인도하는 기술만을 소개하거나 하나의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소개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건강한 소그룹, 균형잡힌 소그룹을 통하여 온 교회를 포괄하는 양육체계의 뼈대를 바로 세움으로써 건강한 교회로의 체질개선을 이루고 균형잡힌 성장을 이루게 하는 소그룹 사역의 모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93230
9 788991 586130
ISBN 978-89-91586-13-0
Printed in Korea 값 11,000원